

통권 제33호 | 2018

횡성문화



횡성문화원

문 | 화 | 비 | 전 | 선 | 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하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재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대한민국 231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황성문화원장

새 원사에 옮겨와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면서 서른세 번째 ‘황성문화’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토지 발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옥고를 보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장에도 아득한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치열하게 살다간 의미 있는 흔적들이 수없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어찌면 그 삶의 흔적들은 이미 소멸된 것이 많겠지만 세월이 더 지나면 또 지워질 향토시를 발굴, 조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문화원은 올해 문화학교운영(14개분야), 관내·외 문화유적 답사, 학생들, 귀촌인에 대한 고장 문화유적 답사, 향토문화 보존 전승 및 정월대보름 민속 재현, 전통문화 체험학습 및 공연, 어르신 노래자랑, 국악대공연 등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한 4·1만세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황성 3·1운동 서사시집, 강림·금대리 의병총에 대한 향토사료집을 발간, 애국의 고장 황성을 조명하고자 하였으며 황성의 역사인물 선양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적 소명 의식을 갖고 변화하는 시대에 문화원의 역할 강화에 구성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미 있는 향토지가 나오도록 애써주신 편집위원님들, 문화원을 지원하여 주신 임원님, 회원님 그리고 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해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져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 12.

황성문화원장 박 순 업



황성군수

황성의 맥과 얼을 이어가는 소중한 문예지이자, 우리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 기록지인 '2018 황성문화, 통권 제33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문화 창달에 각별히 노력해 오신 박순업 문화원장님과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성문화'는 황성을 대표하는 향토문화지로, 통권 33호에 이르는 동안 황성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공유하며 황성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주었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심어주며, 황성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황성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황성문화원은 올 한해, 그 어느 해 보다 뜻 깊고 보람된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일 보다 쾌적하고 현대화된 신축 건물로 이전한 것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관내 향토문화유적답사, 향토시발굴조사, 향토지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공연을 주관해 왔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4·1황성군민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황성군과 협력하여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 결성 및 애국지사 선양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황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큼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야말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훈이며,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황성문화 통권 제33호' 발간이 더욱 값지고 뜻 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황성문화'가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전령사가 돼 주길 바라며, 이 모든 일에 황성문화원이 앞장서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황성의 위대하고 찬란한 문화유산을 재조명하는 데 이김 없는 애정과 열정을 쏟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황성군수 한 규 호

축사 | Congratulatory Message



황성군의회 의장

역사와 문화의 우리 고장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역문화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2018 황성문화』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문화 창달에 누구보다 앞서 오신 박순엽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토문화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삶의 본질이며, 우리들의 모습이 투영된 것으로써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계승 발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황성문화』의 발간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미래의 지혜를 찾는 소중한 자료이며, 군민들에게 우리가 대대로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할 황성에 대한 사랑과 역사인식을 일깨울 것입니다.

앞으로도 향토사 연구와 문화자료의 조사, 연구활동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나아가 지역 문화의 창달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으로 황성문화의 진정한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역문화를 열어가는 『2018 황성문화』의 발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황성문화』의 소중한 기록들이 우리 군민들의 가슴속에 드높은 자긍심을 일깨워 향토사랑을 심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황성군의회 의장 변 기 섭

3.1공원 느티나무는 그날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

-횡성 4.1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리며-

김성수시인 (문화원 회원)

3.1공원 입구에서 있는 횡성 군목(郡木)
저 우람한 느티나무는 말하고 있다
지금부터 100년전 4월 1일
온 군민이 한데 모여 목이 터져라 외치던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만세소리는 천지를 진동했고
태극기의 물결은 하늘을 가렸던
울분에 차오르던 민족의 봉기
밀물처럼 흘러가던 만세의 행렬을
똑똑히 보았노라고

일제의 총탄에 다섯 분의 의사(義士)가
꽃다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고난을 당했지만
가슴속에 타고르던 애국의 불길은
더욱 더 번져갔나니
그 위대한 민족의 부르짖음을
똑똑히 들었노라고

저 느티나무 피부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웅이에는
민족의 울분이 분노로 농울져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노라고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를 흔들며
푸른 육성으로 말하고 있는
저 느티나무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이 온 누리를 덮었을 때
군민들 모두 거리로 뛰어나와
목놓아 부르던 만세소리도
다 들었노라고
역사의 목격자 느티나무는
아직도 울먹이면서 말하고 있다

해마다 4월 1일이 되면
선열의 뜻 높이 기리기 위해
지금도 그 때처럼 만세를 부르며
거리를 행진하는 우리의 모습까지도
저 느티나무는
나이테 속에 새겨두었다고
먼 먼 후손에게도 말해 주리라

하늘은 언제나 정의로운 쪽에
승리를 안겨주고
피흘려 나라를 지킨 민족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우리들이 밝혀 든 위대한 민족의 햇불
아, 영원히 꺼질 수 없는

4.1 독립만세!

4.1 독립만만세!



金性洙 詩人

◎ 등단(登壇)

- 조선일보 신춘문예와 신춘평화문학상
- 월간문학신인상 당선으로 문단에 오름

◎ 문학상 수상

- 창주문학상, 치악예술상, 평화문학상, 원주향토문화상
- 이육사문학상, 강원문학상, 강원예술상, 강원도문화상
- 시조사랑문학상, 한국예총 예술문화상 대상 수상

◎ 저서

- 시가 흐르는 섬강 외 시집 17권
- 중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에 시작품 수록됨

◎ 강원문인협회 자문위원, 원주문인협회 고문

◎ 횡성문화원 회원

Contents

문화 비전 선언문

발간사 | 문화원장

격려사 | 황성군수

축 사 | 황성군의회 의장

축 시 | 3.1공원 느티나무는 그날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

- 황성 4.1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리며 | 김성수 시인

I. 향토문화의 연구 ▶ 013

* 황성 3.1운동의 뿌리와 그 자취 | 박순업 ▶014

* 황성의 금산·봉산과 시장에 관한 소고 | 진연호 ▶036

* 서원면 풍수원 성당, 의병총 | 김동정 ▶058

II. 향토문화숨결 ▶ 079

* 조선시대의 정치와 교육제도 | 이병곤 ▶080

* 숫자로 본 동양고전의 지혜 | 현원명 ▶093

* 전래(전통놀이)야 놀자! | 박현숙 ▶120

III. 황성사람, 황성이야기 ▶ 127

* 나방이야기 | 한상균 ▶128

* 회다지 | 임청근 ▶168

* 그럼! 내년에도 황성군 축제의 날은 엽서 쓰는 날 | 김미애 ▶173

IV. 문화유산을 찾아서 ▶ 179

- * 관내 문화유적지 답사 | 민사고 2편 ▶180
- * 목포시, 해남군 관외 문화유적지 답사 | 민정기 ▶187
- * 신라문화권 관외 향토문화비교답사 | 김정예 ▶190
- * 전주 · 부여 문화유산을 찾아서 | 한상운 ▶198
- * 천혜의 비경, 라오스를 다녀오다. | 민준식 ▶210
- * 귀촌인 대상 관내 문화유적지 답사기 | 이윤성 , 이현희 ▶217
- * 관내 문화유적지 답사기 | 송혜영 ▶225
- * 코 끝에 느껴지는 평화, 화천파로호와 평화의 댐 | 채명지 ▶229

V. 문예마당 ▶ 235

- * 몽환의 사유 길을 걷다.
하늘아래 첫 학교 '태기분교' 를 다녀오다. | 정재영 2편 ▶236
- * 소리의공덕 (시) | 최보정 ▶263
- * 故)이연승작가 동시비건립 21주년기념
글짓기대회 동시, 산문 입상작 각 1편 ▶264

VI. 문화원 소식 ▶ 267

- * 2018년 문화원 사업실적 ▶268



A traditional Korean map with a green fern frond and a black ink wash.

I. 향토문화의 연구

- * 횡성 3.1운동의 뿌리와 그 자취 | 박순업
- * 횡성의 금산·봉산과 시장에 관한 소고 | 진연호
- * 횡성문화유적 탐방 | 김동정

횡성의3·1운동의 뿌리와 그 자취 고찰



박순업 (문화원장)

1. 시작하며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서울 탑골공원에서 일어났던 3·1운동¹⁾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횡성은 강원도의 진원지가 되어 강원도 최초로 3·1운동기념비가 세워졌고 ‘애국의 고장’이라 부르게 되었다. 우리 강토에서 횡성군민이 대한독립만세를 부른다는 이유로 4월 1일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케 하였으며 잔인한 고문과 옥살이로 삶을 파탄나게 하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애국지사들은 목숨바쳐 싸웠다. 이제 1세기가 지나면서 그 피맺힌 외침이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잊혀져가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이면 횡성군민 4·1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독도, 역사교과서, 위안부, 징용, 근로정신대 문제가 청산되지 않고 뉴스에 오르내리며 100주년을 맞이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과거의 아픈 역사를 뒤돌아 보고, 선열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당위성이 있다. 흘러간 시공 속에 어렴푸시나마 애국지사들의 삶과 자취를 조명해 보는 것은 극일(克日)의 길이 될 것이다. 이에 미흡하나마 횡성의 3·1운동의 뿌리와 애국지사들의 자취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1) 삼일운동 : 서울에서 3월 1일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4월까지 이어진 만세운동을 모두 3·1운동이라 함

2. 황성 3·1운동의 뿌리

(1) 임진왜란과 황성

왜군은 임진년(1592) 8월 25일경 원주 영원산성을 함락한 후 1593년 5월초까지 약 8개월간 그들의 진로 선상에 있는 황성에서도 약탈과 학살이 자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왜군은 군량미 보급에 급급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매서운 추위에 이래저래 시달리게 되었다. 황성지방에서 저지른 방화, 살인, 약탈은 이때 초조해진 왜병이 그 잔인성을 나타낸 본보기라 할 수 있다.

황성지방에 왜군이 주둔하여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아 그 피해가 심해지자 주민들은 산 속으로 숨거나 피난을 하였다.

황성군 갑천면 포동리에 살던 정준제(鄭俊齊)는 의병이 되어 멀리 떠났으며 부인은 피난 대열에 끼이게 되었다.

의병으로 싸우던 남편 정씨가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김씨는 수 십일을 남편의 시체를 찾아 헤메다 이윽고 시신을 찾아 통곡하면서 여러 날을 곁에서 떠나지 않았더니 시체가 가벼워져 수습, 향리 포동리로 운반 안장하였는데 훗날 열녀 김씨의 정문이 내려졌다.

특히 왜군의 이동 통로였던 황성군 공근면은 피해가 큰 격전지였으며 말구리재, 삼군이, 종달바위, 궁터, 독재봉 등 임진왜란과 관련된 지명이 붙어 구전되고 있다.

말구리재는 관군과 의병이 산 위에서 돌을 굴려 왜병과 말을 구비소에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를 주었다는 데서 유래되었고, 공근면 삼배리의 삼군이는 관군, 의병, 왜군이 싸웠다는 데서 유래되었으며, 관심산 밖 종달바위에는 날쌔 파수병을 배치하여 왜병이 쳐들어오면 날짐승의 소리를 내게하여 삼군이 계곡으로 유인 궁터의 요새에서 왜군의 후방을 차단 활을 쏘아 공격하였다는 이야

기들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 오고 있다. 독재봉은 이 지역 사람들의 피난처였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공근면 덕촌리 마을에 왜군이 진을 치자 우리 의병의 야간 선제공격에, 피를 흘리며 고개를 넘어 패주, 다음 고개에서는 의병의 공격에 막혀 때마침 장마비에 의한 강물의 범람으로 왜군은 크게 패했다고 한다.

이같은 연유로 왜군이 진을 쳤던 곳을 왜둔지, 왜군의 피로 물들인 고개를 붉은고개, 의병에 의해 왜군의 길이 막혔던 고개를 막힌고개라고 오늘날까지 불리워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구한말 우리나라를 또 다시 강점하면서 320여년전 패전의 쓰라린 상처가 있는 이곳 「왜둔지」가 한을 남긴 유한지(有恨地)라 하여 신사(神士)를 이 곳에 짓고 고개 숙여 참배하게 하였다고 하니 되풀이된 아픔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

(2) 구 한말 의병 투쟁

청일면 신대리 봉복사의 의병 유적지, 강림 의병총, 서원면 금대리 의병총, 강림면 월현리의 민공호 의병장 전적비가 말해주듯 황성에서의 의병 항쟁은 치열하였다. 강도영 의병장은 청일면 춘당고개에서 전사하였고 그의 아들 강만형 또한 4월 1일 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어 29세의 꽃다운 나이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우천면 문암리 한상렬 의병장은 모든 것을 바쳐 황성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지만 역부족으로 만주로 망명, 독립군 참모장으로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다.

우천면 법주리 최인순 의병장은 구한말 군인으로서 군대해산때 의병장이 되어 일본군을 대상으로 싸우다 순국하였다.

이처럼 황성에서는 의병항쟁이 격렬하였으며 많은 의병장들이 배출되었다. 이러한 뿌리를 바탕으로 10여년 후 황성의 3·1운동이 강원도의 진원지가 되었다.

(3) 횡성보통학교 학생의 항일운동

1919년 3월 18일로 졸업식 날짜가 정해진 횡성보통학교 4학년 6회 졸업생들은 졸업식이 끝난 직후 횡성군청 뒷산에 올라가 만세를 부르기로 결정하였으나 읍내 지도층 어른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후일 힘을 결집하여 도모하지는 조언을 듣고 결국 만세를 부르는 것은 실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지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나 학생들의 독단계획이 무산되는 것이 아쉬워 다시 몇차례 비밀 회의를 가진 끝에 '무언의 저항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고종황제의 승하를 슬퍼하는 표시로 3월 16일 부터 상장(喪章)을 달고 등교토록 결의함과 동시 전교생에게 연락하고 실행에 옮겼는데 학생들의 행동은 일사분란 하였다. 이로 인해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휴교령이 내려 학생들은 등교 정지 되었다. 이렇게 하여 3월 18일로 예정돼 있던 졸업식도 거행하지 못하고 정든 모교를 떠났다. 졸업장은 그 후에 각각 집으로 보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횡성읍에 대한 일본헌병의 감시활동이 일층 강화되었고 시장의 분위기는 삼엄하였다. 그리함에도 열 하루 후인 3월 27일 1차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지도자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더욱 강화된 삼엄한 감시활동이 계속되었지만 다음 장날인 4월 1일 더욱 대규모로 성난 파도처럼 만세운동이 벌어졌다. 이 때 졸업생들은 지도자들 뒤에서 연락 책임과 심부름을 한 것은 물론이다. 3, 4대 국회의원, 4대 치안국장, 7대 내무부장관을 지낸 6회 졸업생 장석윤은 1992년 11월 3일 발행한 횡성초등학교 개교 80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무언(無言)의 저항운동

90평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곳은 나의 어린시절 4년간 공부하던 모교이며 내 일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신 은사님을 존경

하고 잊지 못한다.

73년 전의 일이지만 어제일과 같이 생각한다. 1919년 3월 중순경으로 졸업 날 짜를 바라보고 있을 때 3·1운동이 서울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횡성에서도 천도교와 기독교인 그리고 유학자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하기로 은밀히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힘입어 우리 학생들도 이에 동참하기 위하여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 5~6명이 실행계획을 수차례 깊이있게 의논한 결과 졸업날인 3월 18일 졸업식 종료와 동시에 군청 뒷산에 나아가 만세를 부르기로 결정하고 세부계획을 숙의하던 중 읍내 지도층 어른들의 자문과 지도를 받기로 결의되어 약방을 경영하는 심용구씨와 김택수씨 그리고 청년대장의 책임을 지고 만세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윤태환씨에게 학생운동계획을 설명하였다. 이 분들이 감개무량해 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어린 학생들만으로서의 운동은 힘이 강력하게 미치지 못하여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 희생의 위험성이 많으므로 전군민들이 만세운동을 벌일 때 같이 합류하면 대의명분을 세울수 있다.’ 는 말씀과 함께 ‘학생들은 통신 연락 등의 역할을 맡아 달라’ 는 요청을 받았다.

우리 학생들은 지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니 학교의 명분과 학생들의 독단 행동계획이 무산되는 것이 아쉬워 다시 몇차례 비밀 모의를 가진 끝에 ‘무언의 저항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그 방법을 고종황제의 승하를 슬퍼하는 표시로 3월 16일부터상장을 달고 등교토록 결의함과 동시에 전교생에게 연락하고 실행에 옮겼다.

1919년 3월 16일!

학생들의 행동은 일사분란하였다. 일본인 중서(中西)교장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역하였고 헌병들이 긴장하여 감시활동이 강화되었으며 이를 기회로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휴교령을 내려 학생들은 등교 정지되었다.

3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던 졸업식도 거행하지 못하고 정든 모교를 떠났다. 졸

업장은 그 후에 각각 집으로 보내줘서 받았으나 졸업식 없는 졸업생이 된 것이 가슴 아프다. 나라잃은 민족의 구슬픈 사연을 어디에 호소하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횡성읍에 대한 일본헌병들의 감시활동이 일층 강화되었고 시장의 분위기는 삼엄하였다.

그후 약 10여일이 지나 횡성읍에서 장날을 기하여 전군민의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사전 비밀연락활동에 의하여 8개면에서 군민이 모여들어 ‘장보러 온척하다’ 갑자기 수백명 군중이 군청 뒷산으로 올라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횡성보통학교 학생들도 물론 합세했다.

이때 사상자가 나타남에따라 군중은 더욱 흥분되어 만세를 부르며 시장으로 내려와 시위를 격렬하게 한 후 스스로 해산했다. 이 때 시장은 전부 철시했고 사람들은 두문불출했으며 노변에는 헌병들만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우리 보통학교 학생들은 우리들이 벌린 상장패용무언항쟁운동(喪章佩用無言抗爭運動)을 시동으로 횡성 3·1만세운동이 펼쳐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당시의 지도자들 뒤에서 연락책임과 심부름을 해 올린 역할에 대하여 긍지와 기쁨을 느끼며 감탄을 금할 수 없다.

3. 횡성 3·1운동의 자취

(1) 만세운동 개요

가. 3월27일 만세운동

만세운동의 김새를 눈치챈 횡성 헌병분견소는 원주에 급히 연락하여 헌병 3, 보병 4명을 불러들여 그들대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군중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때 오후 1시경 장터에 태극기를 높이 세워둔 윤태환과 지도급 인사가 나타났고 신재근은 격식을 갖추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려고 했다. 그때 일본

헌병이 몰려왔고 300여명의 군중들은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렇게 되니 신재근, 장도훈, 안경춘, 강만형, 윤태환 등 지도급은 잡혀갔다. 3개월 정도의 형(刑)은 헌병분견 소장의 즉결심판 재량으로 태형²⁾이 가해졌기 때문에 3월27일 만세운동이 끝나고 얼마나 태형을 당하였는지는 기록의 부재로 알길이 없다.

당시 헌병분견소는 지금의 3·1공원 충혼탑 앞 광장 부근에 있었으므로 독립선언서를 장터에서 낭독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 낭독을 시작하는 순간 일본 헌병들이 몰려와 이날 만세운동은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사건으로 더욱 경계가 삼엄하였지만 최종하 등 남은 지도자들은 이 일을 거울삼아 다음 장날 만세운동을 더욱 철저히 계획하게 되었다.

3월 27일 검거된 주동급 애국지사

신재근(申在根) : 당시 64세로 황성 영영포리 441번지에 살았는데 황성천도교의 봉훈(奉訓)으로서 천도교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황성 3·1 운동에 큰 영향을미쳤다. (징역 2년, 2002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안경춘(安敬春) : 안승훈(安承勳)이라고도 하는데 당시 20세로서 안흥면 상안흥리 641번지(배나무골)에 살았다. 그는 장도훈과 김인경에게서 글을 배운 청년으로 8개월의 징역을 마친후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다가 1968년에 작고하였다. (징역 10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강만형(姜萬馨) : 당시 28세로서 원주 소초면 둔둔리 223번지에 살았다. 그는 구한말 의병으로 황성 청일면 춘당고개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한 강도영(姜道永)의 아들이라 반일 감정은 누구보다 강했다. 그러한 관계로 황성헌병분견

2) 태형 : 3개월 징역형 정도는 헌병분견소장(지금의 경찰서장)직권으로 매 100대를 때리는 즉결로 처리하기도 하였음.

소에서 심한 고문을 받아 병중에 8개월의 징역을 살다가 1920년 2월 28일 서대문 옥중에서 29세의 젊은 나이로 옥사하였다. (1991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윤태환(尹泰煥) : 당시 22세로 황성면 읍하리 68번지에 살았으며 황성 청년대장으로 3월 27일 제일 먼저 만세운동에 몸을 던졌다. (징역 6월)

나. 4월 1일 만세운동

3월 27일의 운동에서 지도급이 체포되어 헌병들에게 고문을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군민들은 더욱 분개하여 항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때에 아직도 배후에서 조종하던 황성 천도교 대교구장 최종하 등 지도자가 있어서 보다 조직적인 계획을 추진하였다. 남은 지도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4월 1일 장날 만세군중을 동원하기 위하여 밤낮 물을 건너고 산을 넘으며 활동하였다.

이리하여 4월 1일 멀고 가까운 곳에서 대목 장 같이 군중은 모여들었다. 당시 강원도 장관의 보고에 1천3백명으로 추산하니 이보다 훨씬 많은 만세군중이었을 것이다.

3월27일의 운동을 교훈으로 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 수천 군중을 동원하였다는 사실은 삼엄한 감시 속에도 얼마나 큰 열정을 쏟았는지 알 수 있다.

아침부터 모여들기 시작한 군중이 온 장터에 가득 찰 때까지 모두들 기다렸다. 점심 때가 지나도 군중은 갈 생각을 안하고 저녁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 군중은 총을 피하기 좋다는 생각에서 날이 저무는 저녁 때부터 시작하려고 했지만 헌병은 날이 저물면 무차별 총격을 가할 수 있는 잇점이 있었다.

낮에 만세 군중의 동향을 본 일제 헌병은 총을 쏘는 계획 등 조직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4시가 넘었을 때 군중은 집단을 형성하고 여기 저기 모였다. 누구의 입에서 먼저 나왔는지 대한독립만세! 조선독립만세! 천지를 진동하는 만세 소리가 연거푸 울려 퍼졌다.

이 때 군청 뒷산에 잠복해 있던 헌병이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군중의 움직임은 잠시 멈추었다. 그러나 분노와 울분에 찬 한이었기에 총소리에 멈출 수 없었다. 군중은 다시 일어났다. 황용구 술집에서 총소리에 놀라 둘러앉아 술이나 먹던 몇몇 남자들은 옥동에서 온 황소아줌마(김순이애국지사)가 소리치는 바람에 다시 뛰어나갔다. 이날 황소아줌마는 칼을 들고 다니며 운동을 재촉하였고 날은 점점 저물어 갔다.

순국한 애국지사

강달회(姜達會) : 강달회는 원주 소초면 둔둔리 출신으로 횡성 천도교를 다녔으며 당시 51세로 만세운동에 앞장섰다가 일본 헌병의 총탄에 맞아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하영현(河永賢) : 하영현은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 출신으로 1919년 3월27일 횡성만세운동을 이끈 강만형 애국지사가 일본 헌병에 체포되자 이에 격분하여 4월 1일 횡성만세운동을 벌이던 중 순국했다. (2014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전한국(全漢國) : 전한국은 횡성읍 읍하리에 살았으며 당시 수로공부(水路工夫)로 일하고 있었으며 앞장서 독립만세를 외치다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강성순³⁾(姜聖順 1893-1919) : 강성순은 횡성군 우천면 범주리 사람으로 일본 헌병의 총탄에 맞아 현장에서 순국하였다.(1977년 대통령표창 추서)

김치정(金治正) : 김치정은 갑천면 매일3리 잔골마을에서 한문서당을 마련해

3) 강성순 : 당초 강승문으로 잘못 조사된 것을 2017년 강성순으로 정정(박순업 고증), 이러한 오류에 의해 지금까지 대통령표창에 그침.

놓고 10여명의 문하생을 두고 한학을 가르치고 있었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유생이었다. 스스로 참가하는 수 많은 군민들이 횡성읍내 장터로 모여들때 김치정도 제자 신건수를 대동하고 횡성으로 와서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김치정은 무차별 난사하는 총탄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지만 잡히지 않으려고 그래도 현장에서 기어나와 그들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제자 신건수는 총소리에 놀라 어떻게 피신을 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잔골마을로 김치정의 사망소식이 전달되어 마을사람들에 의하여 몰래 운구 일경의 눈을 피해 장사를 지냈다.

김치정이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또 순국한 사실은 당시 일본 헌병이 두려워남들에게 숨겨야 했으며 그 업적이 세상에 알려지지않고 있다가 신건수의 증언에 의하여 밝혀졌지만 보훈의 대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김치정 처럼 충상을 입고 몰래 집에가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철저히 숨기고 비밀로 했기 때문에 알길이 없다.

수형(受刑) 애국지사

최종하(崔宗河1877~1922) : 횡성 영영포리 살던 사람으로 일찍이 천도교에 몸담아 횡성 대교구장으로 횡성 3·1운동을 이끈 분이다.(징역 6월)

김인경(金麟卿) : 횡성군 안흥면 상안흥리 사람으로 서당훈도였으며 안흥리 사람들을 동원하여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징역 8월)

추병륜(秋秉倫) : 원주 소초면 교항리 출신이며 당시 45세로 횡성천도교 교인으로 만세운동 연락 책임자로 활약하였다. (징역 6월)

정해경(鄭海璟) : 횡성군 횡성읍 내지리 사람으로 감리교인들을 이끌고 앞장서 만세를 부르며 시위하였다.(징역 1년 6월)

김성서(金聖西) : 영월군 양변면 주천리 살았으며 , 당시 68세의 천도교인으로 장사꾼을 가장하여 횡성군내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군중을 동원 만세운동을 추진하였다.(징역 1년6월)

김윤신(金允信) :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출신으로 3·1운동 때 장사꾼으로 가장하여 붓짐을 지고 물건을 파는척 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만세운동의 참여를 유도하고 격려하는 등의 활약을 하다가 만세운동에 앞장섰다.(징역 8월)

김윤배(金允培) : 횡성군 갑천면 매일리 출신으로 횡성천도교인이었다. 매일리 주민을 동원하고 솔선하여 만세를 불렀다.(징역 8월)

조상렬(趙常烈) : 횡성군 안흥면 하산전리 출신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크게 활약하였다.(징역 8월)

김연의(金演儀) : 횡성군 안흥면 가천리 출신이며 당시 21세의 천도교인으로 만세운동 주동자 중 한사람이다.(징역 6개월)

천선재(千善才) :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출신으로 영월군에서도 만세운동을 계획하였었다.(징역 1년)

이기순(李奇順) :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에 살고 있었으며 잡화상인으로 둔내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권유하였다.(징역 8월, 2012년 대통령표창 추서)

이유태(李裕泰) : 공근면 오산리에 살고 있던 사람으로 여러사람에게 만세운동을 권유하였다.(징역 8개월)

김순서(金順瑞) : 황성군 안흥면 상하가리 출신으로 4·1만세운동에 앞장서서 만세를 불렀다.(징역8월)

전성수(全聖洙 1886~1962) : 만세운동에 앞장섰다 체포되었다.(징역8월, 2013년 대통령표창추서)

황성 3·1운동과 관련 비(非)서훈(叙勳) 애국지사

윤동선 : (尹東先) : 윤동선은 황성 영영포리에 살고있었으며 당시 25세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총상으로 부상을 당하였다.

최양옥⁴⁾(催養玉) :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거목 최양옥지사는 황성군 갑천면 화전리 출신으로 당시 서울 중동중학교 학생으로 서울에서 3·1운동에 참여했다가 고향 황성으로 내려와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체포 압송도중 탈출, 국내·외에서 독립군 자금 모금 등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쳤다.

황성 3·1운동을 주도하였지만 곧 탈출하였기 때문에 재판기록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황성 3·1운동의 공적 기록은 없다.

최동수(崔東壽) : 황성 읍하리에 살던 청년회원으로 4·1만세운동에 참여하여 군중을 해산시키려던 고지마료(小島了) 헌병 상등병을 우천면 두곡리 김진대 노인과 함께 말에서 끌어내려 구타하고 탈출,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만주를 드나들었다.

김진대(金振大) : 우천면 두곡리 사람으로 일본헌병을 말에서 끌어내려 담뱃대로 때리며 호령하였다.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탈출 만주로 갔다.

4) 최양옥 : 황성 3·1운동 후 탈출하였으므로 황성만세운동에 대한 그의 증거자료가 없음.



독립운동 증언 (녹취: 1982년 박순업)

강원의 인물
7월
 활성 독립운동가
崔養玉

파강(파강)이라고 불리는 '구한말 노승의 인물'이다. 구한말에 국적이 기린년 1893년 12월 5일 강원도 횡성군 강천면 전촌리에서 4남 3녀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부친은 박문근(字:자사)이며 그는 독립운동에 뜻을 둔 박문근의 교육받은 장남이 1913년 4월 항구출신(출신)이다.
 1917년 출간(출간)하여 황진이 딸을 그 후 3월 서울 출생(출생)이다. 1919년 3월 1일(1일)에 임해(임해) 1919년 4월 23일(23일)에 황진이 딸(황진이 딸)을 알게 되었고, 그 후 1919년 4월 23일(23일)에 황진이 딸(황진이 딸)을 알게 되었다.
 1919년 4월 23일(23일)에 황진이 딸(황진이 딸)을 알게 되었다. 1919년 4월 23일(23일)에 황진이 딸(황진이 딸)을 알게 되었다.



1918년 8월경 강원도 횡성군 강천면 전촌리에서 촬영된 박문근(左)과 그의 아들 박순업(右)의 사진이다.

**1893년 활성 화전에서 태어나 30년간 독립 운동
 중국 국경 넘나들며 상해임시정부에 군자금 조달
 67 경찰서 습격·천마산전투등 대담한 투쟁 '유명'**

황진이 딸은 1893년 강원도 횡성군 강천면 전촌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박문근(字:자사)이며 그는 독립운동에 뜻을 둔 박문근의 교육받은 장남이 1913년 4월 항구출신(출신)이다.
 1917년 출간(출간)하여 황진이 딸을 그 후 3월 서울 출생(출생)이다. 1919년 3월 1일(1일)에 임해(임해) 1919년 4월 23일(23일)에 황진이 딸(황진이 딸)을 알게 되었고, 그 후 1919년 4월 23일(23일)에 황진이 딸(황진이 딸)을 알게 되었다.

그 후 1919년 4월 23일(23일)에 황진이 딸(황진이 딸)을 알게 되었다. 1919년 4월 23일(23일)에 황진이 딸(황진이 딸)을 알게 되었다.



1919년 4월 23일(23일)에 황진이 딸(황진이 딸)을 알게 되었다.



1919년 4월 23일(23일)에 황진이 딸(황진이 딸)을 알게 되었다.

1919년 4월 23일(23일)에 황진이 딸(황진이 딸)을 알게 되었다. 1919년 4월 23일(23일)에 황진이 딸(황진이 딸)을 알게 되었다.

그 후 1919년 4월 23일(23일)에 황진이 딸(황진이 딸)을 알게 되었다. 1919년 4월 23일(23일)에 황진이 딸(황진이 딸)을 알게 되었다.



박순업 (출신:파강)

**강천면 전촌리에서 80년대 초 부모님 묘소 돌보던 독립운동의 거장 최양욱
 김명기(金明起) : 김진대의 아들로서 만세운동 추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일본 헌병을 피하고 독립운동을 계속하고자 만주로 망명하였다.**

탁영재(卓英才) : 횡성감리교인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탈출, 항일비밀결사 철원애국단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1995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위창래(魏昌來) : 당시 횡성 영영포리 구장이었다. 그는 당시 많은 친일 구장과는 달리 이 마을에서 있었던 3·1만세운동의 계획·추진의 비밀을 일본 헌병들로부터 발각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며 만세운동의 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정두철(鄭斗澈) : 횡성 읍하리 출신으로 만세운동의 선봉에서서 독립만세를 가장 먼저 외치며 만세운동의 참여를 호소하였다.

조흥열(趙興烈) : 횡성 읍하리에서 쌀 가게를 하고 있던 그는 쌀 가게를 수리하려고 준비하였던 서까래 등 목재를 군중들에게 나누어주며 만세운동을 독려하고 선봉에서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김순이(金順伊) : 1878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20세가 되던 1898년 10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박영화와 결혼 횡성에서 살았다. 30대에 남편과 사별 남매를 키우면서 한치고개에서 주막을 채려 생계를 꾸려갔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어 황소아줌마로 불렸다. 자신이 운영하는 주막을 독립투사의 모의 장소로, 또 푼푼이 모은 돈을 독립운동자금으로 제공하였으며 만세운동 당일에는 군중들을 규합 앞장서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윤석환(尹錫煥) : 윤태환의 형으로 횡성 읍하리에 살았으며 배후에서 횡성 3·1운동을 지도, 지원하였다.

이동구(李東九) : 횡성군 공근면 매곡리에 살았으며 만세운동 당시 태극기를 만들어 돌리며 공근면민의 참여를 독려했고 면민들과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채일(李案一) : 횡성 천도교 출신으로 서울 천도교 본부에 근무하면서 횡성 3·1운동에 독립선언서 알선 등의 지원을 하였고 서울의 만세운동 정보를 제공하였다.

횡성의 4·1만세운동은 참여인원 1300명의 일제의 보고자료에 보듯이 많은 사람이 삶의 파탄에 이르는 희생을 무릅쓰고 앞장섰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치열했다. 만세운동 당일에는 무차별 사격으로 즉사한 사람, 중상자, 경상자, 피체된 사람, 탈출한 사람, 고문을 받은 사람, 태형에 처해지는 사람 이수라장이었다.

총에 맞아 순국한 사람,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사람은 일제의 기록, 재판기록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독립운동 애국지사로 인정받았지만 태형을 받은 수많은 사람, 탈출하여 외국으로 망명한 사람, 몸을 숨겼던 사람은 그들의 기록에서 빠져 크나큰 공헌에도 불구하고 서훈에 빠져있으며 새로운 증거 제시로 애국지사로 부각되기에는 세월이 너무 흘러 증거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여기 열 세분을 비 서훈자로 소개하였지만 이 또한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다. 4월 2일 운동

어제 장날 밤까지 만세운동을 벌였던 군중은 잡혀가기도하고 횡성 장터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날이새자 2일에는 200여명의 군중이 잡혀간 사람을 풀어달라는 시위를 벌였으나 대대적인 만세운동으로 번지지 않았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군중 대부분은 장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날부터 상점 문을 열지않기로 하고 모두 폐쇄하였다. 군수와 분견소장의 간청에 의하여 7일에 가

서 문을 열었으니 이것은 일본 압제에 대한 무언의 항쟁이었다.

라. 4월 12일 분일리 운동

만세운동 분위기가 군내 마을로 번져 서원면 분일리 지금의 매호리에서도 마을돌이를 하면서 밤새도록 만세를 불렀다, 이로 인해 여덟명이 모진 옥살이를 하였다.

4. 황성 3·1운동 동선

3월27일 만세운동은 황성장터(지금의 재래시장)에서 이루어졌으며 4월1일 만세운동은 황성장터에서 시작하여 오후에는 황성군청쪽으로 옮겨갔다.





헌병분견소 터, 3·1공원, 순국한 지점, 황성군의회 표시

오전에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만세운동은 점심때가 지나서 소강상태가 되었다. 일본 헌병의 탄압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군중들은 군청 뒷편⁵⁾을 응시하였다. 그곳은 일본 헌병 본거지(헌병분견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군청은 친일파 군수가 있는 곳이다. 만세 시위 군중은 장터에서 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군청부근까지 가서 만세를 부르는 동안에 날은 저물기 시작하였다. 군중들은 생각하였을 것이다. 날이 어두우면 잘 보이지 않아 일본헌병의 저지가 힘들 것이고 그러면 헌병분견소 부근까지 가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칠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일본 헌병은 어두우면 무차별 사격하기가 좋을 것이라 상반된 생각을 했을 것이다.

군중들은 만세를 부르며 헌병분견소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일본 헌병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현 황성군의회 위쪽 느티나무 밑에는 총탄에

5) 군청 뒷편 : 헌병분견소가 있는 군청 뒤에서 만세운동이 거세게 전개되었으므로 1971년 초 부터 이 부근을 3·1공원이라 불렀음.

맞아 즉사한 사람, 총상을 입어 피투성이가 된 사람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검거열풍이 몰아닥쳤다.



박순기씨 반곡리(녹취:1983년 박순업)

일부 시체는 면사무소⁶⁾ (횡성정형외과 아래 소망약국자리) 마당에 옮겨져 밤새 도록 방치되었었는데 당시 횡성면서기로 당직을 섰던 박순기씨가 다음날 아침 광목을 사서 처리하였으며, 피는 땅 속까지 스며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만세운동 모의장소

횡성 옥동과 갑천 구방과의 경계인 옥동리, 한적한 김순이 여사 주막에서 만세운동 계획이 논의 되기도 하였으며 여사는 4월1일 앞장서 만세운동을 지휘하였다.



김순이여사 주막터, 한치고개, 횡성과 갑천 경계 / 일본 헌병의 무차별 사격

6) 당시 횡성면사무소 위치 증언(박희구)

황성 3·1운동과 가족의 수난

둔둔리 출신 강도영 의병장은 청일면 춘당고개에서 전사하였으며 그의 아들 강만형은 3월 27일 만세를 부르다 붙들려 고문당한 휴유증으로 고생하며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다 29세의 꽃다운 나이에 순국하였다. 한편 강도영의 막내삼촌 강달회는 4월1일 총탄에 맞아 순국하였다.

우천면 두곡리 살던 김진대, 김명기 부자는 4월 1일 앞장서 만세를 부르다 검거직전 탈출 만주로 망명 독립운동의 가시밭길을 걸었다.

탁영재는 황성감리교인으로 3월27일 만세운동에 앞장섰다. 탈출, 항일비밀결사 철원애국단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1920년초 발각됨으로서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다. 그의 동생(탁연복씨 부친) 또한 장날 형을 따라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관공소와 시내를 돌며 시위에 참가 하였다. 4촌 탁영의는 광복군으로 활동하였다. 탁연복씨 모친은 10대시절 양평 용머리에서 전 남편과 함께 치열하게 항일운동을 하다 남편은 총검에 찔려 즉사하고 자신은 시모와 함께 미류나무에 거꾸로 매달리는 고초를 겪었는데 아들 탁연복씨의 증언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어릴 때부터 선친께서 당신의 지난날 산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서 민족정신을 뿌리깊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 큰아버지 탁영재 장로께서는 기미년 3·1운동 때 감리교회 교인을 주축으로 시위를 주도하셨고 그 후 철원애국단에 가담하여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활동을 전개하시다 붙잡혀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신 독립투사요 독립운동가였다.

선친으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큰아버지가 권총을 휴대하고 상해임시정부로 잠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왜경들이 큰아버지댁에 들이닥쳐 천장과 벽장 등을 살살이 뒤져 찾으려 했으나 (뒤뜰 석류나무 밑에 묻어 두었다고 함) 권

총을 발견하지 못한채 왜경은 그냥 철수하였다고 한다.

5촌되는 탁영의 아저씨는 장준하선생과 같이 김구선생 밑에서 광복군으로 활약하셨고 선친께서도 횡성장날인 시장통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큰아버지를 따라 관공서와 시내를 돌며 시위에 참가하셨다.

나의 어머니 박성준은 평안남도 박촌 출신으로 경기도 양평군 용머리에 이사 와 살면서 19세 권씨와 함께 동네마을 뒷동산의 상여 보관하는 곳집을 모이는 장소로 하고 곳집에 감추어 두었던 태극기를 동네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대한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하다가 권씨는 왜경 총에 맞아 시위현장에서 쓰러져 사망(용머리 주동 인물) 하였고 어머니는 도망치다가 왜경에게 붙잡혀 미류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못매를 당했다고 한다.“

만세운동을 주동한(양평 용머리) 남편 권씨는 왜경이 칼로 찔러 살해하고 박성준 자신은 만삭의 몸으로 시모와 함께 미류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훗날 후유증으로 고생하였다고 증언함. 시부모의 간곡한 재가 권유로 탁씨가문으로 재가 하게 됨. (녹취 : 1983년 박순업)



증언하시던 박성준 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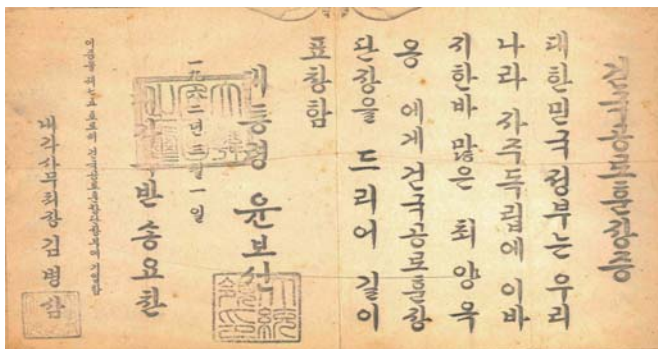
횡성청년대장이었던 윤태환은 3월27일 군중앞에서 큰 태극기를 높이 치켜들고 흔들며 만세운동에 앞장서다 옥고를치렀으며 그의 형 윤석환은 배후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애국지사 윤태환



윤태환의 딸 윤신자 증언 (녹취:1983년 박순업)



(왼쪽사진) 최양옥애국지사는 1962년 도내에서가장 높은 훈격의 훈장을 받았다.

최양옥은 4·1횡성군민 만세운동 후 상안흥리 처가로 가서 처남 안경춘의 체포 소식을 전하고 피신했다 일경에 체포되어, 압송도중 탈출 독립군 자금 모금 등 국·내외에서 평생 독립운동에 몸바쳤다. 횡성 3·1운동에 큰 기여를 했음에도 재판기록문 등 부재로 알려지지 않았었다.

5. 마치며

횡성지방은 임진왜란 때 부터 구한말 격동기, 일본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압박에 시달려 반일감정이 커 갔다. 그러다 1919년 3월27일 첫 만세 운동을 시작으로 다음장날인 4월 1일에는 대규모 만세운동을 정점으로 횡성군민의 3·1

정신과 민족정신을 드높였다.

이 과정에서 일제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과 목숨까지 빼앗겼으며 개인의 삶과 가정이 파탄과 파멸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황성의 애국지사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맨주먹으로 악조건에서 투쟁하였다. 이에 황성에는 수 많은 애국지사들이 역사의 인물로 존재하고 있다. 삼일공원, 만세공원, 삼일광장, 삼일로 등 지명이 말하듯이 황성의 3·1운동은 어느 지역 보다도 치열하였으므로 황성을 애국의 고장이라 불렀다.

이러한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행적이 묻히고 인멸되어 후세들에게 잊혀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황성군민 4·1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를 조명 역사의 교훈에서 지표를 찾아야 하겠으며 다시는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애국지사의 혼과 정신이 후세의 가슴과 가슴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황성 3·1운동에 대하여 몇자 모아 보았다.

「3.1운동은 1949년 3월1일 서울에서 시작되어 4월까지 전국 각 지역으로 퍼져 나갔는데 이 기간의 만세운동을 모두 3.1운동이라 한다.

예) 황성장터 : 4월1일, 아오내장터 : 4월1일」

참고문헌

1. 황성과 3·1운동 1972. 9.10 조동걸 저, 정호일 발행
2. 황성민족운동사 2004. 9.10 강대덕 외 2명 저, 황성문화원 발행
3. 황성인 최양옥의 독립을 위한 몸부림 2016. 12.30 김동정 저, 황성문화원 발행
4. 황성 3·1운동 주도인물재조명 2017. 12.28 김동정 저, 황성문화원 발행

橫城의 禁山·封山과 柴場에 관한 小考



진연호 (陳演鎬)

I. 서론

조선시대에는 개국과 더불어 고려말 권문세족의 농장 확대로 국유지가 침식되고 국가재정의 궁핍이 심화되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하였으며, 특히 산림에 대하여도 특정용도의 산림지를 보호하고 안정된 임산물의 확보를 위하여 금산(禁山)제도를 운용하였다.

고려시대 관리에게 그 지위에 따라 전토(田土)와 땃감 등의 조달을 위해 시지(柴地)의 수조권(收租權)을 주던 전시과(田柴科) 제도에 대하여 조선시대에는 ‘山林川澤 與民共之’의 산림에 대한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양반관료 뿐만 아니라 왕실의 산림 점유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산림과 하천, 바다는 온 백성이 그 이익을 나누어 갖는다’는 이념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산림을 국가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따로 금산(禁山)을 정하여 운영하였고 금표(禁標)를 세워 그 경계를 구분하였다.

처음에는 도성의 경관, 기맥의 보호, 하천의 사태방지 등을 위해 도성 내외의 백악산, 남산, 인왕산, 타락산에 대하여 ‘도성내외 사산금산(都城內外 四山禁山)’을 지정했으며,

다음으로는 수요가 급증하는 궁성, 공공기관의 건물, 민가 건물, 병선(兵船), 조선(造船) 등에 필요한 목재의 공급을 위하여 소나무에 대한 사사로운 벌채를

금하는 송목금벌(松木禁伐)제도를 시행하여 강가, 바닷가, 섬 등 수운(水運)이 용이한 곳을 중심으로 ‘宜松之地’를 정하였다.

이러한 산림정책은 조선후기에 들어 왜란·호란의 전란을 거치며 사점(私占)과 독점(獨占)이 성행하게 되고, 산림이 땔감, 가축사료, 목재 등 주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자재의 공급처였던 이유로 황폐해 졌으며, 또한 인구증가와 상품경제의 발달에 따른 산림의 개간 등으로 그 면적도 감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후기에는 공공 목재의 고갈을 막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지정하였던 금산을 다양한 목재 수요에 따라 용도와 수종별로 황장봉산(黃腸封山), 울목봉산(栗木封山), 진목봉산(眞木封山), 선재봉산(船材封山) 등을 지정하고, 이를 지역민들로 하여금 금양(禁養)하도록 금산을 대체한 봉산(封山)을 전국적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주요 공공 목재 관리를 위한 금산과 봉산과 더불어 각 관서에서 필요한 땔감 등을 조달하기 위해 지정된 삼림지역인 시지(柴地)를 나누어 주어 자급하도록 하였는데, 초기에는 각 관청별로 규모에 따라, 주위 5리에서 20리까지의 시장을 지정하였으나, 이것도 조선후기에는 국가재정과 탄으로 각 관서 마다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의 광점(廣占)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산림정책의 개괄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과거 강무장금산(講武場禁山), 황장봉산(黃腸封山)과 내수사시장(內需司柴場)에 대하여 그 기록을 찾아 정리하고, 그 지역과 범위는 어떠하였는지, 그 기능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려한다.

II. 본 론

1. 조선시대 禁山과 封山

금산(禁山)은 삼림을 보호하거나 일정한 용도의 목재를 확보하기 위해 목재의 채취를 금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봉산(封山)은 금산과 같이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나아가 재식(栽植)과 육성(育成)하여 금양(禁養¹⁾) 된 곳이라 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금산은 조선전기부터 정조대까지 주로 사용되었고, 봉산은 숙종대 이후부터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는 조선후기에 이르러서 금산 정책을 보완하고 임란·호란의 양란을 겪은 이후 목재의 수요 증가, 산림의 사점(私占)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임업정책의 필요가 반영된 것이라 보인다.

조선전기 금산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목재를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그 구역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불명확하여 일반 백성과 마찰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으며, 백성에게 산림이용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금산 이외의 산에서는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것임으로 얼마 가지 않아 증가한 목재의 수요로 금산의 산림은 황폐되게 되었으며, 금산 이외의 산림마저도 사점이 확대되게 되었다.

처음 백성의 산림이용을 제한하기 시작한 금산은 도성 내외의 사산(四山)이었다. 이는 서울의 경관을 유지하고, 기맥(氣脈)을 보호하며, 사태의 방지 등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인다.²⁾ 여러 연구 결과 지금까지 한양 도성의 사산은 지금의

1) 금양(禁養) :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하여 가꿈.

2) 정구옥, <조선시대 都城의 松政>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7)

북악산, 남산, 인왕산, 남산이었을 것이다.

사산 금산에 대한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보면, 태종11년 6월에 남산 기슭의 집을 철거하고 채마전(菜麻田)을 금하였다³⁾는 기록과 남산 등지의 승도(僧徒)들의 초막을 철거시킨 기록⁴⁾이 있다.

또 태종17년 4월에는 금산의 소나무에 벌레가 먹었다.⁵⁾는 기록이 있고, 태종 18년 4월에는 금산의 송충이를 잡았다는 기록⁶⁾이 있다. 태종17년 11월에는 일찍이 태조(太祖)의 잠저(潛邸)에서 시종하였고 제릉(齊陵)의 땅을 잡는 여러 일을 주장(主掌)하였던 유한우(劉旱雨)가 금산 내의 소나무를 베어 사사로이 쓴 일이 발각되어 3일 동안 가두었다 석방하였다는 기록⁷⁾과 세종대에 와서는 금산의 소나무를 베 자에 대한 처벌을 논하는 기록⁸⁾이 있는데,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조선전기부터 금산정책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수 있다.

도성 내외의 산에 대한 금산의 운영만으로는 목재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지자 점차 목재의 운반이 손쉬운 한강 주변의 경기도 지역과 인근 바닷가 지역 등으로 금산을 확대하였다. 세종 6년의 기록을 보면, 이미 해마다 배를 건조해서 물과 가까운 지방의 송목이 거의 고갈 되게 됨에 따라 송목을 양성하는 기술과 변선을 수호(守護)하는 방법을 상세히 갖추도록 하고,⁹⁾ 경기도 지역에 몇몇 지역을 재목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산으로 운영했으며, 세종 30년(1448)에는 연해지역의 소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을 ‘의송지지(宜松之地)’로 광범하게 지정¹⁰⁾

3) 「太宗實錄」21권, 태종11년(1411) 6월2일. 禁城中菜麻田, 聽人造家 召判漢城府事李貴齡曰: "南山之麓, 臨壓宮闕之家, 皆令破之。且京城地窄, 宜禁菜麻田"

4) 「太宗實錄」제21권, 태종11년(1411) 6월9일. 兵曹請毀僧徒草幕 啓曰: "懶惰僧徒不居有名寺社, 規免役事, 於南山'安巖'沙乙閑等處, 搆幕設齋, 聚男女伐松木雜木, 至掘木根 請將草幕, 悉令破取; 淨業院外, 禁山內尼僧房, 亦令破取" 從之

5) 「太宗實錄」33권, 태종17년(1417) 4월28일. 蟲食禁山松葉

6) 「太宗實錄」35권, 태종18년(1418) 4월13일. 捕禁山松蟲

7) 「太宗實錄」34권, 태종17년(1417) 11월23일. 甲戌/囚劉旱雨於義禁府 旱雨曾侍從於太祖潛邸, 又於齊陵卜地諸事皆主之, 上命居陵室近處, 兼糾察陵寢之事 至是, 斫取禁山內松木私用, 事覺 憲司以聞, 囚三日乃釋之

8) 「世宗實錄」18권, 세종4년(1422) 윤12월22일. 兵曹啓: "禁山松木剪伐者難禁 謹稽律文, 棄毀器物稼穡條云: '毀伐樹木稼穡者, 準竊盜論' 自今剪松枝者, 依前例, 以違令論, 其伐如椽木以上全株者, 考其家長知情與否, 論以此律" 從之

9) 「世宗實錄」24권, 세종6년(1424) 4월 17일. 傳旨于兵曹: "兵船國家禦寇之器, 其用最重, 其材須用松木 自庚寅以後, 連年造船, 近水之地, 松木殆盡 又因田獵之徒縱火燒焚, 不得成長, 將來可慮 各浦兵船主守之人, 不謹守護, 不數年間, 以致朽破, 隨復改造, 非獨材木難繼, 水軍益致困苦, 予甚慮焉 其松木養成之術 兵船守護之法, 詳具以聞"

10) 「世宗實錄」121권, 세종30년(1448) 8월 27일. 庚辰/議政府據兵曹呈申: "兵船, 國家禦寇之器, 造船松木, 使不得私自斫伐, 已曾立法, 無識之徒, 潛相斫伐, 或造私船, 或爲屋材, 松木殆盡, 實爲可慮 今以沿海州縣諸島各申宜松之地, 訪問置簿"

하는 등 조선 전기 산림 재목의 고갈은 급속히 진행되었다.

조선초기에는 각 처의 금산은 국방과 행정 등 목적으로 보존하는 관방금산(關防禁山), 가장 중요한 송목의 확보를 위한 연해금산(沿海禁山), 임금과 왕후의 포의를 매장한 곳의 태봉금산(胎封禁山) 등이 있었고, 이밖에도 강무장(講武場)과 시장(柴場) 등도 금산으로 관리되었다. 금산은 전국에 수백 곳에 달하고 그 정확한 위치와 범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단지 발견되고 있는 금표(禁標) 등으로 단편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그마저도 주로 발견되는 것은 황장금표이다.¹¹⁾



원주 치악산 제1 금표



원주(현,영월) 두산리 금표



원주(현,영월) 법흥리 사자산 금표



인제 북면 한계리 황장금표

금표는 주로 그 경계의 초입에 자연석 등에 새겼는데, 원주시 학곡리 치악산의 금표와 원주(현,영월)두산리 금표, 원주(현,영월) 사자산 금표, 인제 한계리 금표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산림청에서 자원 조사 사업 등으로 도처에서 속속 금표가 발견되어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되고 있으나, 애석하게도 황성 덕고산

11) 전영우, <조선시대의 산림 보호정책, 금표와 봉표>

황장봉산(德高山黃腸封山)의 금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이 있다.

초기에 금산은 백성에게 산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금산 이외에서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한다는 상대적 의미가 있었으나 점차 산림자원의 부족해짐에 따라 국가 기관이나 궁방이 백성의 산림까지 이용이 확대되게 되어 백성의 불만이 가중되고 논박이 심했다.

이러한 산림정책은 조선 후기에 들어 왜란·호란의 전란을 거치며 사점(私占)과 독점(獨占)이 성행하게 되고, 산림이 땔감, 가축사료, 목재 등 주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자재 공급처였던 이유로 산림의 황폐는 가중 되었으며, 또한 인구 증가와 상품경제의 발달에 따른 산림의 개간 등이 늘어남에 따라 그 면적도 감소하게 되었다.

조선후기에는 공공 목재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운영하던 금산을 다양한 목재 수요에 따라 용도와 수종별로 황장봉산(黃腸封山), 울목봉산(栗木封山), 진목봉산(眞木封山), 선재봉산(船材封山), 향탄봉산(香炭封山), 삼산봉산(蔘山封山) 등을 지정하고, 이를 지역민들로 하여금 금양(禁養)하도록 금산을 대체한 봉산(封山)을 전국적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이와 더불어 땔감의 소비가 많은 관서에 직접 시장(柴場)을 할 급하였는데, 봉상시(奉常寺: 宗廟, 祭享의 업무 관청), 상의원(尙衣院: 궁내 의복과 재화 등을 관리 관청), 사복시(司僕寺: 輿馬廄牧 및 牧場에 관한 관청), 군기시(軍器寺: 兵器 제조 관청), 예빈시(禮賓寺: 宴享과 종실 및 재신에 대한 물자 조달 관청), 내수사(內需司: 왕실 재정관리 관청)의 시장은 다 같이 20리(里)의 둘레, 내자시(內資寺: 궁중 食品과 織造, 內宴등을 맡은 관청), 내섬시(內贍寺: 궁과 각 殿에 대한 술과 안주 등의 일을 맡은 관청), 사재감(司宰監: 魚梁과 山澤의 일을 맡은 관청), 선공감(繕工監: 土木과 營繕의 일을 맡은 관청), 소격서(昭格署: 道敎의 보존과 의식을 맡은 관청), 전생서(典牲署: 궁중 祭享과 賓

禮, 賜與에 쓸 가축을 담당하는 관청), 사축서(司畜署: 雜畜을 기르는 관청)는 다 같이 15리의 둘레이며, 사포서(司圃署: 왕실 園圃와 채소재배 관청)는 5리였다.¹²⁾ 그러나 각 관서는 이 규정을 훨씬 넘어 1,2식(息)¹³⁾에 이르게 되었으며¹⁴⁾, 뒤에는 성균관(成均館)에도 20리의 시장을 할급하였다.¹⁵⁾

앞에서 조선시대 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사실 금산(禁山)은 주로 조선 전기에 봉산(封山)은 주로 조선 후기에 주로 사용되나 그 명칭 등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는 모두 금산으로 인식되었다.

2. 횡성의 禁山

1) 횡성의 講武場 禁山

횡성은 조선초기 태종대부터 세종대에 이르는 30여년 이상 매년 봄철 또는 가을철 강무장으로 운영되었다.

강무(講武)란 조선시대에 국왕의 친림(親臨) 아래 거행된 군사훈련을 겸한 수렵대회로 이를 위하여 강무장에 대하여는 전부터 거주하던 사람과 이미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 이외에, 오는 사람이나 및 새로 개간하거나, 나무를 베거나, 사냥하는 등 일은 일체 금하도록 하였다.¹⁶⁾

12) 『經國大典』, 工典, 柴場. '用柴諸司, 於水邊給柴場' 奉常寺·尙衣院·司僕寺·軍器寺·禮賓寺·內需司, 竝周圍二十里, 內資寺·內贍寺·司宰監·繕工監·昭格署·典牲署·司畜署, 竝十五里, 司圃署, 五里'

13) 필자주, 1식(息)은 30리

14) 『中宗實錄』, 98권, 중종37년(1542) 4월5일. " 連源曰: "居館儒生炊飯柴木, 貧寒奴子, 不能自備' 各司廣占柴場, 或至一二息' 如此處, 推移給之何如" 上曰: "可"

15) 『大典後續錄』, 工典, 柴場. '成均館柴場, 以軍器寺柴場里數外, 自楊根南面淵陽里, 至驪州·廣州地境, 周圍二十里, 立標割給'

16) 『世宗實錄』, 7권, 세종2년(1420) 2월22일.. 講武場, 京畿廣州' 楊根等處爲一所, 鐵原' 安峽等處爲一所, 江原道平康' 伊川' 等處爲一所, 橫城' 珍寶等處爲一所' 如是定所, 其標內在 前居住人及已起耕田外, 新到人及新墾' 伐木' 私獵等事一禁

태종실록을 중심으로 횡성의 강무장에 대한 금산기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근(楊根)·지평(砥平)·횡천(橫川) 등지에 사렵(私獵)을 금지하라”¹⁷⁾ “양근(楊根)·원주(原州)·횡천(橫川) 등지에 사렵(私獵)하는 것을 금지하라”¹⁸⁾ “횡천(橫川) 등지의 사렵(私獵)을 금지하라”¹⁹⁾ “경기 및 강원도 관찰사에게 전지(傳旨)하기를, 지금부터 사렵(私獵)을 금하는 곳에 상수리 열매 줍는 사람까지 금하지 말라.”²⁰⁾ “횡성(橫城)의 화동(禾洞)과 선암(扇巖) 등지에서 밭을 개간하고 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하게 하였다”²¹⁾는 기록이 있고,

세종실록에는 강릉부 유학(幼學) 최진현(崔進賢)이 횡성과 진부 일대의 강무장 금산으로 인해 산짐승이 늘어 가축을 해치고 새들이 곡식을 해하는 피해가 심하고 특히 개간을 금지하여 인민들 태반이 흩어져 옮겨가는 현상이 다른 지역 보다 심하다는 폐해를 상서(上書)하였는데 왕이 답하지 아니하였다²²⁾ 는 기록으로 보아 강무장 금산으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문종1년(1451)년 8월7일, 사헌부 지평(持平) 문여량(文汝良)도 횡성 백성 1백 명이 사헌부에 장고(狀告)를 들어 흉년으로 유망한 자가 많은데 원유(園囿)가 남북으로 수십리에 뻗어 인민들이 겨우 손바닥만한 전지를 경작하고 이도 모두 못짐승의 침해로 감손(減損)되는데 이는 강무장에 제거할 만한 곳이 있는데 제거하지 않은 폐단은 없는지 살필 것과 이들에 대한 공부를 면해 줄 것을 청한 기록²³⁾이 있고, 또 같은 해 11월25일에도 집현전 교리(校理) 양성지(梁誠之)가 강무장에 금수(禽獸)가 번성하여 화곡(禾穀)을 해치니 주민의 태반이 유리(流離)하거나 유망(流亡)하고, 특히 강원감사 김흔지(金愰之)가 횡성현에 이르러

17) 「太宗實錄」26권, 태종13년(1413) 10월 10일. 命禁楊根·砥平·橫川等處私獵

18) 「太宗實錄」26권, 태종13년(1413) 11월6일. 命禁楊根·原州·橫川等處私獵

19) 「太宗實錄」27권, 태종14년(1414) 1월24일. 命禁橫川等處私獵

20) 「太宗實錄」30권, 태종15년(1415) 8월25일. 又傳旨京畿及江原道都觀察使曰: “自今私獵禁處, 毋竝禁拾橡實之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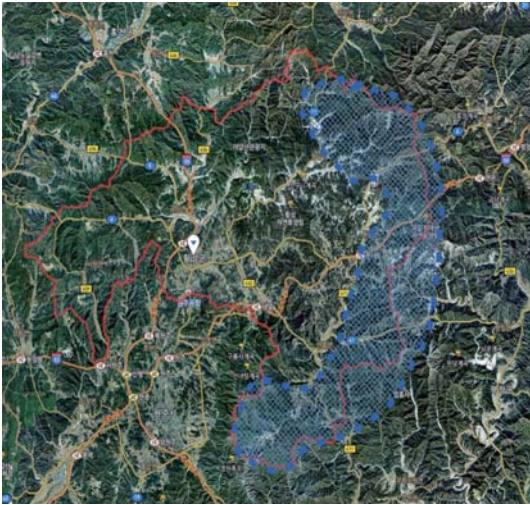
21) 「太宗實錄」31권, 태종16년(1416) 3월9일. 禁橫城·禾洞·扇巖等處墾田伐木 傳旨江原道都觀察使曰: “講武場內居人, 及時移接, 若節晚, 難於移徙者, 令姑存之

22) 「世宗實錄」123권, 세종31년(1449) 2월9일 기사.

23) 「文宗實錄」9권, 문종1년(1451) 8월7일 기사.

곡성(哭聲)을 듣고 연유를 물으니 백성의 밭이 단지 1결(結)이 있는데 화곡이 익을 즈음 노루와 사슴의 피해로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으니 공부를 과하라 청하기도 하였다.²⁴⁾ 는 기록들로 보아, 황성지역의 강무장 금산으로 인하여 그 폐해는 실로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과연 황성의 강무장은 어디였는지를 추정해 보면,



황성 강무장에 대한 범위(추정)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년 강무시마다 어가(御駕)가 주로 화동, 실미원, 각림사, 사기소 등에서 유숙한 기록과 강무가 단순한 국왕이 참여하는 사냥 행위 뿐만 아니라 대군·왕자·무관 등이 참석하고, 병조에서 군사를 동원하고 물이하는 기병이 출동하는 등 일정한 명령체계를 유지하며 군사훈련을 하는 성격으로,

강무장 지역에는 계속해서 짐승의 수효를 유지하고 벌목과 개간을 금지하여 관리하여야 함을 볼 때, 황성 강무장의 범위는 비교적 넓었을 것이며 지금의 황성군 둔내면과 안흥면, 강림면 지역에 이르는 광범위한 산록지역이었다고 추정된다.

17) 『太宗實錄』, 26권, 태종13년(1413) 10월 10일. 命禁楊根 砥平 橫川等處私獵

18) 『太宗實錄』, 26권, 태종13년(1413) 11월6일. 命禁楊根 原州 橫川等處私獵

19) 『太宗實錄』, 27권, 태종14년(1414) 1월24일. 命禁橫川等處私獵

20) 『太宗實錄』, 30권, 태종15년(1415) 8월25일. 又傳旨京畿及江原道都觀察使曰: "自今私獵禁處, 毋竝禁拾橡實之人

21) 『太宗實錄』, 31권, 태종16년(1416) 3월9일. 禁橫城 禾洞 扇巖等處墾田伐木 傳旨江原道都觀察使曰: "講武場內居人, 及時移接, 若節晚, 難於移徙者, 令姑存之

22) 『世宗實錄』, 123권, 세종31년(1449) 2월9일 기사.

23) 『文宗實錄』, 9권, 문종1년(1451) 8월7일 기사.

24) 『文宗實錄』, 10권, 문종1년(1451) 11월25일 기사.

그리고 그 광범위한 산록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금산정책으로 산림자원 이용이 제약되고, 늘어난 짐승으로 인한 농업의 피해가 발생하며, 늘어나는 인구와 사회경제의 발전 상황에서 개간의 금지로 인한 경작지의 부족 등으로 백성의 경제적 피해는 심각하였다고 짐작된다.

2) 횡성의 黃腸封山

황장금산(黃腸禁山) 또는 황장봉산(黃腸封山)은 황장목을 생산하던 황장산을 말하며, 조선시대에는 소나무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컸으며, 그 중 특히 몸통 속 부분이 누런 색을 띠고 재질이 좋은 소나무인 황장목은 관곽재(棺槨材)나 궁궐 건축시 매우 우수한 목재임으로 황장목의 원활한 조달과 백성에 의한 도벌을 막기 위하여 황장산을 지정하고 금표(禁標)를 세워 관리하였다.

시기에 따라 황장봉산은 변동이 있겠으나, 「大典通編」의 기록을 보면, “각 도(道)의 황장목(黃腸木)을 기르기 위해 출입을 금지시킨 황장산(黃腸山) 등의 곳에 경차관(敬差官)²⁵⁾ 파견하여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는 10년에 1차례씩 베어오게 하고, 강원도에서는 5년에 1차례씩 베어오게 하여 재궁(梓宮)을 만들 재목(材木)으로 가려 정한다. 수효는 그때마다 헤아려 정한다.

경상도 7곳의 고을은 안동(安東), 영양(英陽), 예천(醴泉), 영덕(盈德), 문경(聞慶), 봉화(奉化), 영해(寧海)이고,

강원도 22곳의 고을은 울진(蔚珍), 삼척(三陟), 양양(襄陽), 고성(高城), 통천(通川), 회양(淮陽), 금성(金城), 평강(平康), 이천(伊川), 인제(麟蹄), 낭천(狼川), 양구(楊口), 홍천(洪川), 횡성(橫城), 원주(原州), 영월(寧越), 평창(平昌), 강릉(江陵), 정선(旌善), 춘천(春川), 간성(杆城), 평해(平海)인데,

이상의 여러 고을에서는 내재궁(內梓宮)을 만들 널빤지 재목(材木)을 베어오

25) 필자주, 조선시대 중앙 정부의 필요에 따라 특수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된 관직

되, 정확한 길이는 7자1치1척(7尺1寸)이고 여유 길이는 2자 5치이며, 정확한 너비는 2자 4치이고 여유 너비는 4치이며, 정확한 두께는 4치이고 여유 두께는 3치로 한결같이 옛 방식을 따라서 벌목한다.

전라도 3곳의 고을은 순천(順天)의 거마도(巨磨島), 흥양(興陽)의 절이도(折爾島), 강진(康津)의 완도(莞島)인데, 이상의 여러 고을에서는 외재궁(外梓宮)을 만들 널빤지 재목을 베어온다”²⁶⁾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재궁(梓宮)이란 임금이나 왕비의 관(棺)을 말하는 것으로 내재궁은 관을, 외재궁은 그 관을 담는 곽(槨)을 말하는 것으로 황장목은 이에 사용되는 나무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경상도와 강원도의 황장목은 내재궁으로, 전라도의 황장목은 외재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황장봉산은 경상도에 7개 고을, 전라도에 3개 고을, 강원도에 22개 고을이 있고,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는 10년에 1차례 벌목한것에 비교하여 강원도에서는 5년에 1차례 벌목한 것 등을 볼 때 강원도가 황장목의 주된 조달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판목(板木)의 정확한 길이와 너비와 두께의 규격을 정한 부분인데, 정확한 길이가 7자1척(7尺1寸)이고 여유가 2자5치이고 정확한 너비는 2자4치이고 여유가 4치이며, 두께는 4치이고 여유가 3치로 하였는데, “一遵舊式斫伐”이라고 한 것을 보면, 예부터 한결같은 기준으로 적

26) 「大典通編」禮典, 雜令. 各道黃腸封山等處, 遣敬差官, 慶尙道·全羅道, 則十年一取, 江原道, 則五年一取, 擇定梓宮°數, 則臨時量定°慶尙道七邑, 安東·英陽·醴泉·盈德·聞慶·奉化·寧海, 江原道二十二邑, 蔚珍·三陟·襄陽·高城·通川·淮陽·金城·平康·伊川·麟蹄·狼川·楊口·洪川·橫城·原州·寧越·平昌·江陵·旌善·春川·杆城·平海, 已上等邑, 取內梓宮板, 而正入長七尺一寸, 剩二尺五寸, 廣二尺四寸, 剩四寸, 厚四寸, 剩三寸, 一遵舊式斫伐°全羅道三邑, 順天巨磨島·興陽折爾島·康津莞島, 已上等邑, 取外梓宮板°

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연구결과에 따라 1자를 30.3cm, 1치를 3.03cm로 환산하면, 길이는 약 215.13cm에 여유는 75.75cm이고, 너비는 60.6cm에 여유는 12.12cm이며, 두께는 12.12cm에 여유는 9.09cm이다.

강원도의 황장봉산에 대하여는, 「大典通編」, 「續大典」에는 22고을에 황장봉산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19세기 전반에 편찬된 「關東誌」에는 금성(4), 양구(4), 인제(3), 횡성(1), 영월(1), 평창(1), 이천(1), 원주(3), 홍천(2), 강릉(3), 고성(1), 양양(2), 정선(1), 회양(1), 삼척(6), 낭천(2), 통천(1), 평강(4) 등 18개 고을에 41처(處)의 황장봉산과 울진에는 종전에 봉산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 조선후기의 「대동지지」에는 22개 고을에 32처의 기록이 있는 등 시기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다.

「關東誌」에서 횡성의 황장봉산에 대하여는, “橫城一處 縣東德高山封山 周回八十里 自官門九十里 東至活峙界 南至陵汗界 西至我也古之峙 北至洪川界”인데, 현의 동쪽 관아로부터 90리의 거리에 있는 덕고산이 봉산이며, 둘레가 80리였고, 동쪽은 활치, 남쪽은 능한, 서쪽은 아야고지고개²⁷⁾ 북쪽은 홍천경계까지라는 것을 알수 있다. 다만, 동·남의 경계인 활치, 능한은 현재 유사한 지명을 통하여 살펴봐아도 정확한



황장봉산의 위치

27) 필자주, 현재 청일면 유동리 '애고지' 로 추정

위치를 비정하지 못하였으나, 지금도 청일면 속실리에 “황장골”이라는 고유 지명이 남아 있고,²⁸⁾ 북쪽으로는 홍천과 경계하고 서쪽끝이 애고지고개인 것을 통하여 보면, 지금의 청일면 태기산(덕고산)과 봉복산, 운무산에 이르는 지역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도리식수(道里息數)에 따라 10리를 약 5.4km로 하면, 둘레 80리는 약 40km이며, 남북을 약 12km로 추정하면 황장봉산 구역의 면적은 약 120km²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 면적은 현재 횡성군의 서원면과 강림면이 조선시대 횡성 현이 아니었음을 감안한 횡성의 면적 780km²의 약 15%에 달하는 넓은 면적이었다고 볼수 있다.

이밖에도 횡성의 황장산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는데,

「輿地圖書」原州鎭管束 橫城縣의 산천(山川)에 “德高山在縣北七十里 自江陵五臺山西來一百二十餘里 北接洪川界封黃場山”의 기록에 북쪽으로는 홍천경계 황장산에 접한다고 하고 있고, 「大東地志」토산(土產)조에 “黃腸封山 一處”라는 기록이 있으며, 「海東地圖」, 「廣餘圖」, 1872년 제작된 「橫城縣地圖」에도 황장산이 표기되어 있다.

다음으로 봉산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大典通編」의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諸道封山禁松犯斫者, 重論°大松犯斫十株以上, 以一律論, 九株以下, 減死定配° 材木偷斫一株, 杖六十° 十株, 杖六十徒一年° 三十株以上, 杖八十徒二年° 監官·山直等未發覺者, 同律° 生松犯斫人處, 私自徵贖守令·邊將, 計贓論° 宜松山船材, 帥臣·守令擅許·擅伐者, 以私賣軍器律論° 中·外公廡修改時, 亦勿許斫伐° 守令與受者, 決杖° 營門許題者, 重推° 松田放火者, 以一律論° 山直·監官不得現發, 則以不覺失囚律論° 受財故縱者, 以枉法律論° 山失火或因封山外元田焚灰, 則與故犯有間, 田主, 決杖定配, 監·色, 從重決棍° 增松田失火監官·山直, 重棍° 守令, 勿罷° 封標內設庄者, 杖一百流三千里° 如有

28) 필자주, 과거 청일면 지역이었던 현재의 갑천면 병지방리에도 ‘황장골’이라는 지명이 있음.

犯耕而山直·監官發告, 則只治犯人, 鄉所擲奸發告, 則山直·監官與犯人同罪°
 守令·邊將發覺, 則鄉所亦同罪° 營門發覺, 則守令·邊將, 以隱結律論° 嶺阨禁
 養處定標內以山腰爲限° 冒耕放火者, 依松田冒耕放火例論° 監官·色吏·山直,
 亦與松田監·色·山直同律²⁹⁾” 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데, 전국의 봉산에서 소나무를 베어낸 자는 중히 죄를 물었으며, 선박용 목재를
 절도사나 수령이 멋대로 내주거나 벌목한 경우 군기율로 논죄하고, 불을 낸 자
 는 사형을 논하며, 봉표안에 농장을 설치한 자는 장(杖) 100대, 유(流) 3천리, 험
 준하고 좁은 지역 금양처(禁養處)의 정표(定標)안에서 불법 경작하거나 불을 낸
 자에 대하여도 봉산내 불법경작과 방화의 예에 따라 죄를 논하도록 하고 있다.

조선시대 封山禁松斫者 等 처벌

유 형	논죄(論罪)
○ 봉산에 금송을 베어낸 자	중히 논죄(重論)
• 큰소나무 불법 벌목 10그루 이상	사형논죄(一律論)
• 큰소나무 불법 벌목 9그루 이하	정배(減死定配) ³⁰⁾
• 재목을 몰래 베어낸 것이 1그루	장60(杖六十) ³¹⁾
• 재목을 몰래 베어낸 것이 10그루	장60도1년(杖六十徒一年) ³²⁾
• 재목을 몰래 베어낸 것이 30그루 이상	장80도2년(杖八十徒二年)
• 감관과 산지기 등이 적발하지 못한 경우	같은 형률 적용(同律)
• 나무를 베어낸 자에게 사적으로 속전을 받은 수령과 변장(邊將)	속전을 장물로 계산하여 논함(計贓論)
○ 의송산에서 선박용 목재를 멋대로 내주거나 벌목한 수령	사매군기율(私賣軍器律) ³³⁾ 적용
• 중앙과 지방의 관청 개수(改修) 벌목	불허(亦勿許斫伐)
• 수령이 벌목한 목재를 주고 받음	장(決杖)
• 관청이 벌목을 허용한 경우	무겁게 추문(重推)
○ 소나무 밭에 불을 낸 자	사형논죄(一律論)
• 산지기와 감관이 미적발시	불각실수율 논죄(不覺失囚律論)
• 재물을 받고 고의로 놓아준 경우	왕법률 논죄(枉法律論) ³⁴⁾

29) 「大典通編, 刑典, 禁制

30) 필자주, 정배(定配): 외딴 시골이나 섬 등 먼곳으로 일정기간 제한된 장소에 살게하는 형벌

31) 필자주, 장형(杖刑): 엉덩이를 노출시켜 한 대씩 때리는 형벌로 가장 가벼운笞刑보다 최호리가 큼

32) 필자주, 도형(徒刑): 일정기간 죄인을 구금하여 노역을 시키는 형벌

33) 필자주, 사매군기율(私賣軍器律): 사사로이 군기를 매매하는 죄

34) 필자주, 왕법률(枉法律):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한 예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률

• 봉산에 실수로 불을 내거나 원전(元田)에서 타다 남은 재로 인해 불이난 경우 (고의로 불을 낸 것과는 구별하여)	전주(田主)는 장을 치고 정배(決杖定配) 감관·색리는 무겁게 곤을 칩(從重決棍) ³⁵⁾ 수령은 피직하지 않는다
○ 봉표(封標) 안에 농장을 설치한 자	장100 유3천리(杖一百流三千里)
• 산지기나 감관이 불법경작자 발고	범인만 치죄(則只治犯人)
• 향소(鄕所)가 불법경작자 발고	산지기·감관 범인과 동일(與犯人同罪)
• 수령이나 변장(邊將)이 불법경작자 적발	향소 또한 죄가 같음(則鄕所亦同罪)
• 영문(營門)이 불법경작자 적발	수령·변장 은결률로 논죄(以隱結律論) ³⁶⁾
○ 험준하고 좁은 금양처 정표내 불법 경작 및 불을 낸 자	송전에서의 불법경작 및 불을 낸 예에 따라 논죄 (依松田冒耕放火例論)
• 감관, 색리, 산지기	송전에서의 예와 같이 논죄(亦與松田監·色·山直同律)

여기서 주목할 것은, 봉산에서 나무를 베거나 불을 낸 자, 불법 경작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이런 행위의 사전 적발에 대하여 감관과 산지기 뿐만 아니라 수령과 변장, 나아가 유향소까지 서로 책임을 교차하여 지고 연대하여 관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벌목한 목재를 어떻게 서울까지 수송하였는가 하는 부분이다.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운송로는 물길이이었으므로 이러한 예에 의하여 수송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황장봉산도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되었을 것이다.

임진왜란 후 광해군이 창덕궁의 복원을 위하여 설치한 영건청(營建廳)의 새 책방(冊房)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목재를 강원도에서 조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관찰사 홍서봉(洪瑞鳳)이 치계한 내용이 있는「光海君日記」의 기록을 통하여 보면, 수로 운송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홍서봉은 ‘인제현감 이풍(李馮)을 차사원(差使員)으로 정하고 도감의 차관(差官)인 유결(兪潔)과 합동하여 목재의 수송을 독촉하였는데, 춘천의 재목 210조(條), 양구의 141조, 영월의 60조, 횡성의 31조, 홍천의 40조, 원주의 150조를 수로로 보냈으며, 나머지 보내지 못한 목재는 벌목장이 골짜기가 깊고 물이 얇은 지역에 있어 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어 큰 재목은 물이 불어나는 것을 기

35) 필자주, 곤장(棍杖): 조선 후기 등장한 형벌로, 태형과 장형이 회초리라면 넓은 매로 가하는 형벌

36) 칠자주, 은결률(隱結律): 양안에 울리지 않은 은결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률

다려 운송하겠다’³⁷⁾고 하고 있다.

이 기록으로 유추해 보면, 수로 운송에 있어 일반적인 수운제도에 따라 춘천과 양구의 목재는 북한강 수계를 따라, 홍천은 홍천강을 통하여 북한강 수계로, 영월, 횡성, 원주는 남한강 수계를 따라 운송하였을 것이며, 특히 횡성의 목재는 일반 조세와 물자의 운송 예와 같이 남한강 수계 지류인 섬강을 통하여 원주 홍원창을 통해 규모있는 배를 통하여 서울의 마포와 용산으로 운송하였다고 보여진다.

횡성에서 중앙의 각종 재목 필요시 조달된 기록은 많이 있으나, 아직 자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확인한 몇 사례를 들어 보면,

경종의 능(陵)을 조성과정을 기록한 「景宗懿陵山陵都監儀軌」에 “春川大樑一條 麟蹄大樑一條 原州大不等一條 平昌大不等一條 橫城大不等一條 洪川大不等一條 狼川大不等一條 寧越大不等一條印”의 기록을 보면, 춘천과 원주에서는 큰 대들보 목재를 각 1조씩, 원주, 평창, 횡성, 홍천, 낭천, 영월에서는 각각 큰 등걸목재 각 1조씩을 보냈으며,

사도세자의 수은묘를 조성한 내용이 기록된 「垂恩廟墓所都監儀軌」에는 “同月十三日 一江原道原州判官爲輸送事橫城來大樑三株大椽百箇 定色吏罔夜輸送緣由牒報爲臥乎”라는 기록을 보면, 원주판관이 횡성에서 오는 큰대들보 목재 3주와 석가래 목재 100개를 밤을 새워 수송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창덕궁의 인정전을 영건(營建)한 기록인 「仁政殿營建都監儀軌」에도 “江陵大樑檜木一株斫置月精洞 洪川高柱檜木一株斫 置松谷村 橫城高柱松木一株斫置茅坪

37) 「光海君日記中草本」, 26권, 광해2년(1610) 3월21일. 庚戌三月二十一日丁酉(江原道觀察使洪瑞鳳馳啓曰: “營建廳所定新册房造成各樣材木, 臣到界即時, 麟蹄縣監李馮差使員差定, 協同都監差官俞潔, 一時督運, 春川材木二百一十條 楊口一百四十一條 寧越六十條 橫城三十一條 洪川四十條 原州一百五十條, 時方流下, 其餘未流下材木, 隨後陸續催督” 而但附近大江等官, 則用力雖省, 輸運頗易, 遠於江口等官, 當初伐木, 必在於谷深水淺之地, 故輸運之際, 關於沙石之間, 一木之運, 雖用百夫, 猶未能曳下, 極爲悶慮。體大材木, 請稍待水生, 一時運下。”)

川邊 平康高 柱檜木一株斫置杵峴 麟蹄...”, “朴工一株 轆轤機三株以上四株 麟蹄 今方運納 衝樑一株寧越今方運納 朴工一株橫城已爲出浦此間想已上納”의 기록을 보면, 강릉에서는 큰 대들보 전나무(檜木) 1주를 베어 월정동에 두었고, 홍천에서는 큰 기둥감 전나무 1주를 베어 송곡촌에, 횡성에서도 큰 기둥감 소나무를 베어 모평천변에, 평강에서는 큰 회목 1주를 베어 유현에 두었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또 박공(朴工 : 널빤지용) 1주, 도르레(轆轤機)용 3~4주는 인제에서 금방 운반하여 납품하고, 충량(衝樑)용 1주는 영월에서 운반하고, 박공용 1주는 횡성의 나무에서 출발하여 상납한 것을 알수 있다.

3) 횡성의 內需司 柴場

앞에서 횡성의 강무장 금산과 황장봉산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나, 또 하나 관심있는 사실은 내수사³⁸⁾ 시장(內需司柴場)에 대한 것이다.

영조50년(1774)「江原道橫城縣所在內需司屬柴場面周回里數及四標成冊」은 횡성군 청일면에 소재하던 내수사 시장(柴場)의 둘레와 사방의 경계를 기록한 것인데 이를 보면, “청일면 있으며 둘레는 50리이며, 봉산에 있는 굴바우(窟庵)³⁹⁾에 3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표(標) 안쪽 마을 입구부터



내수사 시장 위치

38) 필자주, 조선시대 왕실 재정의 관리를 위한 관서. 이조 소속의 정5품 아문(衙門)으로 왕실의 쌀, 배, 잡화 및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

39) 필자주, 청일면 춘당리 춘당초등학교 지나 봉명리와 경계에 있는 바위로 바위에 굴(窟)이 있고 지금도 굴바위라 부른다.

그 위로 모두 봉산의 안에 해당한다. 봉산표 바깥은 유동리, 율동리, 포동리, 중금리, 외청일리, 병지방리이고, 동쪽 춘당리부터 서쪽 외청일 경계까지는 40리이고, 남쪽 외정곡면 경계부터 북쪽 병지방 경계까지는 20리이다⁴⁰⁾ 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이 1774년의 기록이고 앞에서 살펴본 황성 황장봉산이 이 시기 이후에 제작된 지도에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언제부터 시장이 지정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적어도 조선후기 황성에는 황장봉산과 더불어 내수사의 시장도 별도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특히 기록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사방의 경계와 표(標) 밖의 지역에 대한 기록이 확실하여 그와 같은 추론을 뒷받침 한다.

시장의 위치를 찾아 보면, 표(標) 안쪽 마을 입구부터 그 위로 봉산 구역에 해당하고, 동쪽이 춘당리, 서쪽이 외청일(현재 갑천면 삼거리, 전촌리, 추동리, 대관대리 지역)의 경계이며, 남으로는 외정곡면 경계(지금의 우천면 정금리, 하궁리)부터 북으로 병지방리까지라고 명확하고, 또 유동리, 율동리, 포동리, 중금리, 외청일리, 병지방리는 경계 밖으로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그 지역은 지금의 청일면 봉명리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봉, 발교산, 병무산



청일면 춘당리 굴바위(窟巖)

40) 「江原道橫城縣所在內需司屬 柴場面周里 數及四標 成冊」,

乾隆三十九年十二月日 江原道橫城縣所在內需司屬 柴場面周里 數及四標 成冊 晴日面周回五十里
窟巖刻三字在於封山 標內初入洞口此以上皆入封山內 封山標外則柳洞里栗洞里浦洞里中金里外晴日里
兵之坊里 東自春堂里西至外晴日界四十里 南自外井谷面界至北兵之坊界二十里

을 아우르는 지역임을 명확히 알수 있고, 둘레가 50리 임으로 그 구역의 면적은 약 75km²에 달한다고 보여진다.

다만, 아쉬운 것은 몇 번 굴바위를 답사하였으나 봉표의 각자를 찾을 수 없었고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그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바위의 재질이 쉽게 풍화에 떨어지기 쉬운 재질이라 없어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수사의 시장은 둘레 20리를 할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50리로 기록된 것을 보면, 조선후기 시장의 광점(廣占)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시장도 황장봉산과 같이 주로 강가의 지역에 위치하는 것은 수송의 편의 때문이며, 황성의 내수사 시장도 유동천 출발하여 계천을 통해 남한강 지류인 섬강으로 하여 원주 흥원창의 수로를 이용하기 용이하였다고 생각된다.

III. 결 론

이상에서 조선시대 산림정책의 개략과 황성지역에 운영되었던 강무장금산(講武場禁山), 황장봉산(黃腸封山), 내수사시장(內需司柴場)에 대해 관련 기록을 들어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황성의 禁山 먼저, 황성은 조선전기 특히 태종과 세종 양대에 걸쳐 계속하여 상설 강무장으로 운영된 곳이며 이에 따라 그 지역 일대가 금산(禁山)으로 운영되었음을 여러 사료의 자료를 들어 살펴 보았으며, 그 지역도 황성의 동북쪽에서 동남쪽으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산록이었을 것을 추정해 보았다.

또 여러 사료와 많은 고지도에 표기된 덕고산 황장봉산(黃腸封山)에 관한 기록을 살펴 그 위치와 범위는 어떠하였는지 추론해 보았으며, 더불어 강원도의

황장봉산의 기록과 황장봉산의 관리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황장봉산은 주로 강원도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황성도 강원도의 기타 고을과 더불어 역시 봉산이 있었고, 그 면적은 당시 황성현 면적의 15%에 달하는 비교적 넓은 지역이 관리되었다.

각 관청의 주로 땃감 시목(柴木)과 숲 등의 자급을 위해 지정된 시장(柴場)이 서울로부터 비교적 원격지인 황성에도 운영된 것이 이례적이라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기록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관련 사료를 찾아 살펴본 것은 작게나마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강무장, 황장봉산, 내수사 시장 등이 모두 황성에서 비교적 산촌지역인 청일면 일대에 위치한 것은 운송 편의를 위해 수로 등의 형편을 볼 때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며, 특히 황장봉산과 내수사의 금산 면적은 당시 황성현 면적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보여, 그로 인한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산림자원 채취와 이용에 불편이 컸을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개간과 벌목의 금지 등으로 지역경제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다.

글을 마치며,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고 각종 사료를 폭넓게 접근하지 못해 의도와 다르게 내용없는 글이 된 것에 부끄러움을 가지며, 특히 두 곳 금표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못내 아쉬움을 느낀다.

參 考 資 料

『太宗實錄』

『世宗實錄』

『文宗實錄』

『經國大典』

『大典通編』

『光海君日記中草本』

『續大典』

『江原道橫城縣所在內需司屬柴場面周回里數及四標成冊』

『關東誌』

『輿地圖書』

『大東地志』

『海東地圖』

『廣餘圖』

『橫城縣地圖』

『정구옥, 〈조선시대 都城의 松政〉, 단국대학교, 1977』

『전영우, 〈조선시대 산림 보호정책, 금표와 봉표〉』



횡성 문화유적 탐방



김 동 정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도로에서 본 풍수원 성당 모습 2018년 4월 13일, 오전에 문화원 이사들이 회의를 하였다. 회의 후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풍수원성당, 매봉서원, 압곡리 백로와 왜가리 서식지, 취석정, 금대리 의병총을 답사하였다. 1시에 첫 코스인 풍수원 성당을 향해 출발했다. 문화원에서 출발하여 횡성교-큰골을 거쳐 장지고개를 넘자 가까이에는 313고지가 보이고 저 멀리에는 독재봉이 우뚝 솟아 손짓이라도 한다. 신촌삼거리에서 6번국도를 타고 서울 방향으로 들어서면 초원1리가 나온다. 초원1리 입구 우측에는 태봉(336m)이 있다. 태봉을 뒤로하고 언덕을 한참 오르면 상하대(上下岱)가 있다. 상하대는 ‘고을 원님이 내려온 곳’이라 하여 고을명이 되었는데, 지금은 상화대(上花岱)라 부른다. 고개를 넘어 유희을 지나 6여 분 정도 가면 우측에 고평이 찬란한 풍수원 성당이 눈에 들어온다.

풍수원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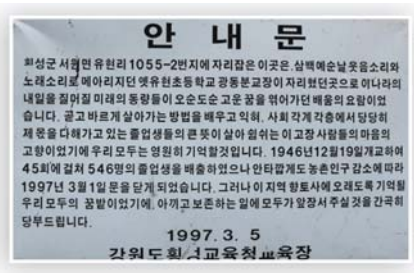
도로 입구에는 ‘풍수원성당’ 이라고 크게 쓴 표석이 서 있다. 입구에서 30~40m 가면 좌측에 옛 광동분교가 자리잡았던 터가 나온다. 옛 광동분교는 지금 풍수원성당 순례자 쉼터로 활용되고 있었다. 광동분교터 앞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이 이곳이 옛 유현초등학교 광동분교장임을 설명하고 있다.

안내문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055-2번지에 자리잡은 이곳은 삼백여년 웃음소리와 노래 소리로 메아리치던 옛 유현초등학교 광동분교장이 자리했던 곳으로 이 나라의 내일을 짊어질 미래의 동량들이 오순도순 고운 꿈을 엮어가던 배움의 요람이었습니다. 곧고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 사회각층에서 당당히 제 몫을 다해가고 있는 졸업생들의 큰 뜻이 살아 숨 쉬는 이 고장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었기에 우리 모두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1946년 12월 19일 개교하여 45회에 걸쳐 54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니 안타깝게도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 1997년 3월 1일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향토사예 오래도록 기억될 우리 모두의 꿈 발이기에 아끼고 보존하는 일에 모두가 앞장 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1997. 3. 5

강원도횡성교육청교육장



한편, 운동장 반대편에는 풍수원성당 교우 농산물 판매장이 있었다. 전시된 농산물은 뽕잎나물, 구기자, 들기름, 옥수수 수염, 무말랭이, 감자가루, 강냉이 튀김, 고춧가루, 각종 짬아찌, 쇠비름효소, 개복숭아효소, 오디효소, 오디쨈, 돼지감자차, 고추씨, 옥수수차, 찹옥수수알, 표고버섯, 단호박 등등 헤아릴 수 없

이 많았는데, 대여섯 분의 이름으로 된 돈통이 있어 필요한 농산물을 사고 그 값에 해당하는 돈을 통에 넣으면 된다. 농산물은 있는데 판매자는 없어 셀프구매다.



옛 광동분교터(풍수원성당 순례자쉼터)와 풍수원성당 교우 농산물판매장

이곳을 둘러보고 성당 쪽으로 30m 남짓 걸어갔을 때 박순업 문화원장님이 왼쪽 붉은 슬라브양옥 2층집을 가리킨다. “저 붉은지붕의 양옥집 있는 곳이 원터예요”라고 하신다. 즉 풍수원이 자리하고 있던 곳이다.



‘1888년 유적지 풍수원성당’ 이라고 쓴 표지석에서 본 원터
(붉은지붕의 양옥집)

주소는 ‘경강로 유현1길 13-4’ 라고 되어있는데, 옛 주소로는 유현리 1056번지이다. 조선시대에 여행자의 숙식을 제공하기 위한 원(院), 즉 풍수원이 있던 데서 성당이름도 유래되었다. ‘1888년 유적지 풍수원성당’ 이라고 쓴 표지석에서 좌측 20m 정도 안 쪽에 위치해 있다.

일행은 풍수원성당으로 발길을 옮겼다. 약 50m 앞에 고풍 찬란한 풍수원성당이 위풍당당하게 우뚝 서 있었다. 성당 옆 기념식수로 심어진 느티나무도 키가 성당 높이보다 1.5배 큰 모습으로 ‘푸른 잎사귀가 무성함 같이’ 웅대한 모습으로 성당과 역사를 같이하며 우리 일행을 반겼다.



고풍 찬란한 풍수원성당과 기념식수로 심었던 느티나무 모습

성당 가까이 다가가자 박원장님은 좌측 언덕에 있는 집을 가리켰다. “저 집터가 바로 삼위학당 초기 학당터예요”라고 하였다. 주임을 맡은 날부터 정규화 신부는 조선교구장 뉘텔 주교에게 1927년까지 40년 동안 프랑스어로 107통의 편지를 썼다. 그 내용 중 1908년 12월 28일자 편지에는 묘한 표현이 나온다.

…… 주교님, 여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학교라 할 수 없습니까? 제 학교는 선생으로 보나, 건물로 보나, 유지비로 보나 도무지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골 서당인데, 아이들이 21명입니다.

라고 하였듯이 삼위학당을 세우기 2년 전에 서당을 개설하여 20여 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나 건물, 운영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지만 배우고자 몰려 온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저 서당이 자라서 학당이 되고 학교가 되었던 것이다.

1910년 한일병합으로 국권을 망실하자 정규하 신부는 성당 사랑방에 ‘삼위학당(三爲學堂)’을 개설해 본격적으로 학생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치고 밤에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말’



삼위학당의 초기 서당터(양옥집)

을 비롯하여 한문·수학·역사를 가르쳤다. 논산에서 박도마 교우를 초빙해 역사를 가르쳤다. 일경의 감시를 의식하여 우회적으로 『월남망국사』를 가르쳤는데, 그마저도 문제가 되어 교재는 압수되고 교사는 옥고를 치렀다. 삼위학교는 훗날 광동국민학교로 발전하였는데, 지금 풍수원성당 초입의 주차장 자리가 광동국민학교 터인 것이다. 박순업 문화원장이 제공한 삼위학당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 설립동기 : 풍수원 본당 정규하신부는 1910년 8월 한일병합이 일어나자 성당 사랑방에 삼위학당(三位學堂)을 열었고 학생들에게 신문학과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 연혁

- 1910년 삼위학당 설립(정규하 신부)
- 1913년 2개 교실 신축 준공
- 1931.04.01. 4년제 성원학원(聖心學園) 개칭 인가
- 1938.04.01. 5년제 심상과로 개편
- 1944.06.10. 2대 원장 김학용(시문) 신부 부임
- 1946.12.09. 6년제 광동(光東)사립국민학교로 개칭 인가
- 1951.01.20. 6·25전쟁으로 교사1동 전소

- 1957.10.01. 학부모성금으로 1개 교실 증축
- 1958.04.01. 5학급 교직원 봉급을 국고에서 보조
- 1960.12.05. 현대지 위에 이전 목조건물 신축
- 1969. 05 춘천교구에서 원주교구 학교법인 진광학원으로 이양
- 1969.06.13. 교장 최송하 부임(일반인)
- 1972.03.01. 천주교 원주교구 진광학원에서 황성군 공립학교로 설립자 변경
- 1982.03.01. 유현국민학교 광동분교로 격하
- 1997년 폐교

편지에는 초기부터 의병 이야기가 산발적으로 등장하는데, 을사늑약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난다. 그중에서 상당수가 화력에 밀리면서 황성의 의병과 합류하게 된다. 정규하 신부는 의병이 찾아오면 침식을 제공하고 격려하며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성당의 지하에는 비밀창고가 있다. 성당 바닥의 마루널 아래에 습기를 막기 위해 비워둔 공간이 있는데, 그중 넓은 쪽을 활용해 사람이 앉아서 며칠을 견딜 정도의 공간을 만든 것이다. 아무래도 그 공간이 정규하 신부의 의병 지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최송철옹의 증언 기록을 보면 “왜병 순사들의 감시 속에서도 신부님은 의병에게 마당이나 주변 야산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성당 마당에서 신자의 병장이 의병 50~60명을 모아 훈련시키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왜병 순사들도 신부님이 인격이 높은 지식인이란 점에서 몹시 어려워했다. 신부님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주면서 겉으로는 유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그들이 강요하던 ‘신사참배’ 따위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무시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이 장엄하고 웅장한 풍수원성당을 지은 정규하 신부에 대하여 잠깐 알아보기로 한다.

정규하(鄭圭夏, 아우구스티노) 신부는 1863년 8월 18일 충청남도 아산군 신창

면 남방리 출생으로써 천주교 신자인 기화(基化)의 3남매 중 장남이었는데, 병인박해로 온 가족이 피신생활을 하다가 그가 15세 무렵 충청북도 충주 부근의 소탕이에 정착하였다. 그 뒤 블랑(Blanc, J.M.G., 白圭三) 주교에 의하여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명동성당의 글방에서 공부한 뒤 신부가 되기 위하여 1884년 말 레이스아의 페낭신학교에 유학하였으나 기후와 풍토를 이기지 못하고 1891년 귀국하여 새로 설립된 용산 예수성심신학교(지금의 가톨릭대학 신학부의 전신)에 입학하였다.

1896년 4월 26일 뮈텔(Mutel, G.C.M., 閔德孝) 주교에 의하여 사제로 서품되었고 신부가 된 뒤 47년간을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에 위치한 풍수원본당(亦水院本堂)에서만 활동하였는데, 1896년 6월 10일 풍수원본당 보좌로 부임한 뒤 1896년 8월 17일 풍수원본당 제2대 주임으로 부임하였고 1907년 11월 22일 풍수원본당 성전을 착공하여 1910년 완공과 함께 삼위학당(광동국민학교의 전신)을 설립하였고 1911년 3월 11일 성부안나회(안나회)를 설립하였으며, 1920년 6월 3일 제1회 풍수원 성체현양대회를 거행하였고 1943년 10월 23일 선종하면서 풍수원본당 뒷산에 있는 성직자묘지에 안치되었다.

일행은 먼저 성당을 둘러보았다. 풍수원성당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풍수원성당의 1대 르 메르 신부, 2대 정규하 신부, 3대 김학용 신부 모습

횡성(橫城) 풍수원(豐水院) 천주교회(天主教會)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9호

소재지: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이 교회는 도(道)에서 처음으로 세운 고딕양식의 천주교당(天主教堂)이다.

본래 이곳은 조선(朝鮮) 순조(純祖) 원년(1801) 신유박해(辛酉迫害), 고종(高宗) 3년(1866) 병인양요(丙寅洋擾), 고종 8년(1871) 신미양요(辛未洋擾) 등으로 탄압받던 신도들이 피난 온 곳으로 고종 27년(1890) 프랑스의 르메르 이신부(李神父)가 초가 사랑방에 초대신부로(初代神父)로 부임한 한국의 네 번째 천주교회로 출발한 곳이다.

지금의 교회는 제2대 정규하(이우구스띠노, 1863~1943) 신부가 설계하여 고종 광무(光武) 10년(1906) 착공, 이듬해(1907)에 완공하였는데, 중국인(中國人) 기술자와 전(全) 신도(信徒)들이 공사에 참여하였다.

위엄있는 풍수원성당을 뒤로하고 왼쪽 옆으로 발길을 옮길 때 두 팔을 벌리고 “다 내게로 와라”라고 손짓해 보이는 흰 가운을 걸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눈에 들어왔다. 육안으로 약 3m 남짓 되어 보이는 상이 참 평온해 보였다. 동시에 20여 m 떨어진 곳에 사제관이 보였다. 입구에 가서 보니, 옆에 설명문이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횡성 풍수원 성당

구 사제관

등록문화재 제163호(2005.4.15)

건립년도 : 1912년(1913년 완공)

“저희 집 사제관은 이제 준공되었습니다. 지금은 새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썩 잘 지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정규하 신부 서한에서 (1913.10.1)



사제관 전경

칭칭나무로 우거진 골짜기를 배경으로 산언저리에 위치한 사제관은 붉은 벽돌로 세워진 2층건물이다. 성당보다 5년 늦은 1912년 지어졌지만 원형이 잘 남겨진 벽돌조 사제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당시 사용된 벽돌은 가까운 피미기 마을에서 구워 나온 것으로 추정되며, 정규하 신부가 건립진행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소한 모습 속에서도 현관·창호·처마 주위의 벽돌쌓기 장식이 돋보인다. 1·2층 내부에서 거실을 사이에 둔 방 배치와 서재를 보면 당시 사제의 주거생활을 이해할 수 있다.

2층창문을 열면 마을전경이 한 눈에 들어오고 멀리 떨어진 주막거리가 보이는 위치에 있어 마을의 분위기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었다.

신부는 사제관에서 성당준비실까지 가려면 돌계단을 천천히 걸어내려 와야 하는데 그 사이에 예배의 마음이 짐을 되새기면서 성당으로 향했을 것이다.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들어온다. 돌계단을 천천히 걸어내려 오면서 예배의 마
음가짐을 되새기면서 성당으로 향했을 신부를 생각해 보았다. 참 기록해 보이
는 발걸음이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사제관을 들어갔다.

2층에 올라가자 한 벽면에 풍수원성당의 약사가 1888년부터 2010년까지 정리
되어 있었고 십자가 종류와 그 유래, 풍수원성당의 의인인 조이분(마리아) 할머
니 이야기, 미사 때 사용한 각종 촛대, 초기 가톨릭성당의 건축과 풍수원성당,
한국 가톨릭성당 건축의 변천(1890~1940년대) 등등 다양한 배울거리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마터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신앙의 선조들이 벽돌을 구웠던 곳
이라고하니 더 자세히 보게 되었다. 풍수원성당의 가마터는 풍수원성당을 짓기
위해서 성당에서 500m떨어진 피미
기 마을에 가마터를 만들고 벽돌을
구웠다. 정규하 신부가 직접 감독하
여 회색, 분홍색 안료를 넣어 벽돌
을 만들었다고 한다.



피미기 마을에 있던 가마터

「신앙선조들의 피신처, 강원도의 첫 본당 이라는」의미있는 내용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풍수원 교우촌은 1801년 신유박해 때 복자 신
태보 베드로가 용인이천지역의 순교자 유가족
들 40여 명과 함께 피신처를 찾아 떠돌다가 풍
수원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오박해, 그리고
1866년 병인박해 등으로 고향을 떠난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두메산골 풍수원으로 모여들어 교

신앙선조들의 피신처, 강원도의 첫 본당

풍수원 교우촌은 1801년 신유박해 때 복자 신태보 베드로가 용인 이천 지역의 순교자 유가족들 40여 명과 함께 피신처를 찾아 떠돌다가 풍수원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것이었다.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오박해, 그리고 1866년 병인박해 등으로 고향을 떠난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두메산골 풍수원으로 모여들어 교우촌은 점점 큰 촌락을 이루었다. 신자들은 공동체를 이루어 화전을 일구거나 용기를 구워 생계를 유지하며 믿음을 지켜나갔다. 성직자도 없이 신자들끼리 80여 년 동안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성찰한 이곳에 1886년 조철수호통상조약으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자, 1888년 6월 20일 당시 조선 교구장 위델Muter 주교에 의해 강원도 최초의 본당으로 설립되었고, 초대 주임 신부로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르 메르Le Merre가 부임하여 신앙의 꽃을 피웠다.

우촌은 점점 큰 촌락을 이루었다. 신자들은 공동체를 이루어 화전을 일구거나 용기를 구워 생계를 유지하며 믿음을 지켜 나갔다. 성직자도 없이 신자들끼리 80여 년 동안 신앙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한 이곳에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으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자, 1888년 6월 20일 당시 조선 교구장 뮌텔 주교에 의해 강원도 최초의 본당으로 설립되었고 초대 주임 신부로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르메르가 부임하여 꽃을 피웠다.

신유박해를 피해 피신처를 떠돌다가 풍수원에 정착한 신도들의 눈물겨운 교우촌 형성과 뮌텔 신부에 의해 강원도 최초의 본당이 이곳 횡성 풍수원에 설립되는 의미 있는 내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마음 속 깊이 각인되었다.

문화원이사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구사제관을 나왔다. 그리고 성당 뒤편의 박물관을 향했다. 가는 길가엔 개나리가 손짓이라도 하듯 우리 일행을 반겨주고 있었다.



풍수원성당 뒤편 유물전시관으로 가는 길과 유물전시관 앞

이곳 유물 및 유품들은 박해 당시 신도들의 어려웠던 생활상을 볼 대변하고 있으며, 쓰레기장에 버려야할 보잘 것 없는 생활도구들처럼 보이지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며 어려움을 극복한 우리네 선조들의 애환과 삶을 느낄 수 있는 생활용품의 보물들이 모여 있는 생활용품의 보고(寶庫)이다.

횡성문화원 부위원장이면서 횡성군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병철



가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윤병철 부원장님

부원장께서 해설을 해 주셨는데, 너무나 구성지고 재미있었다. 특히 가마요강에 대한 설명은 가마를 타보지 않은 우리 세대에게는 신선한 궁금증과 재미를 더해 주었다.

이곳 유물전시관은 최수범(1940년생, 현재 원주 거주)이라는 분이 기증한 유물로 거의 채워져 있다. 그분은 육군 대령 출신으로 예전엔 이곳 풍수원성당에 적을 두고 믿음생활 하기도 하였다. 기증하기 전에는 비닐하우스 세 동에다 관리하다가 점점 관리하기가 어려워 이곳 유물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옮겨 전시하였다. 다른 어느 곳 보다는 우리 농본문화와 그에 따른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귀한 보고이다.

특이하게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문자도와 옹기 십자가이다. 문자도는 효제 충신(孝悌忠信) 즉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과 우애있게 지내고 국가에 충성하고 사람들과는 옹기십자가 신뢰하며 살으라는 의미를 글자에 그림을 넣어서 이해하기 좋게 만든 교재와 같은 것이다. 또 다른 의미있는 것은 향아리를 덮은 뚜껑인데, 뚜껑을 열면 십자가가 그려져 있다. 피난 온 신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생활상의 한 단면이다. 즉 매일 된장 고추장을 펄 때마다 항아리를 열면서 자신의 믿음을 다지는 모습이 역력하게 스쳐 지나갔다. 참으로 지혜로운 선조들의 모습이다.

우리의 어릴 때 모습과 생활을 생각하며 즐겁게 관람하였다. 이곳을 나와 개별적으로 주변의 십자가의 길, 묘지, 예수 십자가 모습, 예수 상 등을 둘러 본 후 매봉서원으로 향하였다.



용기 십자가

매봉서원

풍수원성당에서 일행은 매봉서원으로 향하였다. 6번국도를 따라 1km 정도 가서 409지방도를 따라 8km 지점에서 서원면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2.2km 정도 가면 길가에 매봉서원이 있다. 박원장님은 “횡성 서원면의 유래가 된 철폐된 칠봉서원을 대신하여 이곳 매봉산 아래에 건립하여 유학의 전통을 잇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다. 매봉서원 앞의 안내문에는 그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매봉서원(梅峰書院)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353-1

서원은 석학(碩學)과 충절(忠節)한 분들을 배향(配享)하고 학문을 강학(講學)하던 사학기관(私學機關)으로 1542년(중종 37)에 세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 그 효시(嚆矢)이다.

매봉서원의 모태(母胎)가 된 칠봉서원은 1612년(광해군 4)에 건립되어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 팔계군(八溪君) 정종영(鄭宗榮), 구암(久菴) 한백겸(韓白謙), 정간공(貞簡公) 관란(觀瀾) 원호(元昊)를 배향(配享)하였으며, 대원군(大院君)의 서원철폐(書院撤廢) 정책에 따라 1868년(고종 5)에 철폐되었으며, 198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원주시 호저면 칠봉리에 서원터가 흔적만 남아 있다.



매봉서원 전경

매봉서원은 서원면의 유래가 된 옛 칠봉서원(七峰書院)을 복원(復元)하여 조상의 건학정신(建學精神)과 유학의 전통을 이어가는 마음의 성지로 삼고자 1997년 10월 29일 매봉산 아래에 건립하고 매봉서원(梅峰書院)으로 명명(命名)하였다.

현재 이 서원은 2003년 11월 불의의 화재(火災)로 본관이 소실(燒失)되어 2005년 7월에 재복원(再復元)된 것이다.

서기 2005년 7월 30일

매봉서원복원추진위원회

매봉서원을 뒤로 하고 압곡리의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로 향하였다. 이곳에서 압곡리 방향으로 3km 정도 가면 아늑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나온다. 이 시기 정도 되면 왜가리와 백로의 둥지가 많이 보이는 시기이다. 왜가리와 백로는 매년 2월 20일경 선발대격인 10여 마리가 먼저 압곡리로 날아와 주변상황을 점검하고 3월초에는 둥지를 만들기 위해 50여 마리가 도착한다. 이에 우리 일행에게 보이는 이 서식지에는 군데군데 큰 둥지들이 보였다. 개체수가 적어서인지 생각보다 둥지가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횡성 압곡리의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는 마을 서쪽에 있는 영산과 북쪽의 압산에 있다.

영산의 정상에는 200~300년 된 소나무를 중심으로 숲이 우거져 있으며, 압산에는 산등성이에 약 90년 된 소나무



압곡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전경

1그루와 그 밖에 떡갈나무, 상수리나무가 있다. 약 20년 전까지는 대부분 왜가리 집단이 번식하였으나, 점차 왜가리는 감소되고 최근까지는 중대백로가 번식 집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73년 7월 조사 때에는 영산에서 중대백로 620등지 979개체와 왜가리 7등지 13개체, 압산에서 중대백로 116등지 305개체, 왜가리 3등지 16개체를 각기 확인하였다. 두 번식 집단을 합산하면 중대백로 736등지 1,284개체, 왜가리 10등지 27개체였다. 저녁에 귀소할 일부의 집단을 고려하여도 2,000개체 미만이었다. 임야소유주 최범하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도래·번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백로마을이라는 명칭까지 얻었으나 번식지 자연환경 훼손으로 2010년 전후로 개체수가 200마리까지 줄어 백로와 왜가리 서식지 명성에 위기를 맞았다. 이에 압곡리 주민들은 왜가리와 백로가 다시 찾는 번식지를 만들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일대 농사를



횡성 압곡리 왜가리 및 백로 번식지 예전 모습

친환경 농법으로 바꾸고 수시로 미꾸라지 방사 등 먹잇감을 늘리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압곡리를 찾는 왜가리와 백로가 늘기 시작해 2011년에는 500마리에 이르렀다.

횡성 압곡리의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중의 하나이므로 천연기념물 제248호(1973.10.05) 지정·보호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횡성 압곡리의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천연기념물 제248호

소재지: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취석로

이곳에 최초로 중대백로와 왜가리가 도래하여 번식한 것은 약 300년 전으로 추정된다. 당시에는 왜가리가 많았으나 점차 백로류의 숫자가 증가하였으며, 주민들의 성의있는 보호로 그 수가 증가하다가 번식지의 영소목 고사로 인하여 수가 감소하고 있다.

매년 3월 초순부터 4월 초순까지 중대백로, 쇠백로, 왜가리가 도래하여 번식을 마친 후 8월 중순이 지나면 대부분의 왜가리 무리에 소수의 백로류가 함께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아름다운 백로와 왜가리 서식지를 뒤로 하고 마지막 답사지인 금대리 의병총으로 향하였다. 금대리 방향으로 3.6km를 가면 서원초등학교 금대분교터(지금의 금대귀농학교)가 있고 그 옆에 금대리 의병총이 있다.

취석정(醉石亭)

이 정자는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에 있다. 1641년(인조 19) 조선 중기의 시인 최문발이 낙향하여 세운 정자로, 취석(醉石) 최문발(崔文潑)이 창건하고 그의 아호를 따서 취석정(醉石亭)이라 하였다.



황성문화원 이사·직원들의 취석정에서의 기념

최문발(崔文潑, 1607~1673)은 조선중기의 문인으로 호는 취석(醉石), 시조 충무공 필달의 23세손이며, 매곡공 기벽의 셋째 아들이라서 그의 형 문오와 문활을 비롯한 동생 문식은 모두 벼슬을 하였으나 그는 세속의 명리(名利)를 초탈하여 시(詩), 주(酒)와 더불어 일생을 보냈다. 취석정에서 최문발은 친구들과 시 짓고 술 마시고 바둑을 두며 풍류를 즐겼다. 최문발은 시와 술, 바둑과 활쏘기(詩酒棋射)에 능해 4절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가 정착한 압곡리 마을에는 아직도 최문발의 숨결이 살아있는 듯하다.

강원도 황성군 서원면 압곡2리는 방지라는 연못에 많은 오리떼가 놀고 있다고 하여 '압실'이라고도 하며, 취석정(醉石亭)이 여기에 있다. 최문발이 살아 있을 때 허다한 시인묵객(詩人墨客)들이 그와 함께 시주(詩酒)를 함께 하기 위하여 선바위재를 넘나들었다고 한다.

그가 남긴 시(詩)는 후손들이 『취석시집(醉石詩集)』(3권 2책 395수의 시)이란 이름으로 한권의 책을 만들었다. 서원 8경을 읊은 가사 중에 다음과 같은 노래가 있다.

꼬불 꼬불 돌아가는 20리 냇가,
 산마루 푸른하늘도 봉우리 따라 꼬불.
 걸음마다 진달래가 발목을 잡네.
 취석정 술 한잔에 시 한수 하니,
 줄고 싶든 해오라기 나래를 친다.

취석정 아래 냇가의 돌에 새긴 바둑판과 취석(醉石)이란 두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다. 주변에는 구룡소, 광대소, 승학대(乘鶴臺) 등 경관이 뛰어난 명소가 많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정자는 자취조차 없고 취석의 시원중(詩願中)에 ‘소정수 동원상소정(小亭水洞援上小亭)’(물골냇가에 작은 정자를 오르다)이라는 칠언 율시를 고증삼아 1984년 7월 15일 후손인 강릉최씨 압곡종친회에서 새로 세운 것이다. 누각 안에는 취석정상량문(醉石亭上樑文)과 취석정복원현황(醉石亭復元現況) 현판이 걸려 있다. 현판은 대한민국 10대 최규하(崔圭夏)대통령의 친필로 씌어져 있다.



「취석(醉石), 글자와 바둑판 모습



취석정 아래 냇가의 돌에 새겨진 「취석, 글자와 바둑판 (우측 상단) 모습

금대리 의병총

이 금대리 의병총은 항일운동사적지로서 1907년 황성군 서원면 부근에서 싸우다 순국한 무명의병의 무덤이다. 당시 풍수원성당에서 무술훈련을 지도하였고 이 서원지역에서 700여 명의 의병들이 활동하였다. 1989년 12월 산재(散在)



금대리 의병총 전경

해 있던 묘소를 수습하여 현재의 금대리 서원초등학교 금대분교 옆에 의병총을 조성하였다. 2009년에 묘역주변을 단장하여 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있다. 매년 11월(음력 10월)에 제례를 지내며 뉘을 기리고 있다.

이곳에서 먼저 문화원 이사들의 참배가 있었고 이어 박문화원장님의 이 금대리 의병총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 의병총에는 1907년 당시 이 곳 주변에서 일본군 제51연대와 치열한 전투를 했을 때 순국하신 의병 중에 연고 없는 세 분을 모신 곳” 이라고 하셨다. 비석 뒷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이곳 금대리(琴垞里) 의병총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1907년 조선군을 강제 해산하고 고종황제를 폐위한 만행에 분노를 금치 못하여 의병으로 봉기한 분들 중 이 지역전투에서 순국하신 세 분의 무연고 의병을 모신 묘역이다.



횡성문화원 이사들의 금대리 의병총 참배 모습 금대리 의병총 전경

1907년 11월에서 12월까지 이곳 서원면(書院面)에는 700여 의병이 대부대를 이루고 일본군 보병 제51연대와 대치하던 강원·경기·충청도 의병의 거점으로 연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이 전투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장렬히 전사하신 의병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길이 후손에 전하고자 묘역을 정비하고 비를 세우다.

1989년 12월 5일

횡성군수

이렇듯 1989년 의병총을 조성한 이후 2010년에 다시 묘역주변정비사업을 하여 고귀한 정신을 기렸다. 의병총 앞 안내문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금대리(琴叟里) 의병총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1907년 조선군을 강제 해산하고 고종황제를 폐위한 만행에 분노를 금치 못하여 의병으로 봉기한 분들 중 이 지역전투에서 순국하신 세 분의 무연고 의병을 모신 묘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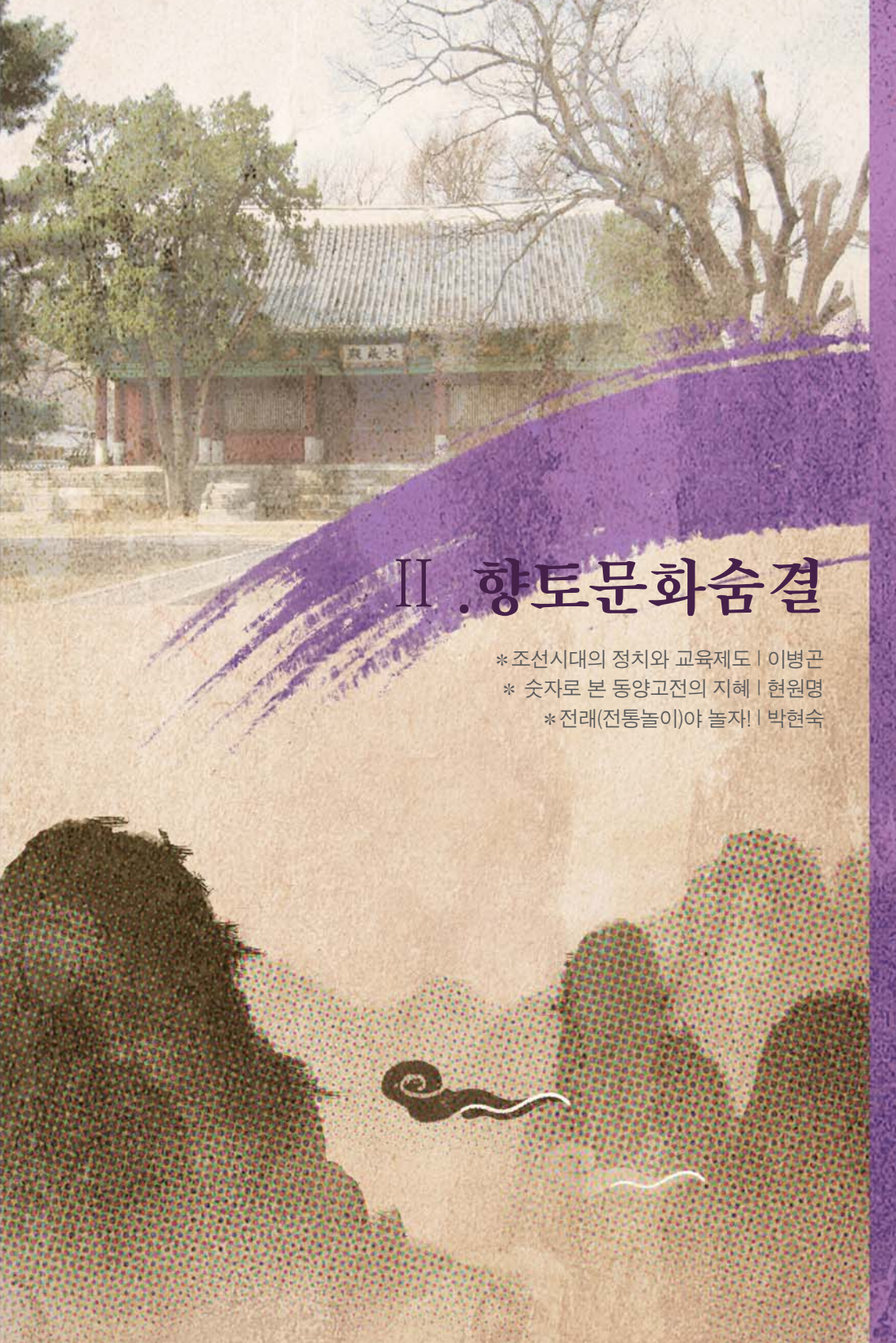
1907년 11월~12월 사이에 서원면(書院面) 지역에서 700여 의병이 일본군 보병 제51연대에 맞서 항전하였으며, 당시 금대분교장 학교림 부근 지역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여섯 분의 무연고 의병의 묘가 있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1989년 초라하게 산재해 있던 세 분의 무연고 의병을 수습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묘역주변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선열들의 고귀한 나라사랑의 정신을 기리고 길이 후손에 전하고자 합니다.

2010년 5월 26일

서원면장

이렇게 오전 문화원 이사들의 이사회의를 마치고 모두 오후 풍수원성당-매봉서원-압곡리 백로와 왜가리 서식지-금대리 의병총을 답사하였다. 봄을 알리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이곳저곳, 이산저산에 활짝 피었고 산과 산 사이로 흐르는 계곡물의 소리가 산새들의 지저귀고 어울려 황성의 아름다움을 교향곡으로 연주하고 있었다.

올 한 해도 황성문화원과 이사들의 황성군민들을 위한 섬김과 군민들의 문화원을 통한 문화의식 제고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성황리에 잘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II . 향토문화숨결

- * 조선시대의 정치와 교육제도 | 이병곤
- * 숫자로 본 동양고전의 지혜 | 험원명
- * 전래(전통놀이)야 놀자! | 박현숙



조선시대의 정치와 교육제도



이 병 곤
횡성문화원 이사

1. 시작하며

오늘날 사회가 변화 발전해 나가는 속도를 말로 표현하자면 ‘쏟아진다’는 말이 적당할 것이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해가는 우리사회에서 교육은 앞으로의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차산업시대 이므로 옛 성현들의 가르침은 외면받게 마련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시대의 흐름은 기계적 인간이 되게하고 재산과 직업에 따라 빈.부 차이를 가져와 금수저, 흑수저란 말이 생겨나고 사람간의 연결 고리를 차단한 결과 각종 범죄의 증가로 인간 본성은 메말라 가고 있다.

인간은 ‘너’와 ‘내’가 어울려 이웃이되고 사회를 형성하여 이세상을 살아간다. 혼자서는 살아갈수가 없다.

너와 내가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그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지어 주는 것이 윤리이고 도덕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세상의 질서가 바로서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 길을 가다 잠시 쉬어가는 심정으로 과거 600년동안 우리 조상들의 교육이 어떠 하였는지 살펴보자.



2. 성균의 의미

성균이란 이기성기휴(以其成其虧)하여 성인재(成人材)하고 이균기과불급(以均其過不及)하여 균풍습(均風習)이라는 예기집설에 기인한다.

「그 부족한 것을 성취하여 인재가 되고나서 지나치거나 못미치는 것을 균형있게 다스려 아름다운 풍습을 끌고루 누리도록 한다」는 뜻이다.

3. 성균관의 유래

국가적 교육기관의 중심인 관학(官學)의 연원은 중국 고대부터 이미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순(堯.舜) 시대에는 상(庠)이라 하였고 하(夏)나라 시대에는 서(序)라 하였으며 상(商)나라 시대에는 학(學)이라 하였고 주(周)나라 시대에는 중앙에 천자(天子)의 학을 벽옹(辟雍)이라 하였으며 주변에 제후(諸侯)의 학을 반궁(泮宮)이라 하여 북쪽에는 상(庠) 동쪽에는 서(序) 서쪽에는 교(校) 남쪽에는 성균(成均)을 두어 이때부터 이미 사학(四學)의 체계를 갖추었다.



주나라(BC 1121년) 때부터 관료조직 체계도 확립되어 6경(총재 종백 사도 사공 사마 사구)이 있었는데 사도(司徒)가 바로 오늘날의 교육부장관 격이고 사구가 법무부 장관 격이다.

그 후 한(漢)나라 무제(BC 141)는 유학자 동중서를 중용하여 오경(五經)박사를 두어 태학(太學)을 설치(BC 136) 하였고 수나라 문제(601)때에 국자학(國子學)을 두었으며 당나라는 국자감(國子監)을 두었고 그후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국자감이란 명칭으로 국가중앙 관학의 중심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에 처음으로 태학을 설립하였고 신라 신문왕 2년(682)에는 당나라의 교육제도를 본받아 국학을 설립하였으며 경덕왕 6년(727)에 국학명칭을 태학감(太學監)으로 고쳤다가 혜공왕 12년(776)에는 다시 본래의 국학으로 환원하기도 하였다.

백제는 근초고왕 29년 (374)에 고흥이란 사람을 박사로 등용 했다는 설로 보아 고구려와 같은 태학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는 태조 3년(930) 서경(西京)에 학교를 세웠다고 전해지므로 개경에도 신라의 국학과 같은 교육기관이 있었고 성종 11년(992)에는 국자감이란 명칭으로 학사와 서재를 세워 전장(田庄)을 마련하여 관리하게 하므로서 교육기관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으며 그후 예종 4년(1109) 7월에 국자감 안에 7재(주역서경모시주례대례춘추무예)의 과목을 두고서 경서 교육을 담당 하였다.

고려후기 충렬왕(1298)에 다시 성균감(成均監)으로 바뀌었다가 충렬왕 34년(1308)에 또다시 오늘날의 성균관으로 개칭되어 조선(518년간)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2500년 동안 도통을 이어온 성현과 선사의 신위를 문묘에 봉안하고 석전을 봉행 하면서 학문과 전통을 계승하고 인재를 양성하면서 국가경영에 초석을 놓았다.

그러므로 수사학(洙泗) 정주학(程朱) 주자학(朱子) 성리학(性理) 유학(儒學)이란 명칭이 있는데 모두가 같은 뜻이며 수사학은 공자 맹자출신 지역의 강이름이고 정주학은 정자가 고취시킨 학문을 주자가 집대성 했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그러므로 유학의 집대성(集大成)은 공자이시고 성리학의 집대성은 주자이며 실학의 집대성은 정약용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주자학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고려 충렬왕 15년(1289)에 안향(安珦)이 중국 원나라에 들어가 주자전서를 필사하고 공자와 주자의 상(像)을 그려오므로 인하여 보급되었으며 안향은 국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섬학전(瞻學錢)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인재양성에 이바지하기도 하였다.

정치의 기본은 교육에 있고 교육의 기본은 인재 양성에 있다고 확신하고 국학을 융성발전 시킨 결과 백이정과 권부와 이색과 정몽주와 길재와 김종직과 같은 훌륭한 학자에게로 계승되므로 인하여 유학이 우리 민족의 학문과 정신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4. 조선의 정치체제와 교육

조선의 정치 체제는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 체제를 취하고 지방의 모든 행정은 중앙에서 파견하는 관료에 의하여 통치하였다. 양반 관료체제를 구축하고 문신이 주축이 되어 모든 정치 체제를 이끌어 갔다. 그리고 행정실무는 잡과를 통하여 선발한 관료를 두어 종사하도록 하였다.

조선사회체제는 신분제도가 있었다.

양반(兩班) 중인(中人) 양인(良人) 천민(賤民)으로 대별된다.

조선의 교육체제는 국가 지도 이념인 유학을 보급하고 연구하는 체제로서 국가에서 지대한 관심을 두었다. 유학으로 민풍을 순화하고 정무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도덕국가를 건설하는 의도였다.

첫째. 교육 체제의 확립기(태조~연산군 1392-1506)

조선의 왕권확립과 조선사회의 지배체제와 교육체제가 확립되는 시기로서 교육사상확립, 교육체제의 확장과 정비, 교육방법정비, 승유척불정책시행 과거제도 확립 시기이다.

둘째. 교육사상의 발전과 사학의 발달기(중종~경종 1506~1724)

전통적 훈구파와 사림에서 학문연구를 통하여 형성된 신진 사류사이에 이념적 투쟁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권력투쟁이 발생된다. 이시기에 성리학의 연구가 활발하여 대유학자인 서경덕 이황 이이 등을 배출 하였다. 관학은 쇠퇴하고 개인이 설립한 서원 교육에 주도권이 이전 되면서 서원의 교육이 크게 발전 하였다.

셋째. 실학 교육사상의 형성 및 발전기(영조~고종 1725~1876)

조선은 사화(士禍)와 당쟁(黨爭)으로 정치체제가 문란한 정치적 혼란기였고 임진왜란 병자호란으로 사회기강이 문란해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한 반성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실학사상이 대두하게 되었다.

넷째. 근대 교육의 형성기(고종~순종 1876~1910)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도입기이다. 외국의 문물을 도입수용하는 시기로서 서양의 교육사상,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접촉하게 된다. 서양식 학교가 건립되어 지고 조선을 침략하고자 하는 열강에 대항하는 민족교육운동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5. 과거제도

우리나라에 과거제도가 실시된 것은 고려 광종 9년(958)부터이다. 성균관은 유일한 국립대학교 격이고 4학(동,서,남,중)을 도성안에 두어 양반 자제들을 교육시켰으며 향교는 각 지방의 양반 자제들을 교육시켰고 각 마을에는 보통사람 자제들이 서당교육을 받으면서 1894년까지는 우리나라에 유학이 유일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전통 학문이라는 말이 절대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1894년 갑오개혁 때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1906년 학제개혁을 단행하였다. 각 도감영에서 실시하는 향시(鄕試)나 도성에서 실시하는 생진과 초시(生進科初試)를 조흥강(照訖講)이라고 하여 급제하면 조흥첩(照訖帖)을 주었는데 이것이 있어야만 생원 진사시에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이것이 과거 급제의 첫 관문이다.

이와 같이 지방과 도성에서 초시에 급제한 사람을 모아 4년마다 도성에서 생

원 100명 진사 100명씩을 배출하였고 이중에서 대과(大科)에 응시할 사람을 성균관에 입학시켰는데 대과응시 정원은 240명으로 초시급제는 100명이었고 대과급제는 33명으로 한정했다.

1. 초시(初試)급제 (도성과 지방 도감영 실시 238명 선발)

한성부 110명 충청도 25명 경상도 30명 전라도 25명
강원도 15명 황해도 10명 평안도 13명 함경도 10명

2. 생원, 진사 응시 및 급제 (생원 100명, 진사 100명 선발)

한성부 260명 충청도 90명 경상도 100명 전라도 90명
강원도 45명 황해도 35명 평안도 45명 함경도 35명

3. 대과 초시응시 (대과 초시합격100명, 대과 33명 선발)

성균관 50명 한성부 40명 경기도 20명 충청도 25명
전라도 25명 경상도 30명 강원도 15명 평안도 15명
황해도 10명 함경도 10명 (합 240명 응시)

※ 선발 인원 선정을 볼 때 한성부와 성균관은 우대하고 북쪽지역(지방)은 홀대한 것으로 판단됨.

4. 각.도.감영 실시

① 지방(관찰사주제)과 한성에 식년(式年) 자.묘.오.유(子 卯 午 酉)년인 전년(前年) 가을 8월에 초시(初試)를 시행하여 합격하면 조흘첩(照訖帖)을 주고 김초시 이초시라 불렀다.

② 식년(式年) 봄 2월에 한성(예조 주재)에서 생진시(生進試)를 시행하여 생원 100명 진사 100명을 합격시켜 백패(白牌)를 수여하고 하급관리에 등용하거나 성균관 입학 자격을 주었다.

- ③ 대과(大科) 초시는 식년(式年)전 가을에 한성부 및 도 감영(관찰사 주재)에서 전국에 240명을 선발 하였다.
- ④ 대과 복시(覆試)는 식년(式年) 봄(예조 주재)에 한성부에서 전국에 33명을 합격 시켰다.
- ⑤ 대과 전시(展試)는 복시에 합격한 33명을 다시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으로 등급을 정하여 갑과중 장원(종6품) 1명 2등, 3등 (정7품) 2명과 을과중 7명(정8품)과 병과중 23명(정9품)을 선발하여 벼슬을 주었다.

※ 과거는 위와 같이 5단계 식년(式年 子 午 卯 酉)에 시행하여 초시(初試)는 식년 전 가을 8월에 시행하고 복시(覆試)는 식년 되는 해 봄 2월에 시행하였다.

1) 소과(小科) 또는 생진과(生進科)	초시 : 238명 복시 : 생원 100명 진사 100명
2) 대과(大科) 또는 문과(文科)	초시 : 100명 복시 : 33명 전시 : 갑.을.병.등급지정

6. 향교의 유래

성균관과 향교는 성현의 학문과 전통을 계승하고 교육을 담당하며 인재를 양성하고 도통을 이어온 성현과 선사를 제향하는 곳이다. 특히 향교는 당시의 유일한 국립 고등교육 기관으로 유생들을 교육시켜 각 도별 감영에서 실시하는

초시(初試)에 합격한 다음에 중앙의 생원시와 진사시를 거쳐 대과(문과)에 급제하는 벼슬길의 관문이다.

향(鄉)은 수도를 제외한 지방 행정구역을 뜻하고 교(校)는 학교를 의미 하는 지방의 학교란 뜻이므로 절대적 종교로 오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향교가 설립된 것은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뒤 각 지역에 설립한 경당에서 비롯된다. 경당에서는 유학 경전을 가르쳤으며 문무를 겸비하여 교육이 이루어 졌다.

백제와 신라에도 유학이 융성하여 백제는 오경박사(五經)제도를 두었고 신라는 도성에 태학을 설립하였지만 지방에 학교를 세웠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향교의 설립은 고려 태조 13년(930) 평양에 향교를 설립하여 6부생(六部生)을 가르치고 문묘를 세워 성현께 제향을 올린 것이 시초이므로 이때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지방에 향교가 설립되기 시작 하였다.

이어 성종 6년(987)에 전국 12목(양주, 광주, 충주, 청주, 공주, 진주, 상주, 전주, 나주, 승주, 해주, 황주)에 학교를 설립하고 경학박사를 배치하였으며 각 고을마다 학사(學舍)를 세워 지방교육을 강화하였다.

그 후 인종 5년(1127)에는 각 고을에 학교를 세워 교육을 진작시킬 것을 명하였고 충숙왕 6년(1314)에는 이곡(李穀)을 고을로 파견하여 향교를 부흥토록 하였다.

향교가 전국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말 도입된 성리학(性理學)을 조선왕조가 창업 이념으로 내세우게 되므로 인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유교보다 늦게 전래된 불교가 오히려 대중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어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지만 안향(安珦)에 의하여 도입된 성리학이

유교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태조 이성계는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으로 즉위 원년(1392)에 각 도의 안찰사에게 명하여 학교의 수립여부로 수령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학교설립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태조의 정책을 이어받은 태종은 각 향교의 수확성과를 수령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삼았고 13년(1413)에 향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도록 학전(學田)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전국에 향교가 360개로 늘어나 교육체계가 완비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1592)과 병자호란(1636)이 일어나자 국가재정이 피폐해져 교육기관의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립교육기관인 서원(書院)이 각 지역에 설치되기 시작하여 전국에 걸쳐 378개소에 달하기까지 하였다.

처음에는 서원이 약화되었던 향교의 기능을 보완하기도 하였지만 조선중기부터 만연된 당파싸움이 서원의 유생과 연류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서원은 조정에서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제자를 양성한 양반학자들이 운영하였으므로 자연히 중앙의 정치와 교류되어 연관됨)

따라서 조선말기 대원군 대에 마침내 서원 철폐라는 정책을 맞이하게 된다. 서원이 당쟁의 근거지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서원 철폐와 동시에 외세의 침략이 잦았고 일제 강점기(1910)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국가 이념을 부정하고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하여 성균관을 경학원으로 강등시키고 향교역시 교육기관의 자격을 박탈하였다. 때문에 성균관은 국립대학의 면모를 잃고 경전을 교육하는 사설 전문학원으로 전락 하였으며 향교 역

시 문묘에 제향하는 기능만 허용되어 왔다. 그러므로 교육기능이 없다면 향교의 존재 의미를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다.

조선시대 지방향교는 지방 양반들의 자제가 다니는 곳이므로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지방수령인 현감이 종육품이고 향교의 책임자인 도유사(현재 전교)도 종육품으로 대등한 지위에 있어 향교의 위상이 높았으나 근대 서양교육이 들어오고 시대가 변하여 요사이의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노인들이 다니는 곳으로 인식할 정도이다.

7. 마치며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고이지신은 ‘지난 것을 복습하고 새것을 알다’ ‘옛것을 연구하여 새로운 것을 알다’로 풀이 하고 있습니다.

가이위사의는 ‘스승이 될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배운 것을 복습하고 거기다 새로운 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경쟁 사회로 내몰려 남을 생각하거나 옆을 살펴볼 기회조차 없이 오직 앞만보고 내달리는 시대가 되었으니 요즘 청소년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어떤이는 유학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고 하지만 유교는 절대 보수적이고 폐쇄적 이지도 않다. 주역에서 알수 있듯이 우주가 순행하며 변화하듯이 유학은 시대에 맞는 교육으로 향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젊은이들이 전통문화

를 배우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시기적절 하게 변화되는 철학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이 국.영.수 교육만 치중할게 아니라 자식들을 아끼고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성장하고 자식들에게 부모를 공경 할줄 아는 인간으로 성장하고 선조들의 아름다운 풍습과 예법과 현대가 함께 어울려 성장하길 바래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전통학문을 계승하여 4차 산업과 어울려지는 지식을 갖추어 자기 자신을 위해 마음 가짐을 다지고 남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끝을 맺는다.



數字로 본 東洋古典의 知慧

동양의 우주관에서 천간(天干)은 10글자, 지지(地支)는 12글자, 갑자(甲子)는 60글자로 되어있다. 서양의 아라비아 숫자는 발음은 다르지만 모양은 전 세계가 동일하다. 컴퓨터는 1과 0의 2진법으로 10진법의 사람과 대화를 한다. 음양오행(陰陽五行)은 2기운과 5가지 본성으로 되어있다. 옛날 사람들은 숫자 1은 남자를 뜻하고 2는 여자를 뜻한다고 생각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처럼 숫자 1과 2를 합한 숫자 3은 생명의 탄생을 뜻하는 완전한 수로 여겨졌다. 세상 모든 것은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완벽해진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이런 짝이 음과 양이다. 음과 양이 2글자에 기초를 하듯 숫자의 내용 구성은 동양 고전의 바탕이다.



현 원 명
(횡성향교교육원장)

1. 일 (一)

일각(一刻)은 한 시간의 1/4, 15분(分). 일명(一命)은 초사(初仕)
일세(一世)는 30년(年), 일순(一旬)은 10일(日), 일리(一里)는 360보(步).
일년 수곡(一年 樹穀) 십년 식목(十年 植木) 백년 수인(百年 樹人)
일구이무(一球二無) 한 번 떠난 공은 다시 불러들일 수 없다.

가.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 vs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

이기일원론은 만물의 존재가 이(理)와 기(氣)가 하나로 연결되고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理氣不相離). 율곡 이이(李珥)의 주장이다. 이기이원론은 이(理)와 기(氣) 2요소로 이루어져 서로 섞이지 않는다(理氣不相雜) 정호가 주창하고 주

II
향토문화순경

자(朱子)가 완성하였으며 퇴계 이황(李滉)의 주장이다.

나. 공자의 일생(一生)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15세에 학문에 의지를 가졌고, 30세에 자립하였으며, 40세에 모든 이치에 의혹하지 않았고, 50세에 하늘이 부여하신 천성을 알았으며, 60세에 남의 말을 들으면 순리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70세에 마음하고 싶은 대로 하였지만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다. 대화 一·二·三 법칙(敬聽)

대화의 1-2-3 법칙이 있다. 즉 자기의 말은 1분으로 하고, 상대방의 말은 2분 동안 들어주고, 3분 동안은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다. 聽(들을 청)은 귀 이(耳), 임금 왕(王), 열 십(+), 눈 목(目), 한 일(-), 마음 심(心)을 합한 것으로 귀를 왕의 말을 듣는 것처럼 활짝 열고, 눈을 열 배로 크게 뜨고 상대방과 시선을 맞추며, 마음을 상대방과 하나로 일치해서 들어야 한다.

2. 이(二)

이십사시(二十四時): 2시간 간격으로 11시(밤)에서 새벽 1시까지 자시(子時), 계시(癸時) 축시(丑時), 간시(艮時) 인시(寅時) 묘시(卯時) 을시(乙時) 진시(辰時) 손시(巽時) 사시(巳時) 병시(丙時) 오시(午時) 정시(丁時) 미시(未時) 곤시(坤時) 신시(申時) 경시(庚時) 유시(酉時) 신시(辛時) 술시(戌時) 건시(乾時) 해시(亥時)임시(壬時)의 순서이다.

불이문(不二門)

사찰에서 본당으로 가는 마지막 문. 진리는 둘이 아니다. 부처와 중생, 생과 死, 有와 無, 善과 惡 등 모두 근원은 하나이다. 불이(不二)는 中道(올바른 길)로 하나가 전체, 전체가 하나인 해탈문이다.

3. 삼(三)

삼가(三家)는 도가에서 몸(身) 마음(心) 뜻(意).

삼대(三代)는 고대 중국의 하(夏) 은(殷) 주(周) 3대 왕조.

삼례(三禮)는 의례(儀禮) 주례(周禮) 예기(禮記)

삼재(三才)는 천(天) 지(地) 인(人) 삼행(三行)은 양친(養親) 치상(治喪) 봉제사(奉祭祀)

삼족(三族)은 부계(父系) 모계(母系) 처계(妻系), 삼친(三親)은 부부, 부자, 형제

가. 충효에 三精神

충신(忠臣)과 열사(烈士)는 효도하는 가문에서 나온다. 모든 예절의 근본은 효도이다. 부모에 대한 충은 다른 말로 효이다. 효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의 본질이다. ‘효’란 ‘부모님을 사랑(愛)하며 공경(敬)하고 섬기는 것(事)이다.

* 孝 = 百行之本(源), 孝 = 愛+敬+事 ∴ 愛·敬·事 = 百行之本(源)

충효에는 3위1체로 3가지가 1가지 의미로 통합되고 동일시된다.

충(忠) = 효(孝) = 예(禮).

* 式年試: 조선시대 3년마다 정기적으로 과거시험 거행(문과 33명 무과 28명 선발). **통행금지**: 조선시대 새벽 4시 파루에 종각 33번 치면 야간 통행금지 해제, 밤 10시 인정(人定)에 28번 치면 통행금지 시행.

불교 우주관: 28개 하늘, 불국토는 도리천 33천의 세계.

나. 삼강령 팔조목(유교 기본이념) -대학

삼강령: 첫째, 재명명덕(在明明德)= 밝은 덕을 밝히는데 있고, 둘째, 재친민(在親民)= 백성을 새롭게 하는데 있고, 셋째, 지어지선(至於至善), 지극한 쉼에 머물러 있는데 있다.

팔조목: 격물(格物)= 사물의 이치를 究明하는 것. 致知= 지혜를 넓히는 것. 誠

意= 자기의 생각을 성실하게 하는 것. 正心=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修身= 자기의 德을 닦는 것. 齊家= 자기의 家庭을 整齊하는 것. 治國=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平天下= 天下를 和平하게 하는 것.

다. 삼강오륜(三綱五倫)

삼강(三綱):부위자강(父爲子綱)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군위신강(君爲臣綱)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부위부강(夫爲婦綱)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오륜(五倫):부자유친(父子有親)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어야 하고
 군신유의(君臣有義)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부부유별(夫婦有別)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장유유서(長幼有序)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어야 하고
 봉우유신(朋友有信) 벗과 벗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동양 삼대 사상가 : 공자, 맹자, 순자

서양 삼대 사상가 :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라. 삼(三)은 완전한 수(數)

(1) 일목삼착(一沐三捉) 일반삼토(一飯三吐)

“한번 머리감을 시간이라도 세 번 나가 인재를 만나라!

한 번 밥 먹을 시간이라도 세 번 음식을 뱉고 인재를 만나라!”

좋은 사람 인재를 만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주나라 주공(周公)은 인재
 를 등용하기 위해 그의 아들 백금에게 교만하지 말고 인재를 우대하라고 했다.

(2) 군자삼변(君子三變)

망지엄연(望之儼然) 즉연야온(卽之也溫) 청기언야려(聽基言也厲)

“멀리서 바라보면 엄숙한 사람, 가까이 다가가면 따뜻한 사람, 말을 들어보면 합리적인 사람”이 진정한 군자이다. 나는 한 가지 모습으로만 기억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야 한다. 엄숙함 따뜻함 논리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3) 오일삼성(吾日三省)

위인모이불충호(爲人謀而不忠乎) 여붕우교이불신호(與朋友交而信乎) 전불습호(傳不習乎) 남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친구와 신뢰를 다했는가? 새로운 배움을 완전히 습득했는가? 하루에 세 가지 반성 항목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

(4) 백석 삼여도(三餘圖)

중국의 제백석이 물고기 세 마리가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그리 멋이 있지도 않은데 왜 그리 유명하냐고 스승님께서 묻자 삼여(三餘)의 뜻을 표현한 그림이라 하였다. "어떤 사람이 동우(중국 위나라 사람)에게 배움을 청하자 책을 백 권만 읽으면 뜻이 저절로 통한다고 하자, 그 사람이 매일 쪼들리고 바쁘지 않은 날이 없어서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니 동우가 말하기를, 학문을 하는데 세 가지 여가(三餘)만 있으면 충분하다." 밤은 하루의 나머지 시간이고, 겨울은 일 년의 나머지이며,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은 맑게 갠 날의 나머지이다. -위지 왕숙전(魏志 王肅傳)중에서-

(5) 군자삼락(맹자) 외

군자(덕을 이룬 사람)로서 지니는 세 가지 즐거움

- 1) 양친이 다 살아 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
- 2)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보아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
- 3)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

(6) 군자 세 가지 경계(공자)

- 1) 청년기에는 혈기가 안정되지 않아 경계할 것이 여색에 있다.
- 2) 장성함에 이르러서는 혈기가 한창 강성하여 경계할 것이 싸움에 있다.
- 3) 늙음에 이르러서는 혈기가 쇠약하여 경계할 것이 얻으려는 마음에 있다.

(7) 유익한 세 가지 벗과 손해되는 벗(공자)

유익한 벗 :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견문이 많은 사람

손해되는 벗 : 치우치기를 잘하는 사람, 나약한 사람, 아첨하기 잘하는 사람

(8) 군자 세 가지 두려움(공자)

천명을 두려워하고, 대인을 두려워하며,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소인은 천명을 알지도 못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대인을 함부로 대하고, 성인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9) 순자의 세 가지 상서롭지 못한 것

나이 어리면서 어른 섬기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신분이 낮으면서 존귀한 사람 섬기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어질지 못하면서 어진 사람 섬기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람의 세 가지 상서롭지 못한 것이다. 상서롭지 못한 것은 재앙의 동기가 됨을 말한다.

(10) 이천 선생 ‘사람의 세 가지 불행’

“사람에게 세 가지 불행이 있으니, 소년시절에 높은 과거에 오르는 것이 첫째 불행이고, 부형의 권세에 힘입어 좋은 벼슬을 하는 것이 둘째 불행이며, 뛰어난 재능과 문장 있는 것이 때로는 셋째 불행이다.” 하였다.

(11) 세 사람, 네 가지 과목과 무(無)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이 길을 가다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나의 스승이 있는데 잘하는 사람의 것은 선택하여 따르고 잘 못하는 사람의 것은 고친다는 점이다. 공자께서는 네 가지 과목을 가르치셨는데 문학과 행실과 성실과 신의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네 가지는 절대 없으셨으니, 사사로운 생각이 없으셨고, 꼭 해야만 된다고 강요함이 없으셨으며, 우겨대는 일이 없으셨고, 나의 치우친 견해를 내세우는 일이 없으셨다.

(12) $3 + 4 = 4 + 3$

인생을 결산해보면 얻는 것과 잃은 것의 합은 같다. 인생초반에 얻는 것이 많은 사람은 후반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초반에 손해가 난 사람은 후반에서 이익을 얻는 수가 많다. 결국 모든 사람의 인생의 합은 제로라고 한다. 장자는 이를 조삼모사(朝三暮四)로 설명한다.

원숭이에게 도토리 먹이를 줄 때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주는 조삼모사나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주는 조사모삼이나 결국 합은 7개로 대동(大同)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조삼(朝三)이나, 조사(暮四)나를 따지며 기쁨과 분노를 교차하고 있을 뿐이다. 조삼이든 조사든 명실이 바뀐 것은 없다. 다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의 차이 즉 희로(喜怒)만 있을 뿐이다.

4. 사(四)

가. 사서삼경(四書三經)

사서(四書) : 대학(大學),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삼경(三經) : 시경(詩經), 서경(書經), 주역(周易)

육경(六經) : 시경(詩經), 서경(書經), 역경(易經) 춘추(春秋) 예기(禮記) 악기(樂記)

나. 사단칠정(四端七情)

맹자의 공손추장구 상에 나오는 사단(四端), 네 가지 단서, 실마리이다.

측은지심(惻隱之心)은 마음에 인(仁)이 있다.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수오지심(羞惡之心)은 마음에 의(義)가 있다.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사양지심(辭讓之心)은 마음에 예(禮)가 있다.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시비지심(是非之心)은 마음에 지(智)가 있다.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측은지심은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한 구석에 인애(仁愛)와 사랑이 있다.

수오지심은 부끄럽고 미워하는 것은 마음속에 정의롭고 올바름이 있다.

사양지심은 양보하는 마음으로 예(禮)를 지키는 덕이 자리 잡고 있다.

시비지심은 사물을 판단하는 지혜로서의 지(智)가 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칠정(七情)은 예기(禮記)의 예운(禮運)과 중용(中庸)에 나온다. 기쁨(喜) 노여움(怒) 슬픔(哀) 두려움(懼) 사랑(愛) 미움(惡) 욕망(欲)으로 인간의 감정을 총칭하는 인성론이다. 성리학에서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心性이 일치하는 天人合一의 명제로 인간의 도덕적 실천의 철학적 근거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다. 예의염치 국지사유(禮義廉恥 國之四有)

옛날 중국인은 한국을 군자국(君子國)이라고 칭하고 우리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전국 시대 제나라의 재상 관중(管仲)이 말했다. 예의염치 국지사유(禮義廉恥 國之四有), 예(禮), 의(義) 염(廉) 치(恥)는 나라를 지탱하는 네 개의 기둥이다. 조선왕조가 500년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예, 의, 염, 치라는 나라의 네 기둥이 튼튼했기 때문이다. 예절바르며, 정의롭고, 청렴을 실천하며, 부끄러워 할 줄 아는 마음을 말한다. 예절이 으뜸이며, 정의롭고, 청렴을 행하여 모든 일에 공명정대하고, 염치를 지키는 사람이 되면 민심은 관대한 법이다.

효제충신 시서예악(孝悌忠信 詩書禮樂)

효제충신은 한국 전통사회의 사회윤리 기본덕목으로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 우애있고 화목하며, 나라에 충성하고, 사람사이의 믿음을 존중하였다.**

시서예악(詩書禮樂), 과거 우리 조선은 **시경, 서경, 예절**, 음악의 나라였다.

특히 예절로서 中(옳고 예절바른 길), 음악은 和(화합)을 가르쳤다.

라. 퇴계 이황의 네 가지 신조

무불경(毋不敬) - 모든 일에 공경하지 않음이 없어야 할 것

신기독(愼其獨) - 홀로 있을 때 행동을 신중하게 할 것

무자기(毋自欺) -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 것

사무사(思無邪) - 생각에 사악함을 없앨 것

이 글은 모두가 일관되게 우리 삶에서 자신에게 정성을, 남에게 공경을 다하는 ‘경’의 의미를 실천하고 권장하는 내용이다.

마. 여자의 네 가지 행실

익지서에 말하기를 “여자는 네 가지 덕의 명예가 있으니, 첫째는 부녀자의 덕행(부덕)이요, 둘째는 부녀자의 용모(부용)요, 셋째는 부녀자의 말씨(부언)요, 넷째는 부녀자의 솜씨(부공)이다. 부덕은 분수를 지키며 행동에 부끄러움이 있어 동정에 절도가 있는 것. 부용은 의복을 깨끗이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함. 부언은 예의가 아니면 말하지 않고 말을 가려서 함. 부공은 맛있는 음식을 갖추어 손님을 받드는 것이다.

바. 상서학교(庠序學校)

맹자가 말하기를 “상(庠)·서(序)·학(學)·교(校)를 설치하여 가르침은 모두 인륜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하였으니 경전을 참고하고 현전을 살펴서 이편을

지어 어린 선비들을 가르치려고 한다. 맹자 원문에는 하나나라에서는 교, 은나라에서는 서, 주나라에서는 상이라고 했으며, 학은 삼대(하, 은, 주의 세 나라)가 공통이라고 하였고, 예기의 학기에는 "집에 숙(塾), 당(黨)에는 상이 있고, 주(州)에 서가 있으며, 나라에는 학이 있다." 하였으니 학은 국학이고 다른 것은 지방 학교이다.

사. 향약(鄉約) 4대 자치규약

우리 선조들은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사촌이 낫다."라고 하며 이웃의 중요성을 표현하였다. 이웃 간의 의가 상하지 않게끔 조심하고 행동을 삼가는 것이 필요하여 향약 같은 자치규약이 있었다.

덕업상권(德業相勸):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환난상휼(患難相恤):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

과실상규(過失相規): 잘못된 일이 있으면 서로 바로 잡아준다

예속상교(禮俗相交): 예절 바른 생활과 올바른 풍속으로서 서로 사귈다.

예절이란 남을 배려하는 생각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 이웃의 삶과 생활을 배려하는 예절의 정신을 지녀야 할 것이다.

아. 사환구풍(四患九風)

1800년 전 중국 후한 말기의 학자 순열은 한 나라의 근심 걱정을 불러들이는 사환(四患)과 구풍(九風)을 말했다.

사환이란 거짓말하는 것, 자기 잇속만 차리는 이기심, 무법과 무질서, 사치와 허영의 난무이다.

구풍(九風)

1. 치국지풍(治國之風)--나라의 기풍이 위아래가 없고 무례하며 다툼이 있고 게으르며 저마다 자기 일에 불평이 많다.

2. **쇠국지풍**(衰國之風) - 사회적 지위와 직분의 권위가 없고 관리는 백성을 우습게 알고 업신여기는 상태.
3. **약국지풍**(弱國之風) - 사람들이 신의가 없고 쾌락만 즐기고 아랫사람은 일을 찾아서 하지 않고 일을 맡기면 도망가는 상태.
4. **괴국지풍**(乖國之風) - 공과 이는 아래위가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고 책임은 서로 미루며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상태.
5. **난국지풍**(亂國之風) - 윗사람은 욕심이 많고 아랫사람은 불평이 많아서 정사에 통일된 주의, 주장 없이 중구난방의 상태.
6. **황국지풍**(荒國之風) - 세상에 사치가 풍미하고 관리는 오만불손하며 법은 있으나 마나한 상태.
7. **반국지풍**(叛國之風) - 공무를 빙자해 사익을 꾀하고 아랫사람 목 자르는 일을 권위로 알고 아부를 능력으로 아는 상태.
8. **위국지풍**(危國之風) - 아래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윗사람은 권력다툼, 아랫사람은 아부경쟁에 여념이 없는 상태.
9. **망국지풍**(亡國之風) -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정직한 말을 하지 않으며 모두가 자기 몸만을 사리는 상태.

자. 사자소학(四字小學)

생활 및 도덕 규범과 어른 공경하는 법 등 소년들을 가르치는 4권으로 내편(입교 명륜 경신 계고), 외편(가언 선행)은 성현 말씀과 선인들의 모범된 행실을 수록하였다. 소학은 송나라 주자(朱子)가 제자인 유자징에게 자라나는 소년들의 교육을 위하여 교열하고서 가필하였다고 한다.

5. 오(五)

오계(五季)는 후량(後梁) 후당(後唐) 후진(後晉) 후한(後漢) 후주(後周)

오상(五常)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오음(五音)은 궁상각치우(宮商角徵羽)
 오형(五刑)은 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 사형(死刑)
 오성(五聖) : 공자, 안자(안회:공자 수제자), 자사(공자의 손자), 맹자, 증자(증삼)

가. 유학(儒學) 5대 경전

논어(論語), 맹자(孟子), 소학(小學), 대학(大學), 명심보감(明心寶鑑)

나. 오사(五事)

옛 병법상(兵法上) 근본이 되는 다섯 가지 조건이다. 도(道)= 전쟁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한다, 천(天)= 외부 환경의 철저한 분석, 지(地)= 지형 조건(내부적 역량)의 분석, 장(將)= 현장 책임자의 인사 분석, 법(法)= 조직의 편성, 임무의 배분을 이른다.

다. 오미구상(五味口爽)

오미(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오색영인목맹(五色令人目盲) 오음영인이롱(五音令人耳聾) 오미영인구상(五味令人口爽) 난득지화영행방(難得之貨令人行妨)

화려한 색을 추구하면 인간의 눈은 멀게 된다. 세밀한 소리를 추구하면 인간의 귀는 먹게 된다.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면 사람의 입은 상하게 된다. 얻기 힘든 물건에 마음을 빼앗기면 사람의 행동은 무자비하게 된다.

라. 화랑오계(花郎五戒)

화랑 생활과 교육은 엄격한 계율과 지도 이념이 자랐는데 원광법사의 세속오계(화랑오계)가 삼국 통일의 원동력이 된 본보기이다.

사군이충(事君以忠)-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사친이효(事親以孝)- 효도로 아버이를 섬기고

교우이신(交友以信)- 신의로 벗을 사귀고

임전무퇴(臨戰無退)- 싸움에 임하여서는 물러서지 말며

살생유택(殺生有擇)- 산 것을 죽일 때는 가려서 죽일 것

화랑세기에 말하기를 어진 장군과 용맹한 군사가 화랑도 오계에서 나왔다고 한다.

마. 오십보 백보

오십 보 도망한 자가 백보 도망한 자를 비웃는다는 뜻으로, 조금 낮고 못한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말한다. 맹자의 비유를 들어 말했다.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갑옷과 투구를 던져 버리고 도망을 쳐서 백보쯤 가서 멈추었습니다. 또 다른 병사는 오십 보쯤 가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백보 도망친 사람을 겁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왕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십보나 백보나 도망친 것은 마찬가지로 아니오?

바. 오상(五常)

동양의 선철(先哲)은 **인(仁)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도덕의 근본, 행동의 지표로 삼았다. 사람은 어질고 의롭고 예절바르며 지혜롭고 신의가 있어야 한다.

五常은 인간의 심성의 근원적인 요소로서 개개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수양 덕목이다. (동대문: 興仁門, 서대문: 敦義門, 남대문: 崇禮門, 북대문: 弘智門, 普信閣) : 우리의 국보 제1호 남대문을 숭례문(崇禮門)으로 예절을 숭상하는 문이었다. 동대문을 흥인문(興仁之門)이라고 하였다. 인을 일으키는 문이다. 흥인과 숭례는 인을 일으키고 예절을 숭상하자는 뜻이다. 또한 인(仁)을 실천하기 위해 **공관신민혜(恭寬信敏惠)**, 공손 관용 믿음 민첩 은혜가 필요하다.

사. 천하오달도 삼달덕(天下五達道 三達德) -중용

세상에 두루 통하는 도는 다섯 가지고, 행하여지게 하는 것은 세 가지, 지인용

(智仁勇)으로 군신과 부자와 부부와 형제와 친구 사귀는 것 등 다섯 가지는 세상에 공통되는 도리이다. 지혜와 사랑과 용기(智仁勇), 지(智)는 아는 지혜, 인(仁)은 행동하는 양심, 용(勇)은 노력하는 용기 등 세 가지는 세상에 공통하는 덕목으로 이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한 가지 성(誠), 즉 성실한 노력과 정성이다. 천하의 달덕, 지인용(智仁勇)이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미혹되지 아니하고, 어진 자는 근심하지 아니하며, 용맹한 자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고 하셨다.

6. 육(六)

육경(六卿)은 家宰(국무) 宗伯(의전) 司徒(교육) 司馬(병무) 司空(토지) 司寇(법무)
 육예(六禮)는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
 육친(六親)은 부, 모, 형, 제, 처, 자(신)

가. 송나라 육현(六賢)

육현(六賢): 주돈이(성리학 비조), 정호(明道 선생), 정이(북송 유학자), 소옹(송나라 학자), 장재(관학 창시), 주자(성리학 집대성)

나. 육도 삼략(六韜三略)

육도와 삼략은 춘추전국시대의 병법서이다. 문왕과 강태공(강상)이 만나 정치군사에 관한 문답 형식이다. 육도는 태공망(강태공)이 지었다고 함. 무왕은 문왕의 아들로 주나라를 창건함.

육도(六韜): 문도(文韜), 무도(武韜), 용도(龍韜), 호도(虎韜), 표도(豹韜), 견도(犬韜)
 삼략은 진(秦)나라 황석공(黃石公)이 지었다고 함. 무경칠서의 하나로 노자(老子)의 사상을 기초로 하여 정략(政略), 전략(戰略)의 도(道)를 서술하였다.

상략(上略), 중략(中略), 하략(下略)의 세 권으로 되어 있다.

다. 육서(六書)

한자의 구조 및 사용에 관한 여섯 가지의 명칭이다. 상형(象形) 지사(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 전주(轉注) 가차(假借)를 이른다. 한자의 여섯 가지 서체(書體)로 대전(大篆) 소전(小篆) 예서(隸書) 팔분(八分) 행서(行書) 초서(草書)이다.

육서심원(六書尋源)은 조선말기 학자 권병훈이 지은 자전(字典)과 자학(字學)을 겸한 책으로 한자의 구성원리와 법칙을 연구 분석한 것으로 자수(字數)가 6만여에 달한다. 1938년에 간행하였으며 주해(註解)와 연역(演繹)에만 그치지 않고 독창적인 견해가 있다.

라. 육불치(六不治)-사기(史記)

사마천이 쓴 사기의 편작열전(扁鵲列傳)에 보면 어떤 명의도 고칠 수 없는 여섯 가지 불치병이 있다.

첫째, 환자가 교만 방자하여 내 병은 내가 안다고 주장하여 의사의 진료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그 병을 고칠 수 없다.(驕恣不論於理 一不治也)

둘째, 재산과 명예만 중시하여 자신의 몸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그 병을 고칠 수 없다.(輕身重財 二不治也)

셋째, 지나치게 음식을 탐하고 편안한 것만 쫓는 환자는 어떤 명의라도 병을 고칠 수 없다.(衣食不能適 三不治也)

넷째, 음양의 평형이 깨져서 혈액의 소통이 단절되어 五臟(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의 기(氣)가 안정되지 않는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되어 병을 고칠 수 없다(陰陽屏臟 氣不定 四不治也)

다섯째,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기본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도저히 어떤 어떤 병도 고칠 수 없다.(身衰弱不能服藥 五不治也)

여섯째, 신비적이고 주술적 치료에 더 매달리고 의사를 믿지 못하는 환자는 어떤 병도 고칠 수 없다(信巫不信醫 六不治也)

7. 칠(七)

칠웅(七雄)은 진(秦) 초(楚) 연(燕) 제(齊) 조(趙) 위(魏) 한(韓)

가. 전국시대 7웅

전국시대 중국이 패권을 놓고 전쟁을 한 7대 강국을 전국 7웅이라 한다.

전국시대에 있었던 진(秦), 초(楚), 연(燕), 제(齊), 한(韓), 위(魏), 조(趙)나라 등이다. 동국의 제, 남방의 초, 서방의 진, 북방의 연, 중앙의 위, 한, 조 나라이다. 진(서쪽)과 다른 6국(동쪽)이 대치하여 전쟁을 벌여 이 중 진(秦)나라는 BC 221년 천하를 통일함

나. 무경칠서(武經七書)

중국 춘추시대 병법서로 고도의 병법은 세상의 달덕(達德)으로서 지(智) 인(仁) 용(勇)의 유학에 근간을 두고 있다. 전략을 경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육도(六韜), 삼략(三略), 손자병법(孫子兵法), 오자(吳子), 사마법(司馬法), 율료(蔚繚子), 이위공문답(李衛公問答)

다. 칠계(七計) — 손자병법

칠계: 첫째, 최고 리더의 리더십을 비교하라. 둘째, 장군의 능력을 비교하라. 셋째,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을 비교하라. 넷째, 법령과 조직 시스템의 실행력을 비교하라. 다섯째, 무기의 위력과 병력의 숫자를 비교하라. 여섯째, 평소 훈련 정도를 비교하라. 일곱째, 상벌체계의 공평한 운영을 비교하라. 백번 싸워 모두 이기는 것보다 백번 모두 지지 않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이다.

라. 칠정산(七政算)

세종대왕이 편찬한 최초의 역법서로 시간을 측정하는 책력(달력)이다. 칠정이

란 해,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등 7 개의 별이다. 농경사회 특성상 하늘에 올리는 국가 의례가 있어 일식, 월식이 중요했다. 세종29년 이순지는 별의 위치를 계산하여 한 치의 오차 없는 칠정력을 만들어 조선은 천문학 강국이 되었다.

8. 팔(八)

팔대가(八大家)는 당의 한유 유종원, 송의 구양수 왕안석 증공 소순 소식 소철.

가. 주역(周易) 8괘

유교 경전(經典)으로 역(易)은 천지자연 현상과 인간의 길흉화복을 나타낸다.

태극 → 음양의 두 기운(氣運) → 8괘(八卦) : 건(乾) 태(兌) 이(離) 진(震) 손(巽) 감(坎) 간(艮) 곤(坤) → 64괘, 괘사 효사로 구성된다.

자연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나 그 원칙은 영원불변하고 인간사에 적용시킨다.

나. 인생팔미(人生八味)

인생을 완성시키는 8가지 맛, 인생의 참맛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다. 인생의 참맛은 평범한 일상에 있다.

일미(一味)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음식(음식미)

이미(二味)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일하는 직업의 맛(직업미).

삼미(三味)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풍류의 맛(풍류미)

사미(四味) 만남의 기쁨을 얻기 위해 만나는 관계의 맛(관계미)

오미(五味) 봉사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봉사의 맛(봉사미)

육미(六味) 늘 무언가 배우며 성장해감을 느끼는 배움의 맛(학습미)

칠미(七味) 정신과 육체의 균형을 느끼는 건강의 맛(건강미)

팔미(八味) 자신의 존재를 깨우치고 완성하는 인간의 맛(인간미)

다.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고려는 불교 국가이다. 고려 고종 23년(1236)부터 38년(1251)까지 완성한 대장경으로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만들었다. 경판의 수가 8만 1258판에 이르며 국보 32호로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9. 구(九)

구족(九族) : 고조, 증조, 조부, 부모, 자기, 자녀, 손자, 증손, 현손(고손)

구천(九天)은 중앙(鈞天) 동쪽(蒼天) 서쪽(昊天) 남쪽(炎天) 북쪽(玄天) 동남쪽(陽川) 서남쪽(朱天) 동북쪽(變天) 서북쪽(幽天)

99칸은 방이 99개가 아니고 집의 칸수(정면 칸수 · 측면 칸수)가 99이다. 목조 건축의 몇 칸(間)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다.

가. 군자 9 가지 생각 -공자

볼 때는 분명하게 볼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총명하게 들을 것을 생각하며, 낮빛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외모는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하며, 말은 진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며, 의심나면 질문할 것을 생각하고, 분할 때는 곤란해질 것을 생각하며, 이득을 보면 옳은 것인지를 생각해야만 한다.

나. 천하구경(天下九經)

대체로 세상과 국가를 다스리는 데 아홉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심신을 수양함, 어진 분을 존경함, 친족을 친하게 대함, 대신을 공경함, 여러 신하들의 보살핌, 서민을 자식처럼 사랑함, 온갖 전문가를 오게 함, 먼 나라 사람을 부드럽게 대해줌, 제후를 품어주는 일 등이다.

다. 구사 구용(九思 九容)

九 구 사 : 아홉 가지 생각

- 시사명(視思明) : 눈으로 볼 때는 분명하게 보려고 생각한다.
- 청사총(聽思聰) : 귀로 들을 때는 그 참뜻을 밝게 들으려고 생각한다.
- 색시온(色思溫) : 표정을 지을 때는 온화하게 하려고 생각한다.
- 모사공(貌思恭) : 모습은 공손하게 하려고 생각한다.
- 언사총(言思忠) : 말을 할 때는 참되고 정직하게 하려고 생각한다.
- 사사경(事思敬) : 일을 할 때는 공경스럽고 정신을 집중하여 하려고 생각한다.
- 의사문(醫思問) : 의심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배우겠다고 생각한다.
- 분사난(忿思難) : 분하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나중에 곤란하게 될 것을 생각하여 행동한다.
- 견득사의(見得思議) :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보면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

九 구 용 : 아홉 가지 모습

- 족용중(足容重) : 발을 옮겨 걸을 때에는 신중하게 한다. 그러나 어른의 앞을 지날 때와 어른의 명령으로 일을 할 때는 민첩하게 한다.
- 수용공(手容恭) : 손의 모습은 공손하게 한다. 일이 없을 때에는 두 손을 모아 공손하게 공수(拱手)한다.
- 목용단(目容端) : 눈을 단정하고 곱게 뜬다. 치뜨거나 결눈질을 하지 않는다.
- 구용지(口容止) : 입은 조용히 다물어야 한다. 말하지 않을 때 입을 벌리거나 어른 앞에서 껌 같은 것을 씹으면 안 된다.
- 성용정(聲容靜) : 목소리는 나직하고 조용하게 해야 하며 시끄럽거나 수선스럽게 하지 않는다.
- 두용직(頭容直) : 머리를 곧고 바르게 가져 의젓한 자세를 지킨다.
- 기용숙(氣容肅) : 호흡을 조용히 고르게 하고 안색을 평온하게 해서 기상을 엄숙하게 갖는다.
- 입용덕(立容德) : 서 있는 모습은 그윽하고 덕성이 있어야 한다. 기대거나 비뚤어진 자세는 천박하게 보인다.
- 색용장(色容莊) : 얼굴 표정은 항상 명랑하고 씩씩하게 갖는다.

10. 십(十)

십장생(十長生): 일(日) 산(山) 수(水) 석(石) 운(雲) 송(松) 불노초(不老草)
구(龜) 학(鶴) 녹(鹿)

天干(10): 10글자로 십간(十干), 하늘 상징 부호, 10년마다 1번씩 돌아옴.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
4	5	6	7	8	9	0	1	2	4

가. 주자십회(朱子十悔)

열 가지 모든 일에는 항상 때가 있고 때를 놓치면 뉘우쳐도 소용없다. 사후청심환, 사후약방문, 유비무환 망양보퇴 등과 통한다.

1. 不孝父母死後悔(불효부모사후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해도 늦으니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

2. 不親家族疏後悔(불친가족소후회)

가족에게 친하게 대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뉘우친다

3. 少不勤學老後悔(소불근학노후회)

젊어서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뉘우친다

4. 安不思難敗後悔(안불사난패후회)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한 뒤에 뉘우친다. 편안할 때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

5. 富不儉用貧後悔(부불검용빈후회)

재산이 풍족할 때 아껴쓰지 않으면 가난해진 뒤에 뉘우친다.

6. 春不耕種秋後悔(춘불경종추후회)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뉘우친다.

7. 不治垣牆盜後悔(불치원장도후회)

담장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도둑맞은 뒤에 뉘우친다.

8. 色不謹慎病後悔(색불근신병후회)

여색을 밝히다 건강을 잃으면 회복할 수 없다.

9. 醉中妄言醒後悔(취중망언성후회)

술에 취해 망령된 말을 하고 술 깬뒤에 뉘우친다.

10. 不接賓客去後悔(부접빈객거후회)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떠난뒤에 뉘우친다. 가고 난 뒤에 후회해 보았자 이미 늦었다는 말이다.

나. 공문십철(孔門十哲)

중국 고대의 성현인 공자(公子)의 뛰어난 10명의 제자들이다. 혼이 덕행(德行) 언어(言語) 정사(政事) 문학(文學)인 사과(四科)의 십철(十哲)이라고도 한다.

德行의 십철(十哲)은 안회(顔回) 민자건(閔子騫) 염백우(冉伯牛) 염옹(冉雍), 언어에는 재아(宰我) 자공(子貢), 政事에는 염구(冉求) 자로(子路), 문학에는 자유(子游) 자하(子夏)가 뛰어났다.

다. 성학십도(聖學十圖)

성학은 유학으로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이황의 《성학십도》는 17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선조에게 68세의 노대가(老大家)가 바로 즉위 원년에 올렸던 소였음을 감안할 때, 선조로 하여금 성왕(聖王)이 되게 하여 온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도록 간절히 바라는 우국충정에서 저술되었다.

〈성학십도〉를 올리는 이유

1. 태극도 -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라
2. 서명도 - 천지 만물과 하나가 되어라

3. 소학도 - 일상적인 일에 충실하라
4. 대학도 - 수신으로부터 시작하라
5. 백록동규도 - 인간이 되는 학문을 하라
6. 심통성정도 - 마음을 바르게 해라
7. 인설도 - 인을 본체로 삼아라
8. 심학도 - 잃어버린 본심을 찾아라
9. 경재잠도 - 경의 세부 사항을 실천하라
10. 숙흥아매잠도 -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라

라. 무왕(주왕조)의 십도(十盜)

곡식이 익은 것을 적기에 거두어들이지 않는 것이 첫째 도둑이요, 거두어 쌓는 것을 마치지 않는 것이 둘째의 도둑이요, 일 없이 등불을 켜놓고 잠자는 것이 셋째 도둑이요, 게을러서 밭 갈지 않는 것이 넷째 도둑이요, 공력을 들이지 않는 것이 다섯째 도둑이요, 교묘하게 해로운 일을 멋대로 하는 것이 여섯째 도둑이요, 딸을 많이 키우는 것이 여덟째 도둑이요, 낮잠 자고 유흥을 즐기는 것이 아홉째 도둑이요, 억지 부려 시기하는 것이 열째 도둑이다.

11. 무극도(無極圖) ‘ㅇ’ 도덕경(道德經)

중국 도가철학 시조 노자(老子)가 저술한 책. 도덕경은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으로 자연의 이치가 천도(天道), 상도(常道)로서 거짓과 인위적(人爲的)인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도는 무위(無爲)이다. 도가 자연이고 자연이 도이다.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높다 낮다’는 인간의 人爲的 비교로 만든 언어의 상대적 개념이다. 천하 만물은 유(有)에서 생기며 유는 무(無)에서 생긴다. 무는 음양(陰陽)의 두 기운이 하나로 조화롭게 통일된 것이다. 무극도(無極圖) ‘ㅇ’은 없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근원적 상태이다.

12. 손자병법(Ⅰ) 13편

시계(始計)- 전쟁은 이겨놓고 시작한다. 이길 자신이 없으면 시작하지 않는다.

작전(作戰)- 전쟁, 오래 끌면 헛장사이다.

모공(謀攻)-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정한 승리다.

군형(軍形)- 이기는 싸움만 한다.

병세(兵勢)- 싸움은 세가 결정한다. 세는 만들어낼 수 있다.

허실(虛實)- 선택과 집중이다. 모든 곳을 지키면 모든 곳이 약해진다.

군쟁(軍爭)- 지름길은 없다. 싸움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한다.

구변(九變)- 장수는 智 信 仁 勇 嚴으로 적을 약화시킨다.

행군(行軍)- 본질은 숨어있다. 입장 바꿔보는 것이 정답이다.

지형(地形)- 패전의 이유로 모든 요소를 고려대상에 넣어야 한다.

구지(九地)- 본심을 들키면 진다.

화공(火攻)- 얻는 게 없으면 나서지 않는다.

용간(用間)- 아는 게 힘이다. 적을 아는 것이 승부의 핵심이다.

13. 손자병법(Ⅱ) 인생 13계

초윤장사: 주춧돌이 젓어 있으면 우산을 펼쳐라. 상대의 작은 언행, 사소한 조짐에서 결과를 예측하라.

교토삼굴: 똑똑한 토끼는 3개의 은신처가 있어 위기에서 벗어날 대안이 있다.

득어망전: 물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을 잊어라. 기존의 수단과 지식을 버려야 새 기회가 찾아온다.

쾌도난마: 복잡할 때 한 칼로 끊어라. 생존을 위해 결단과 돌파능력이 필요하다.

공성신퇴: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

위위구조: 조직은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유기체로 그 연결코드를 읽어라.

차도살인: “나의 칼을 받으라”며 칼을 빼어드는 당신은 하수. 갈등해결과정에

서 자신의 역할을 최소화하라.

화광동진: 내 광채를 낮추고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라. 권위주의, 영웅주의는 버려라.

난득호도: 때로는 바보처럼 보여 상대의 허를 찾는다. 매도 먹이를 채려고 할 때 날개를 움츠리며 나직이 난다.

장수선무: 소매가 길면 춤도 예쁘다. 외모, 말씨, 이미지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다.

비위부전: 위급상황이 아니면 싸우지 마라. 자존심으로 무리한 결정을 내리면 안된다. 최고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주위상책: 역량이 안되면 후퇴로 적을 유인해 승리의 기회로 전화시킬 수 있다.

이이제이: 적을 통해 적을 제압하라. 상대방과 역학관계를 만들어 그들끼리의 경쟁을 통해 나의 이익을 유지하라

14. 우리나라 18현(賢)

설총(국학을 세움), 최치원(신라 유학자), 안향(주자학 도입), 정몽주(향교 설립), 김굉필, 정여창(성리학 계승), 조광조(개혁정치 주장), 이언적, 이황(퇴계 理氣이원론), 김인후(조선 중기 문신), 이이(理氣이원론), 성혼(성리학자), 김장생(家禮 보급, 조헌, 김집, 송시열(북벌, 백성을 위한 정치), 송준길(생활예절 공헌), 박세채(師弟 관계와 교류에 역점)

15. 유교의 배움(學)

학(學)이란 아름답고 위대한 본성(本性)의 체현(體現)이다. 머리, 언어가 아닌 몸의 체험으로 느끼고 알고 드러내는 것이다. 본성(本性)은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악(樂),경(敬),성(誠)의 면모를 갖추는 일이다. 大學에서 본성적 면모를 명덕(明德) 즉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 배움의 길이라고 명시한다. 본립도

생(本立道生), 근본이 바로 서야 인간의 도리(道理)가 나온다.

배우는 사람이 공부하는 것은 약을 삶아서 익히는 연단(煙丹)과 같아 먼저 100여근의 숯불로 한 번에 달구고 나서 약한 불로 잘 달여 완성할 수 있다. 센 불을 피워 먼저 끓인 후에 약한 불로 서서히 익히지 않고서 바로 약한 불로 달이려 하니 어떻게 이를 수 있겠는가? 학문은 사물을 삶아 익히는 것과 같다.

16. 묵학(墨學)과 후흑학(厚黑學)

묵자(墨子)는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로 墨家의 시조이다. 묵학의 핵심은 겸애 군축 절용(兼愛 軍縮 節用)이다. 겸애(兼愛)로 나와 타인을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늘이 모든 백성을 구별없이 평등하게 사랑하듯 우리도 다른 사람을 차별없이 사랑하자는 것이다. 또한 전쟁은 하늘의 뜻에 위배되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절약 검소 절제가 묵자의 강력한 실천 덕목이다. 묵자는 겸애사상, 평화주의, 절약정신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일로매진하였다. 墨家は 儒家, 道家와 함께 중국 3대 사상의 하나이다.

1912년 중국 리쑹우가 제창한 후흑학(厚黑學)은 면후(面厚)와 심흑(心黑)을 합성한 말이다. 면후는 뻔뻔함을, 심흑은 음흉함으로 거짓말과 속임수이다. 그러나 긍정과 희망의 철학이다. 중국의 조조처럼 뻔뻔하고 유비처럼 흉한 인물들의 군웅할거 시대에는 공자 맹자처럼 거짓말과 속임수를 무조건 거부하라는 것도 아니다. 조조와 유비로부터 거짓말과 속임수를 만들어 낼 때 나오는 피와 재치를, 공자와 맹자로부터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단호하게 부정할 수 있는 정신의 힘을 배우라는 말이다.

청백리 사상

조선왕조 500년 청렴결백의 청백리 사상이 국가의 정신 지주였다. “나라를 첫째로, 남을 둘째로, 나를 끝으로 하라!”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목포지역에서 강

제로 수탈한 一黑三白, 1흑은 김, 3백은 쌀, 소금, 면화였다. 국가를 먼저 사랑할 이유였다. 愛國 護國 興國이다. 재물, 이익에 밝은 小人보다 仁義, 正義에 밝은 군자로 살자. 군자는 도덕적인 인간의 표준이다. 군자지덕풍(君子之德風) 소인지덕초(小人之德草)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 풀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옆으로 눕게 된다. 지도자가 바람이면 백성은 풀이다.

17. 숫자로 본 동양고전의 기대효과

세종시대 천문학자 이순지는 서양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보다 최소 200년전 15세기에 일식 월식을 정확히 관측하였다. 일식은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으로 하늘이 왕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였다. 이순지는 국가 프로젝트인 조선의 달력을 만들었다. “1447년(세종29년) 음력 8월1일 오후 4시 50분 27초에 일식이 시작되어 그날 오후 6시 55분 53초에 끝날 것이다.” 이 예측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였다. 또한 1444년 이순지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을 365일 5시간 48분 45초로 계산했다. 570년 지난 현대 물리학 계산으로 단 1초 차이였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선조들의 숫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양고전 지혜의 개가였다.

음(陰)		양(陽)	
지(地), 월(月)	땅, 달	천(天), 일(日)	하늘, 해
여(女),	여자	남(男)	남자
우(右), 우수(偶數)	오른쪽, 짝수	좌(左), 기수(奇數)	왼쪽, 홀수
수(水), 사(死)	물, 죽다	화(火), 생(生)	불, 살다
집(集), 정(靜)	모임, 고요함	산(散), 동(動)	흩어짐, 움직임

음양오행(陰陽五行)은 우주 법칙이고 인생의 법칙이다. 해와 달의 운행이 음양오행이고 인간이 태어나 죽는 과정이 음양오행이다. 현대과학은 동양철학의

근본인 음양오행의 사상으로 컴퓨터 공학, 물리학, 화학에 응용하고 있다.

음과 양은 순환적으로 음속에 양이, 양속에 음의 성질이 포함되어있고, 목-화-토-금-수라는 오행(五行)을 탄생시켰다. 숫자 1과 2를 합한 숫자 3은 생명의 탄생을 뜻하는 완전한 수로 여겨졌다. 세상 모든 것은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완벽해진다. 자연이 음과 양의 두 숫자에 기초를 하듯, 四字成語를 비롯한 모든 동양 고전은 숫자에 기반을 두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고 의미를 간단하게 집약하여 지혜와 교훈을 주는 글이다.

동양고전은 우주, 자연, 인간을 위한 지혜의 마중물, 시대의 나침반이고 수많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승화시키며 국운융성과 생존의 열쇠이다. 동양고전은 우리의 얼굴이고, 인성교육의 바탕이며, 바르게 살기 운동이자, 동방예의지국을 되찾는 지름길, 인생 학습의 교과서이다.

전래 (전통놀이) 야 놀자!!!



박현숙



달떠온다 달떠온다 강강술래
동해동창 달떠온다 강강술래
전 달이 누 달인가 강강술래
강호방네 달이라고 강강술래
강호방은 어디가고 강강술래
전 달 뜬 줄 모르는가 강강술래

※ 강호방 : 강씨 성을 가진 호방(안을 담당하는 지방벼슬)

전통놀이 하면 이렇듯 강강술래가 먼저 떠오른다.

나 어릴적, 가을 운동회에서 필수적으로 뛰어놀던 고학년 전체 무용, 어떤 의미도 모른채 신나하며 얼굴이 까맣게 타도록 연습하고, 연습하고 드디어 운동회날 머리에 청군 백군 띠만 두른 채, 열심히 최선을 다하던 모습이 그립다.

공기놀이, 고무줄 놀이, 술래잡기, 딱지치기, 자치기, 손유희, 호드기 불기, 오재미 놀이, 새총노리, 제기차기, 팽이치기, 두꺼비집짓기놀이, 실뜨기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것 같다.

이런 놀이를 하다보면 어느덧 땅거미가 지고, 엄마가 목청껏 “현숙아~~ 저녁 먹어라”

부르시고, 다른 친구들도 엄마, 아버지, 할머니가 부르시는 소리에 해지는줄 모르고 놀다가 내일 약속도 하지않고 집으로 내 닷는다.

그래도 내일이 오늘 되면 마당 너른 집에 약속이나 한 듯 동네 아이들이 모여 갖가지 놀이에 정신이 없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흙과 놀고 뒷동산, 졸졸 흐르는 앞내 개울을 놀이터 삼으며, 우리는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났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 지루하기라도 하면, 아카시아 잎으로 가위, 바위, 보로, 한 잎 한 잎 따버리며 깔깔 거리던 유년의 그리움이 마음속에 가득하다.

오늘날에는 이런 전래놀이가 살아지고 여가를 즐기는 각종 놀이와 게임이 많아지고, 과학의 발달과 함께 정보화 시대에 특히 가상 현실 속에서 게임에 빠지는 등, 게임중독과 신체적 부작용등이 일어 나고 있으며 사이버상에서 게임이 현실에서까지 제기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밝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전한 놀이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창의전래놀이 협회가 점점 확산되고, 전래놀이를 창작하여 다양하고 재미있게 바른 인성을 갖는 노력들이 다양하다. 이런 놀이는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노인, 치매노인들까지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어 자녀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인성을 길러주며 창의력을 키워 나간다.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창작할 수 있어 훨씬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필자도 도전하여 「전래놀이지도자 1급 자격증」을 획득하여 뿌듯하고 어린시절로 돌아간 듯 추억들을 마냥 꺼내 보았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체득하여 바른 인성을 갖게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한 경쟁 속에 이기는 방법 보다는 양보하는 미덕을 배우게 하고, 양보해서 이길 수 있는 놀이를 통해, 진리를 스스로 깨치게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아이들이 어떤 놀잇감을 가지고 노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놀이를 권장하느냐에 따라 행복한 가정의 구성원인 아름다운 가족으로 유산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래놀이는 정말 즐겁고 재미있다.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전래놀이는 여러 가지가 있다.

민속놀이는 민속의 날, 정해놓은 놀이이고, 우리 민족 고유의 보존 가치가 있는 놀이를 전통 놀이라 한다.



전래놀이는 민속놀이와 전통놀이를 포함하여 전해오는 놀이를 말한다.
 다른 나라의 것이 섞인것도 있으며, 모방하거나 창조된 것이 특징이다.
 전래놀이는 몸의 성장과 건강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전래놀이는 정서를 순화하고 삶의 지혜를 얻는데 도움을 준다.
 전래놀이는 바른인성을 길러주고 창의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전래놀이는 성장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버리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고,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전래놀이는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전래놀이의 보급효과는 참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수업시간에 금지하고 핸드폰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급 부상되고 있다.

전래놀이를 보급함으로써 초등 방과 후, 전래놀이 교사를 파급하고 있고, 경로당 전래놀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래놀이 교사를 등용하고, 가족들간의 전래놀이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점차적으로 전래놀이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어가고 있다.

옛날 아이들은 뭉쳐서 똥구르며, 놀며, 싸우며, 서로 위하는것과,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와 협동심을 놀이에서 인성을 키워 가고, 자아형성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익혀간다.

요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혼자 놀고, 혼자 학원가고, 게임하고, 혼자 컴퓨터 하고, 혼자 장난감 가지고 놀고, 게임에서는 칼과 창, 총으로 싸우고, 심지어 죽이며, 나쁜 심성이 자기도 모르게 깃들여지며 핸드폰이 없으면 의지를 못한다. 친구들과의 대화두절. 둘이 있어도, 셋이 있어도 그저 핸드폰.

심지어 요즘 엄마들은 친구와 어울리는것조차 싫어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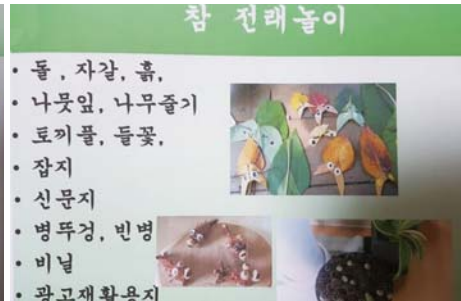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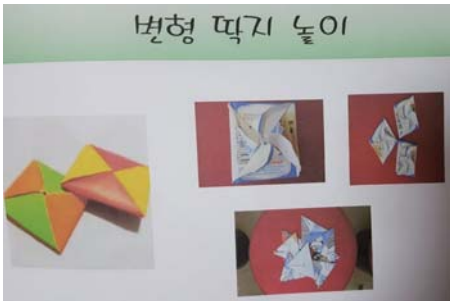
전래놀이는 영역이 넓다.

마루, 마당, 들판, 산, 시냇가, 추수끝낸 들판까지 모두가 놀이터였다.

놀잇감도 쉽게 구할 수 있다.

돌맹이, 모래, 나뭇잎, 나무토막, 흙과물, 빈 깡통 신문지까지. 모든 놀이는 내가 쳐도 좋고, 상대가 이겨도 역시 좋은 친구애가 있다.

현대놀이는 도구를 반드시 사야만 한다. 장난감 블록, 게임기 등. 거의 혼자 놀



기 때문에 외골수이고 성향은 거친성품을 갖게 된다.

요즘 하루 한 개(200ml)이상 우유를 먹게되는데, 우유팩을 먹는대로 모으는 데 깨끗이 씻어 십자로 펴놓아 갖가지 모양의 딱지를 접는다.

모양도, 접는 재미도 신기하다. 돈주고 사는 딱지는 잃으면 돈을 잃는것인데 이 우유팩딱지는 친구에게 선물하는 것이다.

요즘 폐현수막이 쏟아진다. 폐현수막을 길게 자르고 세갈래로 머리 땡듯이 땡으면 훌륭한 줄넘기가 완성된다. 이 줄넘기를 가운데 원을 말아 원하는 대로 매어놓으면 10명이고 20명이고 해오름 놀이를 할 수 있다.

실을 이용하여 장명루짜기를 하여 손놀림으로 두뇌회전에도 큰 역할을 하는 손뜨기도 다양하다. 나뭇잎과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브롯지를 만들고, 봄이되면 버들피리를 만들어 붙고, 솔방울 놀이도 다양하다.

모든 자연이다 이들의 것이 된다.

잊고 살았던 자연, 옛날 어른들은 알고 있지만, 지금 현대 아이들은 모가 무엇인지, 벼가 무엇인지, 현미, 찹쌀, 깨가 무엇인지. 자연을 향한 어린 아이의 마음은 어디 까지인지 우리는 알려줘야 할 책임을 가져야 하는건 아닐까.

우리의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들에게 알려줘야 할 책임을 가져야 하는건 아닐까.

창의력을 키워야 한다고 자유롭게 공부한다고 하면서, 유치원 초등학생이 몇 개의 학원을 전전공공하며 중학교 자유학기제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인성을

길러낸다고 하며 자유학기 강사들을 이끌어 내도. 요즘 마스크를 통해서 나타나는 교육문제들이 무서우리만치 끝도 없이, 툭툭 불거지고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강요 말고 스스로 창의력을 키워 나가서 인성을 길러 낼 수 있는 로드맵을 그려주면 어떨까.

진정한 성장의 자유를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흥겨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익히며, 내 나라, 대한민국의 대한 자긍심과 마음껏 사랑하며 이들이 뛰노는 곳마다 활짝 핀 미래의 가치가 싹트는 발자취를 보고 싶다.

세상이 변하여 잘 놀고, 잘 사는 법.

놀부. 흥부(목장길 따라)

1. 놀부

내꺼는 내꺼 니꺼도 내꺼 니꺼도 내꺼 내꺼는 내꺼
내꺼는 내꺼 니꺼도 내꺼 니꺼도 내꺼 내꺼는 내꺼
내꺼는 내꺼 니꺼도 내꺼 다내꺼 하 하 하

2. 흥부

내꺼도 니꺼 니꺼는 니꺼 니꺼는 니꺼 내꺼도 니꺼
내꺼도 니꺼 니꺼는 니꺼 니꺼는 니꺼 내꺼도 니꺼
내꺼도 니꺼 니꺼는 니꺼 다니꺼 하 하 하

강하고 담대하게,

놀이 문화를 통하여 마음이 활짝 열리는 미래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다.

신명나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찾아서, 이번주에는 고무줄 놀이와 고난도이지만 팽이 접기로 전래야 놀자!



III. 횡성사람 횡성이야기

*나방이야기 | 한상균

*회다지 | 임청근

*그림! 내년에도 횡성군 축제의 날은 엽서 쓰는 날 | 김미애

나방이야기



한 상 군

I. 들어가는 말

2010년 ‘횡성문화(통권 제 25호)’에 박각시나방과 2012년 ‘큰나방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나방을 살펴 본 적이 있다. 나방은 나비만큼 예쁘지도 않고 대부분 해충이며 낮에 보기가 힘들어 관심이 적다. 그래도 크고 비교적 예쁜 나방을 골라 2회에 걸쳐 소개했다. 사실 나방은 종류도 많고 크기도 다양하다. 이번 호에는 밤에 활동하며 등불에 잘 모이는 밤나방류, 독모(毒毛)가 있어서 동물이나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독나방류, 날개에 뚜렷하고 화사한 반점이나 무늬가있는 불나방류, 유충의 모양이 특이하고 재주를 부리는 듯 한 행동을 하는 재주나방류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I. 나방이야기

2016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나비목에는 3,784종이 기록돼 있고 이 가운데 나방은 93%인 3,505종이다.

가. 박각시과

‘초가지붕에 하얗게 핀 박꽃신랑을 찾아오는 각시 같은 나방’이라는 박각시 나방류는 국내에는 50여종이 분포하는데 통권 제25호에 18종을 소개했고 이번 호에 4종을 소개한다.

1. 뱀눈박각시 <Smerinthus planus Walker, 1856>

2018년 9월 9일 아침 섬강테니스코트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이ㅇㅇ씨가 네트 밑에 이상한 벌레가 있다며 나를 불렀다. 뒷날개에 화려한 눈알모양이 선명한 '뱀눈박각시'가 짝짓기 중이었다. '이게 웬 떡이냐' 하며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준비가 안 돼 먼저 핸드폰을 빌려 촬영했다. 후에 코트밖으로 옮긴 뒤 카메라를 가져와 보니 상황이 끝나 아쉬웠다.



수컷과 암컷 2018.9.9.

- 크기: 날개편길이 35~50mm
- 특징: 뒷날개에 큰 눈알모양 무늬 때문에 이름이 생김
- 성충발생: 6~7월
- 유충먹이식물: 뱀나무
- 월동: 땅속에서 번데기로



수컷과 암컷 2018.9.9. 섬강테니스코트

2. 물결박각시 <*Dolbina tancrei* Staudinger 1887>

무늬가 선명하지 않아 아쉽지만 달랑 한 장뿐이니 아쉽다.

- 앞날개에 톱니모양의 가로선들이 여러 개가 물결무늬를 이뤄 ‘물결박각시’라 부름.
- 유충의 먹이식물: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쥐똥나무, 물푸레나무의 잎을 먹음.
- 날개편길이 : 60~68mm
- 성충발생 : 5월말~8월말



2014.5.29. 황성읍

3. 산등줄박각시 <*Marumba maackii* Bremer, 1861>

처음 당평에서 만났는데 무늬가 잔잔하면서도 예뻐 동양화를 보는 듯 했다. 1년 후 구 테니스코트에서 본 것은 색이 더 짙었다.

- 성충발생 : 6~8월경. ○ 날개편길이 : 83~96mm.



2005.7.20 갑천면 당평리



2006.6.15. 황성읍 구/섬강테니스코트

4. 대왕박각시 <Langia zenzeroides nawai Rothschild et Jordan, 1903>



2013.4.9. 황성읍 섬강테니스코트



2013.4.9. 황성읍 섬강테니스코트

크고 생김새도 위엄 있어 보이는 대왕박각시는 2013.4.9.에 처음 만났다. “세상에 이런 박각시도 있다니” 놀랐다. 배부분을 위로 치켜들고 있는 모습이 장갑차 같아 보여 신기하다.

- 날개편 길이 : 126~131mm(대형종)
- 성충발생 : 연1회(4월말~5월중순)
- 유충먹이식물 : 복숭아나무.

○ 생태적특성: 유충은 몸이 큰데다 공격을 받으면 옆구리의 숨구멍에서 바람을 빼면서 쉼쉼 소리를 내는데 화들짝 놀랄 정도로 소리가 크다고 함.



2013.4.9. 황성읍 섬강테니스코트

5. 점박각시 <*Kentochrysalia sieversi* Alpheraky, 1897>



2005.5.15. 구섬강테니스코트

처음에는 쥐박각시인줄 알았다. 점박각시의 생태정보가 알려진 것이 거의 없어 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아쉽다.

○ 크기 : 몸길이 35mm, 날개편길이 90mm ○ 성충발생 : 5월중순~8월말

나. 밤나방과

나방류 중에서 가장 많은 종이 있는 가장 큰 과의 하나로 대개 밤에 활동하며 등불에 잘 모이는 습성이 있다. 크기와 색채에는 차이가 많으나 대부분이 중간 크기이고 어두운 색깔이며, 몸은 짧고 굵다. 유충은 대부분이 나뭇잎을 먹거나 초본류의 잎이나 줄기를 잘라먹는 등 식성이 다양하다. 국내에 알려진 종(種)은 480여 종이다.

1. 으름밤나방 < *Adris tyrannus* Guenee, 1852 >



2013. 11. 4. 횡성읍 섬강테니스코트



2010. 10. 4

2013. 11. 4. 횡성읍 섬강테니스코트

무늬도 재미있고 앉아 있는 모습이 다양해 이상한 모양의 나방이다.

- 크기: 날개편길이 95~100mm, 유충몸길이 75mm 정도
- 성충발생: 연 3회 발생(5월~6월, 7월~8월, 10월~12월)
- 유충먹이식물: 으름덩굴
- 월동: 노숙유충, 번데기, 성충

2. 가중나무껍질밤나방 <Eligma narcissus Cramer, 177>



2013. 11. 1 황성을 섬강테니스코트

위에서 본 무늬도 재미있지만 아래에서 본 날개 무늬가 화려하다. 길고 화려한 망토를 걸친 나체 여인 같다는 생각이 든다.

- 크기: 날개편길이 38mm
- 성충발생: 연 1회(9~10월)
- 유충먹이식물: 가중나무 잎



2013. 11. 1 황성을 섬강테니스코트

- 특성: 나뭇가지에 수피를 긁어 자신의 털과 섞어서 고치를 만드는데, 고치 속의 번데기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손으로 누르면 ‘썩썩’ 소리를 낸다고 함

3. 쌍띠밤나방 <Mythimna turca Linnaeus, 1761>



2006. 8. 4. 갑천면



2010. 6. 29. 갑천면



2014. 5. 29. 횡성댐



2013. 8. 31. 횡성댐

앞날개의 흰 두 점이 인상적이며, 몸에 털이 많아 가까이 가기가 두렵다.

○ 크기 : 몸길이 15mm, 날개편길이 40mm.

○ 유충먹이식물 : 벼과 식물.

○ 성충발생 : 연 1회(5~7월).

○ 특성 : 유실수 열매에 흠집을 내 과즙을 빨아먹는다고 함.

4. 신부짚름나방 <*Naganoella timandra* Alphéraky, 1879>

이름이 재미있는 색상이 홍색을 띠어 매우 아름다운 종이다. 이름 지은 학자님도 얼마나 반했으면 신부에 비유했을까? 춘천 만천리에 운동하러 갔다가 처음 만났다. 이 아름다운 나방이 횡성에도 있을까 궁금했는데 3년 후 횡성담에서 다시 만났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다.



2010. 6. 10. 춘천 만천리

- 크기 : 날개편길이 26~30mm
- 성충발생 : 4~8월



2014. 5. 29. 횡성담



2013. 8. 6. 횡성담

5. 태극나방 <*Spirama retorta* Clerck, 1759>

2008년 횡성담에서 처음 본 순간 나방날개에 태극무늬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다. 2014년에는 대동아파트에서 태극나방을 보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불 빛 따라 왔을까?

- 크기 : 날개편길이 수컷 32~35mm, 암컷 35~38mm.



2013. 8. 31. 횡성댐



2014. 5. 22. 횡성읍 대동아파트

- 성충발생 : 연 2회(5~6월, 7~8월). ○유충먹이식물 : 자귀나무 잎
- 특성 : 봄형-가로줄의 발달이 나쁘고 태극무늬도 흔적만 남기고 소실된 경우가 많음, 여름형-태극 무늬가 선명하고 가로줄도 매우 뚜렷함.
- 1954년, 태극나방 무늬가 도안된 10환짜리 우표 발행



2008. 8. 19. 횡성댐

6. 흰줄태극나방 <Metopta rectifasciata Mènètriès, 1863>

운 좋게도 2일 간격으로 두 가지 모습의 사진을 촬영했다. 처음엔 종이 다른 줄

알았다. 그런데 자료에 두 사진이 다 같은 학명이었다. 자세히 생각하니 앞날개만 보여서 착각했다.

○크기 : 몸길이 30~40mm, 날개편길이 68~76mm(대형나방)

○유충먹이식물 : 자귀나무, 청미래덩굴, 밀나물 등

○성충발생 : 연 2회(5월과 7~8월) ○월동 : 번데기



2014. 5. 22 횡성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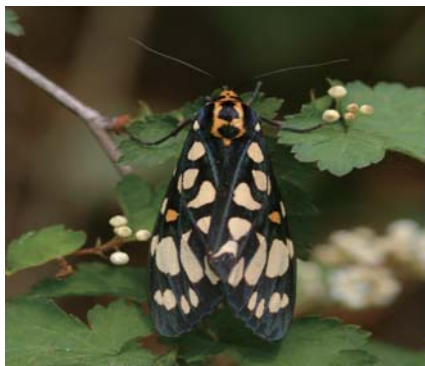


2014. 5. 20 횡성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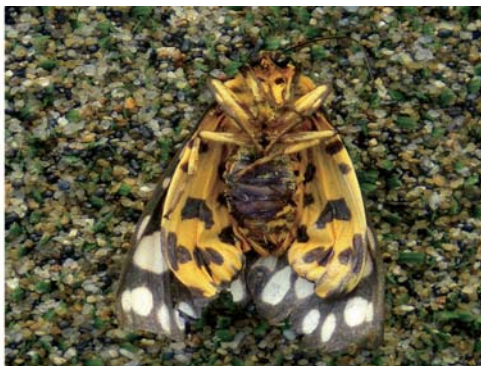
다. 불나방과

대부분 아름다운 색깔과 무늬의 나비인데, 우리나라에는 흰불나방, 불나방 등 30여종이 알려져 있다.

1. 흰무늬왕불나방 < *Aglaeomorpha histrio* Walker, 18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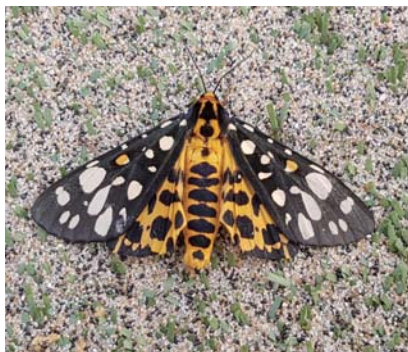


2005. 5. 21. 횡성읍 운암정



2016. 8. 3. 횡성읍 섬강테니스코트

운암정에서 처음 보았는데 무늬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2017. 5. 30 횡성읍 섬강테니스코트

2017. 5. 31. 횡성읍 섬강테니스코트 머리모습

- 크기 : 몸길이 30~40mm, 날개편길이 80~90mm(중대형 나방)
- 활동 : 낮에 날아다니며 꽃에서 꿀을 빨고, 밤에는 불빛에 모여듦
- 성충발생 : 연 2회(5~6월과, 7~8월)

2. 점박이불나방 < *Agrisius fuliginosus japonicus* Leech, 1888 >



2008. 8. 1. 횡성읍 섬강둘레길

애벌레는 앞 뒤 구분이 어렵게 생겼더니 신기하다. 보고 싶다.

○ 크기 : 몸길이 19mm, 날개편길이 42~47mm.

○ 유충발생 : 연 2회(6~7월, 8~10월)

○ 성충발생 : 연 2회(5~8월)

○ 유충먹이식물 : 참나무류

3. 녀점박이불나방 <*Lithosia quadra* Linnaeus, 1785>



암컷 2008. 6. 22. 횡성읍 섬강둘레길

수컷 2008. 8. 26. 춘천

점이 세계만 보이는데 왜 녀점박이라 했지? 몇 번을 촬영해도 점 4개를 다 나오게 할 수 없어 아쉬웠다. 점이 하나가 겹쳐 있기 때문이다.

○ 특성 : 수컷은 암컷과 색깔이
다르고 점이 없음

○ 성충발생 : 연 1회(7~8월)



2017. 9. 24. 운중계도 횡성읍 대동아파트에서 촬영한 짝짓기 모습

4. 교차무늬주홍테불나방 < *Miltochrista expressa* Inoue, 1988 >



2013. 8. 13 갑천면 황성담

점선으로 이루어진 중앙부 줄무늬 두 줄이 서로 교차하고, 날개 가장자리를 따라 선명한 주홍색을 띠고 있어 ‘교차무늬주홍테불나방’ 이라 부르는데 재미 있는 이름이다.

○ 크기 : 날개편길이 14~26mm. ○ 성충발생 : 연 3회(5~6월, 7월, 9월)

5. 알락주홍불나방 < *Miltochrista pulchra* Butler, 1877 >

불나방이라는 이름에 잘 어울리는 화려한 무늬와 색깔로 불나방류 중에서 가장 무늬가 또렷하고 선명하다.

○ 성충발생 : 5월~9월

○ 크기 : 날개편길이 16~18mm.

○ 유충먹이식물 : 바위나 고목에 붙은 이끼류.



2005. 6. 19. 황성읍 섬강둘레길



2005. 6. 19. 황성읍 섬강둘레길

6. 홍줄불나방 < *Miltochrista striata* Bremer et Grey, 1853 >

나방색이 은은하면서도 곱다.

○ 크기 : 몸길이 20mm, 날개편길이-30~40mm ○ 성충발생 : 연 2회(6~9월)



2014. 6. 5 황성읍 섬강둘레길



2014. 6. 10 갑천면 황성담

라. 산누에나방과

날개편 길이가 150mm 이상 되는 큰 나방으로 뚜렷하고 광채 있는 색깔을 띤다. 날개에 투명한 눈 모양 무늬가 특징이다.

1. 네눈박이산누에나방 < *Aglia tau* Linnaeus, 1758 >



2014. 4. 9 황성읍 섬강테니스코트

앞 뒤 날개에 네눈박이라는 이름처럼 네 개의 둥근 눈알무늬가 인상적이다.

○ 크기 : 날개편길이 55~75mm.

○ 성충발생 : 연 1회(4월초~6월초)

○ 월동 : 번데기

마. 재주나방과

유충의 모양이 특이하고 재주를 부리는 듯한 행동을 하는데서 이름이 붙음
재주나방유충의 특징-유충은 노숙할 때까지 군서 생활을 하며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여러 마리가 동시에 몸을 흔드는 습성이 있다. 재주나방과에 속하며 우리나라에는 107종이 알려졌다.

1. 먹무늬재주나방 <*Phalera flavescens* Bremer et Grey, 1852

먹으로 그린 그림 같다. 그래서 먹무늬라 했나? 아무튼 재미있는 이름이다.

○ 날개편길이 : 수컷 22~24mm, 암컷 25~30mm(중형나방)

○ 유충먹이식물 : 산사나무, 버드나무 등

○ 유충특성 : 어린 유충은 방해를 받으면 일제히 실을 타고 죽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함.

○ 성충발생 : 7월 이후



2006. 8. 4. 갑천면 병지방수련원



2013. 8. 7. 갑천면 횡성댐

2. 은무늬재주나방 <*Spatalia doerriesi* Graeser, 1888

아침 산책길에 풀줄기에 앉아있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그런데 나비인지 벌레인지 헷갈렸다. 우선 사진을 촬영하고 건드려 보았더니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갔다. 더 두근 불길 하고 후회했다.

○ 날개편길이 : 38~45mm. ○ 성충발생 : 6~8월



2005. 5. 7. 황성읍 마산리

3. 큰나무결재주나방 <Cerura menciiana Moore, 1887>



2014. 6. 12. 갑천면 황성댐

2005. 6. 17. 섬강테니스코트

독나방 같은데 큰나무결재주나방 이란다.

- 크기 : 날개편길이 60~65mm.
- 성충발생 : 연2회 (4~5월, 7~8월)
- 유충먹이식물 : 버드나무류
- 월동 : 번데기

4. 뒷검은재주나방 <*Cnethodonta grisescens* Staudinger, 1887>



2013. 8. 7. 섬강테니스코트

짐승의 털가죽을 쓴 것처럼 온몸에 털이 심하게 복실복실한 것이 인상적이다.

○ 날개편길이 : 34~50mm ○ 성충발생 : 연 2회 (5~6월, 7~9월)

5. 꽃술재주나방 <*Dudusa sphigiformis* Moore, 1872>

성충은 배 끝에 검은 술들이
꽃처럼 달려 있다.

○ 크기 : 몸길이 35mm,
날개편길이 60~80mm
○ 성충발생 : 연 2회(5월, 7~8월)



2006. 8. 4. 갑천면 병지방수련원 성충과 알이보임



2006. 8. 4. 병지방수련원



2006. 7. 4. 병지방수련원

6. 참나무재주나방 <*Phalera assimilis* Bremer et Grey, 1852>



2006. 8. 4. 병지방수련원



2006. 7. 4. 병지방수련원

얇은 모습이 나무토막 같이 보이는 때도 있다고 하니 재주부리는 모습인가?

○크기 : 날개편길이 50mm~60mm ○성충발생 : 연 1회(6~8월) ○월동 : 번데기



2006. 8. 4. 갑천면 병지방수련원

7. 곱추재주나방 <*Rabta cristata* Butler, 1877



2006. 7. 24. 갑천면 병지방수련원

2014. 6. 5. 황성읍 섬강테니스코트

2016. 8. 1. 황성읍 섬강테니스코트

곱추하늘나방이라고도 함

○크기 : 날개편길이 암컷 37~43mm, 수컷이 32~36mm



2013. 8. 31. 황성읍 섬강변



2016. 9. 6. 황성읍 섬강변

바. 제비나방과

한국에는 6종이 기록되고 있다.

1. 제비나방 < *Acropteryx iphiata* Guenee, 1857 >



2013. 8. 31. 황성읍 섬강둘레길



2016. 9. 6. 황성읍 섬강둘레길

낮에 나뭇잎 위에 날개를 펴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좀 작지만 무늬가 흥미를 끈다.

○크기 : 몸길이 14mm, 날개편길이 25~29mm

○성충발생 : 연 2회(초여름에서 가을까지)

사. 창나방과

소형이나 중형 종으로 국내에는 9종이 알려져 있다.

1. 감둥이창나방 < *Thyris fenestrella seoulensis* Park et Byun, 1983 >

낮에 민첩하게 날아다니며 야생화에서 먹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았다. 성격이 까탈스러운지 사진촬영에 땀 좀 흘렸다.

○특성 : 날개 중앙에 반투명한 부분이 있어 '감둥이창나방' 이라 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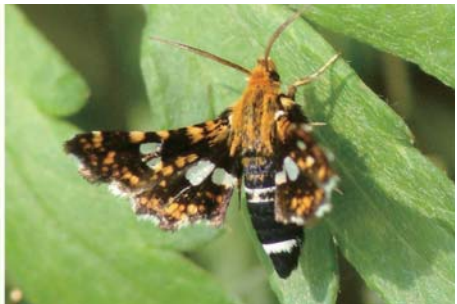
○크기 : 날개편길이 14~17mm, ○성충발생 : 연 2회 출현(5~6월).



2008. 5. 22. 횡성읍 섬강둘레길 < 낮에 꿀을 빠는 모습 >



2008. 7. 20. 횡성읍 섬강둘레길



2008. 5. 22. 횡성읍 섬강둘레길

아. 독나방과

독침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독나방, 차독나방, 매미나방이 있다.

1. 점흰독나방 < *Arctornis kumatai* Inoue, 1956 >

천사 같이 하얀 나방이 독이 있는 비늘을 가지고 있다니 믿기 힘들다. 천사의 양면성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 크기 : 몸길이 18mm,

날개편길이 39~43mm.

○ 성충발생 : 연 2회(5월-9월)

○ 유충먹이식물 : 차나무 잎을 먹고 자람

○ 특성 : 날개에 덮여 있는 비늘은 잘 날려서 체질이 민감한 사람은 알레르기 증상 유발



2013. 8. 6. 섬강테니스코트

2. 사발무늬독나방 < *Calliteara conjuncta* Wileman, 1911 >

앞날개 윗 단의 무늬 때문에 사발무늬독나방이라고 부르는데 매우 휘귀한 나방을 보게 돼서 좋지만 무서워서 접근하기가 두렵다.



2010. 6. 29. 춘천 만천리

○ 크기 : 날개편길이 42~66mm, ○ 성충발생 : 6~7월.

3. 무늬독나방 < *Euproctis piperita* Oberthür, 1880 >



2010. 6. 29. 갑천면 병지방수련원



2013. 8. 5. 횡성읍 섬강테니스코트

무늬가 예쁘다.

○ 크기 : 날개편길이 14~20mm(중형나방) ○ 성충발생 : 연 2회(6~8월)

○ 유충먹이 : 예덕나무 잎

4. 꼬마독나방 < *Euproctis pulverea* Leech, 1888 >

처음 보면 무늬독나방과 비슷하다.

○ 성충발생 : 연 2회(5~7월)

○ 크기 : 날개편길이 23~ 39mm

○ 유충먹이식물 : 복숭아나무, 매실나무, 장미류, 굴나무류 등의 잎



2013. 8. 22. 횡성읍

5. 흰독나방 < *Euproctis similis* Fuessly, 1775 >



2007. 7. 11. 횡성읍 섬강둘레길



2008. 7. 7. 횡성읍 섬강둘레길



2007. 7. 11. 횡성읍 섬강둘레길



2008. 7. 7. 횡성읍 섬강둘레길

성충과 유충에는 독모가 있어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킨다고 하니 조심해야겠다.

- 크기 : 몸길이 10~12mm, 앞날개길이 12~22mm.
- 성충발생 : 연 2회(6월, 8~9월)
- 유충먹이식물 : 뽕나무류, 버드나무류에 대량 발생
- 월동 : 유충.

6. 황다리독나방 <*Ivela auripes* Butler, 1877>



2005. 6. 14. 황성읍 섬강테니스코트



2013. 6. 15. 황성읍 섬강테니스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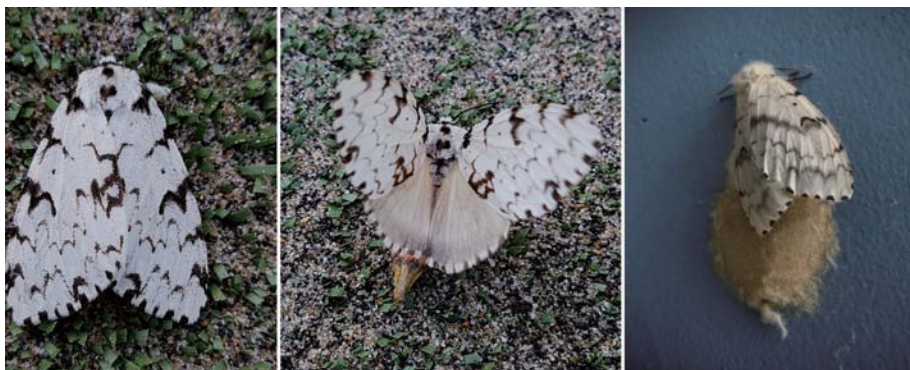


2013. 6. 15. 황성읍 섬강테니스코트

다리가 노란색이어서 ‘황다리독나방’ 이다

- 유충먹이식물 : 층층나무 잎.
- 성충발생 : 연 1회(6~8월)
- 특성 : 사람의 피부와 접촉할 경우 알레르기를 일으킴.

7. 매미나방 <Lymantria dispar Linnaeus, 1758>



2018. 9. 30. 섬강테니스코트

2005. 9. 28. 병지방수련원



2018. 7. 8. 횡성읍 섬강둘레길에서 본 매미나방 알집

2018. 7. 8. 섬강둘레길 안내판에서 매미나방의 알집을 보았다. 신기하다.

○특성 : 수컷이 빠르고 활발하게 날아다녀 집시나방이라고도 함,

○크기 : 몸길이 17~21mm, 날개편길이 41~54mm.

○유충발생 : 3~4월. ○성충발생 : 7~8월. ○월동 : 알.

8. 물결매미나방 <Lymantria lucescens Butler, 1881>

날개 무늬를 물결에 비유했나?

○성충발생 : 7~8월. ○유충먹이식물 :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등 참나무류.



2013. 8. 8. 갑천면 횡성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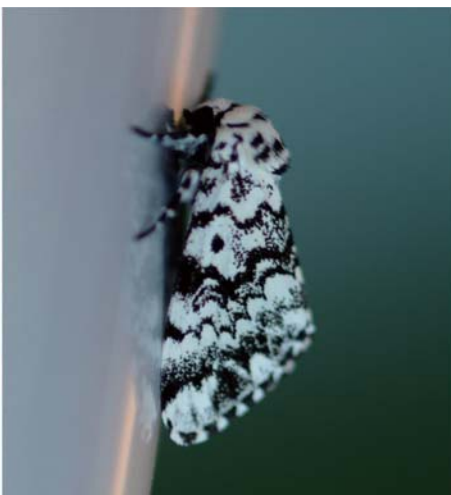


2013. 8. 22. 갑천면 횡성댐

9. 얼룩매미나방 <*Lymantria monacha* Linnaeus, 1758>



2010. 7. 7. 갑천면 횡성댐



2008. 8. 26. 횡성댐

백색 바탕에 흰 무늬가 고상하다.

○크기 : 몸길이 20mm, 날개편길이 35~69mm.

○성충발생 : 연 1회. ○월동-알.

○유충먹이식물 : 졸참나무,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등



2011. 8. 17. 황성읍 승지봉 등산길

자.명나방과

국내에는 278종이 알려졌다.

1. 흑명나방 <*Cnaphalocrocis medinalis* Gunee, 1954>



2010.10.6. 섬강테니스코트



2010.10.2. 섬강테니스코트

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미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니 애처롭다.

○크기 : 몸길이10mm, 날개편길이17mm. ○성충발생 : 7월~11월

2. 큰각시들명나방 <*Glyphodes quadrimaculalis* Bremer et Grey, 1853>



2005. 8. 30 병지방수련원

무늬가 예뻐서 각시라는 이름이 생겼나?

○크기 : 몸길이12mm, 날개편길이 26~35mm, ○성충발생 : 7월

○유충먹이 : 백하수오의 잎.

3. 흰띠명나방 <*Palpita indica* Saunder, 1851>



2010. 10. 6. 섬강테니스코트

2017. 10. 14. 섬강테니스코트

무늬와 이름이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 크기: 몸길이 15mm, 날개편길이 20~24mm, ○유충먹이식물: 농작물
- 성충활동: 낮에 꽃의 꿀을 빨고 있는 것이 자주 눈에 띈다.

4. 목화바둑명나방 <Palpita indica Saunder, 1851>



2010. 10. 6 황성읍 섬강테니스코트



2017. 10. 4. 황성읍 섬강테니스코트

‘작은각시들명나방’ 이라고도 부르는데 날개 가운데 하얀 삼각형 무늬가 인상적이다.

- 유충먹이식물: 목화, 무궁화잎.
- 성충발생: 6~10월.

○크기: 날개편길이 25mm

5. 회양목명나방 <Glyphodes perspectalis Walker, 1969>



2017. 6. 2. 황성읍 대동아파트

대동아파트에 많이 심은 회양목에서 발생 했나?

○크기 : 날개편길이 28mm. ○성충발생 : 연2회 (6~7월, 8~9월)

○유충먹이식물 : 회양목

차.누에나방과

국내에는 4종이 보고되어 있다.

1.물결멧누에나방 <Oberthueria caeca Oberthür, 1880>



2005. 5. 27. 황성읍 섬강둘레길



2017. 6. 22. 황성읍 섬강둘레길

성충은 나오자마자 바로 짝짓기에 들어가 알을 낳으며, 수명이 1주일 정도라니 누에와 같다.

○크기 : 날개편길이 50~60mm. ○성충발생 : 4월초~8월

○활동 : 낮에는 산속의 그늘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음.

2.새누에나방(멧누에나방)

다른 나방에 비해서 비행능력이 떨어지며 잘 움직이지 않는다니 게으른 나방인가?

○크기 : 날개편길이 20~23mm.

○성충발생 : 6~7월.

○유충먹이식물 : 뽕나무 잎.



2017. 10. 17. 황성읍 섬강테니스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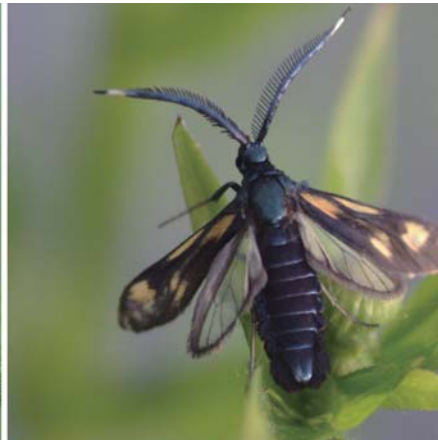
카.알락나방과

성충은 주로 낮에 활동하는데 국내에는 17종이 보고되어 있다.

1. 여덟무늬알락나방 <Balataea octomaculata Bremer, 1861>



2008. 6. 19. 황성읍 섬강둘레길



2005. 6. 7. 황성읍 섬강둘레길

무늬가 상큼하고 간결하며 예쁘다. 더듬이도 예쁘다.

○크기: 날개편길이 20mm.

○성충발생: 연 2회(6월)

○유충먹이식물: 억새, 갈대 등

○활동: 성충은 낮에 꿀을 찾아 꽃에 모임.

2. 뒤흰띠알락나방 <*Chalcosia remota* Walker, 1854



2006. 8. 4. 갑천면 병지방 학생수련원

2016. 7. 18. 횡성읍 승지봉 등산로



2016. 7. 18. 횡성읍 승지봉 등산로

무늬의 색깔이 곱고 예쁘다.

○크기 : 몸길이 15mm, 날개편길이 20~25mm. ○성충발생 : 6~7월.

3. 사과알락나방 <*Illiberis pruni* Dyar, 1905

알락나방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온통 검은색이라 실망했다.

○크기 : 날개편길이 26~30mm. ○성충발생 : 6~7월.

○ 유충먹이식물 : 사과나무, 배나무, 뽕나무 등의 잎



2008. 7. 3. 횡성읍 섬강둘레길

타.섭나방과

1. 베머들나방 <*Gastropacha quercifolia* Linnaeus, 1758>



2013. 8. 28. 갑천면 횡성댐



2006. 6. 18. 황성읍 섬강 돌레길

나뭇잎인지 나방인지 헷갈리는 모습이다. 위장의 천재인가? 날개를 활짝 편 모습이 없어 아쉽다.

- 크기: 날개편길이 수컷 42~55mm, 암컷 72mm.
- 성충발생 : 5~8월.

2. 섬나방 <*Cyclophragma undans* Walker, 1855 >

섬나방이라 부르는 이유가 궁금하다.

- 크기 : 날개편길이 수컷 56~65mm, 암컷 79~92mm.
- 성충발생 : 9~10월.
- 활동 : 성충은 낮에도 활동하나 등불에도 모임.
- 월동 : 알.



2009. 8. 20. 갑천면 횡성댐 <짜짓기 모습>



2013. 10. 3. 횡성읍 섬강테니스코트

파.얼룩나방과

흑색, 황색 등으로 광택있는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는 5종이 알려져 있다.

1. 뒷노랑얼룩나방 <Sarbanissa subflava Moore, 1877>

보기 힘든 나방을 춘천에서 보았으니 역시 난 운이 좋았다. 하지만 횡성에서 아직 보지 못해 아쉽다. 앞날개 무늬가 아름답다고 하는데 더욱 궁금해진다.

- 크기: 날개편길이 42mm.
- 성충발생: 연 2회(5월~8월)
- 활동: 낮에 주로 활동, 등불에 모임.
- 유충먹이식물: 담쟁이덩굴.



2010. 6. 15. 춘천 만천리

하. 썩어나방과

1. 뒷검은썩어나방

어릴 때 산에 가면 자주 썩기에 쏘였다. 그럴 때마다 쏘인 자리에 침을 바른다고 했는데, 나방을 보긴 처음이다. 감회가 새롭다.

○ 성충발생 : 6~8월.

○ 크기 : 성충몸길이 16mm,

날개편길이 28~35mm.

○ 유충먹이식물 : 은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등

○ 특성 : 유충은 독이 있는 센털이 있어 피부에 닿으면 부어오르고 며칠 동안 고통을 느낌.



2010. 6. 15. 갑천면 횡성담

IV. 나가는 말

10월 22일 아침에 일어나 서재에 들어가니 문 옆 벽에 '유리산누에나방' 이 붙어 있었다. 참으로 이상했다. '어디로 들어왔지? 아무리 살펴봐도 들어올 틈이 없었다. 우선 사진부터 찍고 나니 문득 며칠 전에 승지봉 등산길에 유리산누에나방 고치를 따서 추리닝 주머니에 넣고 온 생각이 났다. 옷장에서 추리닝 주머니 속의 고치를 꺼내 살펴보니 고치 속이 비어 있었다. '우화했구나! 그런데 어떻게 날개를 펴고 좁은 주머니 속을 나와 여기까지 왔을까? 참으로 신기했다. 나방의 우화과정은 전에 본 일이 있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치를 나와 주머니 속에서 날개를 폈을까? 아니면 주머니 속을 나와 여기까지 기어와서 날개를 폈을까? 운이 좋았다면 기막힌 광경을 보았으리라고 생각하니 많이 아쉬웠다. 생명은 참으로 신비한 생각이 들었다. 저명한 자연저술가인 베른트 하인리히는 <생명에서 생명으로>란 책에서 애벌레가 나비나 나방으로 변신하는 것을 '죽음 후의 환생' 이라고 표현했다. 우리가 곤충의 변태 과정을 익히 알아 그 연속성을 이해하지만, 두 생명체는 너무 달라서 한 생물이 죽은 뒤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생물이 태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이번에도 많이 부족한 글을 '황성문화 통권 제33호' 에 신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 글을 통해 나방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란다.

참고문헌 강원도교육청 '강원의 자연(제6집-곤충편)' 1997년 12월 30일
 남상호 '한국의 곤충' 교학사 2003년 9월 20일
 조영권 '주머니속 곤충도감' 황소걸음 2006년 8월 10일
 백문기 '한국 밤 곤충도감' 자연과 생태 2016년 10월 31일
 손정달 '한국의 나비' 교학사 2002년 4월 25일
 시유식 '원색한국곤충도감' 1.나비편 아카데미서적 1989년 9월 20일
 네이버 '두산백과', '곤충나라 식물나라 카페'

회 다 지



임 청 근

2017 전국공무원문예대전 동상수상자
명상지도 강사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 진다고 서러워 마라,
명년 삼월 돌아오면 너는 다시 피련마는 우리네 인생
한 번 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어어렁 차아 어어아”

요령잡이의 선소리에 맞추어 꽃상여의 발 구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수백 개의 만장이 펄럭이며 그 뒤로 꽃상여가 따르고 상주와 마을 조문객들의 장례행렬이 서서히 축제장으로 들어온다. 횡성 회다지 소리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장례 운구의 재현이다.

요즘 화장이나 수목장등으로 꽃상여로 운구하고 회다지의 선소리는 묘지에서 듣기도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전통문화축제를 보여 주는 것도 드문 일이다. 전국에서 몰려온 사진작가와 동호회 등 관광객들은 이 귀중한 문화유산을 사진과 동영상 속에 담으려고 문화제 때마다 수십 명씩 몰려들어 대성황을 이룬다.

아마도 꽃상여 타고 저렇게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숨을 죽인 채, 장엄한 죽음의 행렬을 지켜볼 것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생자필멸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노랗게 보이며 울컥 눈물이 솟구친다. 지난 해 가을 아버님이 세상을 떨치고 영면하셔선가. 아버님의 소원대로 화장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하였지만, 만장을 휘날리며 꽃상여를 태워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가슴을 내리누른다. 만장과 상여 대신에 군악대의 장중한 위로를 받으며 젊은 병사들의 축포 속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과연 아버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화해를 하셨을까.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도 6·25전쟁 때 소속병사에게 진격을 명령하고 눈앞에서 꽃처럼 산화한 부하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울었던 기억을 되살리며 “내 죄가 크다” 하며 우시던 나의 아버지.

마음처럼 세상이 녹록지 못하여 갖은 고초 속에서 7남매를 키우시느라 당신의 안락은 안중에도 없으셨다. 그런 당신이 저 꽃상여를 타고 나를 바라보는 듯 하여 눈물이 앞을 가렸다. 생전에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떠나보낸 것이 그리운 마음과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아버님을 생각하며 지은 이별의 송시를 읊조려본다.

“육신이 무너지고 나서야 꿈이 드러남은 본래 꿈이 색이로다. 아버지 무너져 아들 되니 분시 부자가 하나로다. 한바탕 꿈 깨어난 곳에 붉은 단풍이 소리 없이 지는구나.”

연이어 들려오는 선소리꾼의 애잔한 푸념 같은 말소리는 계속된다.

창창한 하늘에 나풀대는 만장은 어느 망자의 떠남을 말하고 있지만, 고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를 아는 모든 자가 고인을 이야기한다. ‘이제 살만 한데 그렇게 가시다니...’ 막걸리잔 속에 침묵이 고인다. 뒤따르는 딸의 통곡이 가슴속을 파고든다. 울고 또 우는 방법밖에는 더 길이 있으랴. 아무도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에 애달픈 노랫소리는 이어졌다.

“어허리야달호야, 이 세상에 나온 사람 뉘 덕으로 나왔는고 아버님 전 뼈를 빌고 어머님 전 살을 빌어 어허리야달호야, 부모은공 모르는 가 어허리야달호야.”

여상주의 옆드린 어깨위로 선소리꾼의 망자를 위한 준엄한 위무가 시작 된다.

“긴 노래는 그만하고 짧은 노래로 넘어가세, 에헤라 달호, 둘씩 둘씩 마주 서서 에헤라 달호. 횃대 잡고 발길 세 번. 에헤라 달호.”

막걸리 한 잔으로 목을 축이고 횃대 잡고 세 발 뛰기에 이마에 땀이 흐른다.

세상 어느 곳에 죽음을 노래와 춤으로 맞이하는 곳이 있을까? 그것도 다 같이 살갑게 어울려 동네 사람들이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춤추며 한바탕 소리하고 웃으면서 함께 저 세상으로 즐겁게 보내는 민족이 지구위에 또 있을까?

삶의 저편, 누구나 혼자 맞이하여야 하는, 미지의 삶의 마침표, 그 신비한 죽음에 대하여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수많은 사람이 달려갔지만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없다.

죽음의 문으로 들어간 자들은 그리움으로 세상에 되살아나 삶의 향기를 뿌린다.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을 위로한다. 때로는 준엄하게 가르치기도 한다. 씩어

서 거름이 되어 꽃으로 되살아나듯이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자의 자양분으로 되살아난다.

죽음은 멈추지 않는 순환이다. 바쁘게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잠깐 반추되는 비움의 휴식을 위하여 오늘의 문화제는 춤추고 노래한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에 목이 메인만큼이나 진하게 살아온 증표이어요.’ 하는 몸짓이런가.

그래,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면서 표현해야 하리라. 사랑하며 삶과 죽음이 한 쌍으로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할 일이다. 삶이란 매 순간이 이별이 아니던가.

무엇보다 인기 있는 관람 장소는 죽음체험관이다. 이곳의 저승사자는 험악한 이가 아니요. 연약한 동자가 안내한다.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하시었나요.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세요. 아마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간절히 속삭인다. 이윽고 저승사자가 웃음을 짓는다.

그래도 유유히 죽음 속으로 걸어간다. 내 삶을 정리할 것이 있을 듯하여 유언장을 써두라는 옥졸의 권유에 따라 붓을 들어 본다. 아득히 사라지는 세상에 남길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더 감싸주지 못하였던 내 곁의 사람들에게 참회의 눈물을 전한다. 그리고 보니 잘못이 너무도 많다.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사랑한다.” 중얼거리며 2미터짜리 관속으로 들어간다.

어둠이 밀려오고 회한의 눈물이 흐른다. ‘아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나의 아들아. 이제 영원한 이별이구나.’ 시간의 마차는 너희가 있는 곳에서 멀리멀리 반대편으로 달려가는구나. 손을 저으며 가슴을 치는 동안에 삶의 애환이 영화처럼 빠르게 흘러간다.

잠시 후 관 뚜껑이 활짝 열린다. 아, 삶이 꿈같구나. 이제는 다시 잘 살고 싶다. 모두를 사랑하고 진지하게 하루하루를 잘 살고 싶다. 못다 한 사랑을 다하고 싶다. 이렇게 버리에 외치는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왁자지껄하는 소리에 살아있

음과 죽음이 바로 곁에 있는 듯싶다.

준엄한 죽음의 논의에서 벗어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늘날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 죽는 모양은 사는 모양만큼이나 다양하다. 잘 죽은 것과 잘 죽지 못한 것이 아닐까. 잘 죽은 것과 잘 죽지 못한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울부짖는가,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에 통한의 아픔을 삼켜야 하지만, 죽고 난 뒤에 그 삶이 살아온 것을 재단하듯이 죽음의 가격을 매긴다. 넌 잘 살았구나! 넌 잘 못 살았구나를.

이 행사의 마지막 이벤트는 운동장 한가운데서 정월 대보름에 달집을 태우듯 소원지를 태우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소원지에 소원을 적어 동네 느티나무 줄에 매달아 놓으며 연실 두 손 모아 고개를 숙이며 빌고 있다. 초등학교 아이도 빌고 싶은 것들이 많은지 진지하게 두 손을 모으며 눈을 감는 나팔꽃 같은 모습이다. 어린 가슴이 바라는 만큼이나 진지해 보였다.

그때 하늘에 늘어진 독수리 연이 힘차게 도약하며 만장 너머로 출렁 거린다.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조각이 낮게 떠있다. 그래, 오늘을 사랑하면서 처음처럼 살아가야지. 본래 죽음이란 없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 추억거리고 있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 진다고 서러워 마라...”

맑고 맑은 허공에 회심곡은 살갑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18장)



그림! 내년에도 황성군 축제의 날은 엽서 쓰는 날.



김미애

황성문화원 가는 길, 노랑 민들레가 밝게 피어있는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춘다, 아~후 지금이 어느 때라고 한겨울 어찌 하려고 피었느냐 하며 걱정을 한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철을 잊은 꽃들을 어찌 저 민들레뿐이라

겨울을 넘보는 이 계절에 생각지도 못한 꽃들이 밤하늘 유성을 보듯이 깜짝 깜짝 놀라게 피어있으니 철이 없는 꽃이라고 해야 하나 철을 잊을 꽃이라 해야 하나. 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친구에게 철없는 꽃들이 피었다고 말했다.

친구는 내게 가을빛을 예쁘게 물든 나뭇잎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시인이면 시가 몇 편 나올 것이며 편지글도 편지를 쓰겠다며 내게 강요를 한다.

가방에는 늘 엽서를 넣고 다닌다. 언제부터인지 행사장에서 영원엽서를 쉽게 만날 수가 있으니 마음만 있다면 가방에 엽서를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친구에게 가족에게 엽서를 쓸 수 있는 수월함에 어찌 고마운 일이 아닌가?

사람들은 유성처럼 핀 가을날의 민들레, 제비꽃 그리고 철쭉을 보면서 편지를 써야지 라고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살까?

어쩌다 회원에서, 어쩌다 회장으로 -

2011년도 강원편지쓰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고 그 고마움에 회원님들께 밥을 사러 나갔다.

처음 뵈는 회원님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어쩌다 (사)한국편지가족 강원지회 회원이 되고, 사무국장을 맡아 이 처럼 좋은 단체 활동이 있을까. 내 적성에 딱 맞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음에 고마운 시간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8년도 어쩌다 회장을 맡아 벌써 1년이 다가온다. 참으로 잊지 못할 추억으로 저장 한다.

상. 하반기 초등학교 편지강좌와, 5월 어린이날 엽서쓰기 행사로 시작하여, 8월 토마토 축제. 9월 갑천 호수길 걷기 축제.

10월 한우 축제까지 원주와 횡성을 오가며 회원님들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자원봉사의 시간이었으며, 횡성군민으로써 대단한 자부심에 마음이 부자가 되었다.

5월 어린이날 엽서쓰기에 어린이들이 생각보다 엽서가 많이 접수 되지 않았다. 어린이들이 엽서를 쓰면 주는 목적으로 핸드폰 연결 선풍기를 준비했기에 아이들은 선풍기를 받기 위해서라도 엽서를 쓰겠다고 하지만 막상 엽서를 받고 나서 한참을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편지쓰기 도움을 주었다.

자발적으로 부스 안으로 들어와 엽서를 쓰는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보면서 흐뭇했고, 편지 쓸 일도 없는데 좋은 기회라며 고개 숙이고 열심히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은 손편지쓰기가 희망이 있는 전파리는 것을 발견한다.

8월 (사)편지가족 강원지회 회원이신 이정미 황성우체국 국장님께서 관내 축제에 우체국이 함께 하고 엽서 쓰기 부스를 운영한다고 우리 편지 가족도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예쁜 엽서, 사진까지 부착하는 엽서, 나만의 엽서, 느린 우체통을 설치하여 1년 후에 받아볼 엽서를 쓰는 분들의 모습에서 행복을 함께 써가고 아이들도 덩달아 즐거운 시간이었다.

1년 후에 받아볼 엽서에 365일 만큼의 행복이 더해지길 바라며 즐거운 행사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김재권 둔내우체국 국장님께서 둔내를 방문한 분한테 얼마나 친절하신지 사진촬영, 점심식사 등 엽서쓰기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둔내 토마토축제를 방문객들께서도 축제 기간에 행복한 추억을 담아 가셨을 것이며 덕분에 우리 편지쓰기 강원지회 회원님들과 즐거운 봉사시간 이었다.

9월 황성에 이렇게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둘레길이 있다니 갑천 호수길 걷기 축제장에 오는 사람들이 감동을 한다.

가을을 예감하는 풀이며 나무며 꽃이라는 생명들을 보며 힐링을 하였으리라.

어느 달에는 일요일마다 친구들과하고 찾아 간 적이 있었다.

신성하고 신성한 아침을 일으키는 바람이 강물이며 산이며 변하지 말아라, 변하되 변질되지 말아라.

기도하는 여름과 가을사이 갑천호수 둘레길 을 걸으러 온 방문객이 많아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 뿌듯했다.

갑천 자연 그대로 거기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가서 즐길 수 있는 호수길이 있다는 것. 황성인 으로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호수길 걷기 축제 엽서쓰기에도 많은 분들이 엽서를 쓰고 장소가 수려한 곳이라서 그런지 스스로 부스 안으로 들어와 많은 분들이 엽서를 쓰고, 그 중에 호수길이 너무 아름답다며 찾아온 독일 분들하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아름다운 황성, 그리고 마음을 전하는 손편지엽서를 지향하는 우리가 있다는 자랑스러움을 함께 했다.

10월 한우축제. 닷새라는 기간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부스에 가보기도 하고, 쉬는 날 주말에는 부스에서 종일 있었다.

역시 ‘엽서 쓰고 가세요.’ 라고 홍보를 하지 않으면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학생들에게 ‘엽서 쓰세요.’ 라고 권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으며, 엽서 편지 쓰는 수준은 기본도 안 되고, 우편번호나 주소를 쓰는 방법도 모르고, 더 중요한 건 평소에 가족이나 친구, 스승님, 선. 후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 그리고 사랑을 생각 안 하고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세대차이가 분명히 나는 것일까.....?!

5인 가족이 엽서를 쓰는 모습, 젊은 부부들이 쓰는 모습, 노부부께서 서로에게 엽서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멋을 발견했다.

10월 안홍 찢빵 축제때는 서울동창 5명이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느라 행사장에서 봉사를 못했고 잠시 친구들하고 엽서쓰기를 하고, 홍보를 하고 우체국장님하고 인사를 하고 왔다.

그렇게 축제를 통하여 편지가족 회원들과 함께한 시간이 고맙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으며 관내 우체국장님들과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함께하는 엽서쓰기 행사를 또 하나의 추억으로 저장할 수 있었다

해마다 상, 하반기에는 학교 편지강좌 섭외가 어려운 숙제이다.

그런데 횡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편지쓰기 강좌를 열어주신다 해서 너무 고맙다.

요즘 누가 손편지 쓰냐고 한다.

문자, 카톡이면 충분하고 빠르고 간편한데 말이다.

종이, 펜, 봉투, 우표, 장소가 필요한 손편지 엽서 쓰는 일이 이제 저마치 가버린 여름처럼 냉정하기도 하다.

횡성초등학교에 편지 강좌에 들어가신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학교 선생님들의 교육덕분인지 편지 쓰는 모습도 진지하고 저마다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하셨다.

횡성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학생들에게도 손 편지를 통하여 따스한 마음. 순수하고 총명한 마음을 단단히 다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 흔한 위문편지도 사라지고, 스승의 날, 어버이날, 그리고 친구에게 선배, 후배 등 지인 분들에게 편지를 얼마나 쓸까?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편지쓰기 강좌 또는 우표를 통한 스토리텔링을 이용하여 창의적이며 멋지고 행복한 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편지가족의 생각이며, 직장에서도 상. 하반기 나누어 손편지 엽서

쓰는 시간을 가져서 소소하지만 서로 마음을 소통하는데 큰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평소하지 못한 이야기를 편지글로 보내면 가족, 상사, 동료, 친구, 지인들에게 힘내자는 글 한 자락이 마음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며, 응원이 될 것이며, 닫힌 마음을 풀어놓는 건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소(少)가족 시대에 살면서 자기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결국 자기만 불행해질 수 있으니까 말이다.

인성교육이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가정, 학교, 사회, 어른들 속에서 스며드는 교육이 되는 것이 인성교육이 아닌가? 거창한 틀에 맞추면 과유불급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

개념이라는 뜻을 고정시키지 않는 나라. 자유를 만들어가며, 행복을 키워나가는 어린이들이 명칭한 어른들을 거울 삼지않는 나라, 우리 어른들이 사는 이유는 결국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면 그 뜻을 이루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편지를 쓰고, 엽서를 쓰는데 어른이면 어떠한고 어린이면 어떠한리.

한글만 알면 가능한 것이 우리의 생각에 마음을 조금만 보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 벌써 내년이 기대가 되는 건

많은 사람들이 한우, 찌뽕, 더덕, 호수길, 엽서 그리고 친절하고 멋진 횡성군 민들이 생각나서 내년에도 우리 횡성군 축제장을 방문 할 것이다.

그럼, 내년에도 횡성군 축제의 날은 엽서 쓰는 날!

儒達山精氣

유달산정지

IV. 문화유산을 찾아서

- * 관내 문화유적지 답사 | 민사고 2편
- * 목포시, 해남군 관외 문화유적지 답사 | 민정기
- * 신라문화권 관외 향토문화비교답사 | 김정예
- * 전주 · 부여의 순례답사를 다녀오며 | 한상운
- * 천혜의 비경 라오스 | 민준식
- * 귀촌인 대상 관내 문화유적지 답사 | 이윤성, 이현희
- * 관내 문화유적지 답사 | 송혜영
- * 코 끝에 느껴지는 평화, 화천파로호와 평화의 댐 | 채명지

“횡성군민”으로서 우리를 찾아가는 시간

김수민(민사고)

우리는 횡성군민으로 살고 있지만 횡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민사고’가 아닌 ‘횡성’에 살고 있다고 느꼈던 건 지리시간에 횡성의 위치와 횡성 7대 명물을 외웠을 때, 아주 가끔 가족들과 한우를 먹을 때, 재학생일기에 “서울 시민으로써”라는 말을 썼다가 검열당했을 때 정도가 다였다. 그래서 지난 19일 진행된 횡성문화유적답사는 민사고 밖으로 나와 내가 사는 횡성을 둘러보고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신라시대의 흔적인 구방리 망향의 동산부터 고려에서 조선까지 이방원의 이야기를 담은 태종대와 노구소, 조선 후기 신유박해 때 천주교 신자들의 안식처가 되어 준 풍수원성당, 그리고 현재 횡성군민들의 가장 좋은 쉼터가 되어주는 횡성담 공원까지, 횡성이 간직한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횡성은 애국의 고장”이라는 말의 이유를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었다.

오전에는 횡성 강림면에 위치한 강림의병총과 의병대장 민공호 전적비를 방문하여 일제강점기 의병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느끼고, 태종대와 노구소에서 이방원과 원천석의 이야기를 체험했다. 강림의병총은 일제강점기에 원주와 횡성 인근에서 활동했던 의병들의 흩어진 뼈를 모아 만든 무덤이었는데, 당시 의병들의 활동은 도와주기만 해도 처벌당할 정도로 철저히 탄압되었기에 희생하신 의병들의 뼈를 찾는 것도 어려웠다고 한다. 우리는 다같이 무덤을 향해 묵념 하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께 그들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와 감사함을 전했다. 민공호 의병장은 조선 말기의 의병대장으로 “일본이 가장 두려워한 의병장”이라고 하는데, 원주진위대 무기고를 부수고 일본 경찰을 습격했으며 제천, 죽산, 장호원, 여주, 홍천 등지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뿐만 아니라

늘 인품이 강직하고 공사가 분명하여 많은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횡성군 강림면변영회에서는 (기념비 앞의 설명에 따르면) “민공호 의병대장의 넋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민족의 자존심과 백의민족의 정체성을 전해주기 위해” 2004년 11월 전적비를 건립하였다. 버스 탑승 후 창밖으로 기념비를 향해 꽃다발을 내려놓고 절하시느 분을 볼 수 있었는데, 애국정신을 이어가는 횡성군민들의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았다.

태종대와 노구사당을 방문하기 전 횡성문화원의 선생님에게서 이방원과 원천석, 노고할미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서인지 역사의 한 에피소드가 펼쳐진 장소를 직접 방문한다는 것에 설레었다. 운곡 원천석은 태종 이방원의 스승으로, 각림사(지금은 우체국 건물터 이다)에서 이방원을 가르쳤다.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전복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자 모든 관직을 거부하고 강림리에 은거하였다. 이후 이방원은 왕위에 올라 옛 스승을 만나뵙기 위해 강림을 찾았으나, 원천석이 만남을 꺼려 끝내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이때 원천석은 빨래하던 노파에게 누군가 오면 길을 알려주라고 부탁하면서 반대 방향을 가리켰고, 노파는 시키는 대로 했다가 왕을 속였음을 안 후 죄책감에 연못에 투신했다고 한다. 여기서 태종대는 태종이 원천석을 기다리면서 머물던 곳이고, 그때 태종이 절했던 산이 배향산이다. 그리고 노구소는 노파가 빠져 죽은 바로 그 연못으로, 노파의 충정과 넋을 추모하고자 2005년에 지어진 사당이 노구사당이다. 노구사당 뒤편에는 이 이야기를 담은 동상과 조각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매년 10월 21일 노구문화제행사가 열린다고 한다. 다리에서 내려다본 노구소 옆에는 정말로 노파가 앉아서 빨래를 했을 것만 같은 조그마한 자갈밭이 있었다. 살아 숨쉬는 역사를 느낄 수 있었고, 이렇게 역사를 보존하고 되살려준 ‘노구소 마을’의 주민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풍수원성당은 천주교 신자인 친구가 방문했을 때 정말 인상 깊었다고 해서 기대가 된 곳이었다.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은 신유박해 때 심한 박해를 당했는데, 이때 최초로 세례명을 받은 이승훈과 정약용의 형 정약종도 죽임을 당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처없이 걷다가 풍수원에 도착해 80년간 초가집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풍수원성당은 1888년 종교의 자유화 이후 1907년에 최초로 한국인 신부가 지은 성당으로, 옆의 유물전시관에서 박해 당시의 척박한 생활상을 보여주는 물건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정말 다양한 용도로 만들어진 크고 작은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간장 단지와 두부 찌는 기계부터 연탄화덕, 새끼 꼬는 기계, 책들과 선비상과 벼루, 주판, 수레, 탈과 목마, 나무스키 등 당시 사람들의 세세한 생활의 이면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널려있던 전선들로 만든 전선바구니도 있었다! 그밖에 최초의 조선어 사전과 문맹자 한글 교육용 책자인 재건독본, 농어민 교본도 있었고 라틴어로 된 19세기 성경도 볼 수 있었다. 대대로 내려온 이 유물들은 보기에 아름답거나 값비싼 것들은 아니었지만 선조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와 소박한 해학, 애환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고, 나아가 지금의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방문한 황성담 문화공원은 가장 즐거웠던 곳이었다. 친구들과 김밥으로 점심을 먹고 간이 야외 노래방에서 밴드 보컬 친구들의 노래도 듣고, 족구를 하거나 온갖 기발한 자세로 사진을 찍는 친구들을 보면서 또 하나의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황성담은 2000년 황성에 물 부족 현상과 홍수피해가 되 풀이되자 건설된 다목적댐으로, 황성 및 원주 지역에 수력에너지를 공급하고 수질정화를 통해 식수를 공급한다. 처음에는 댐의 건설로 실항민이 발생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댐의 긍정적 영향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물론 생태계 파괴 문제는 지금까지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황성문화원 선생님께서 공원에서 산길을 15분 정도 올라가면

횡성댐 물 문화관과 실제 댐에 물이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올라가야겠다고 다짐하고 중반까지는 친구와 가다가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해 결국 혼자 뛰어갔다 왔다. 만수상태의 댐의 푸른 물과 산, 높은 하늘의 조화가 정말 아름다웠다. 문화관은 시간상 자세히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로비에서 좋은 시를 하나 발견했다. “옛 노래 옛얘기가 한 데 어울리면 / 더욱 짙은 물빛 색을 띠는 것일까 / 건넌마을 논일 밭일하는 곳을 둘러 / 막걸리 두어 사발을 얻어 마신 노을이 / 별게진 얼굴로 횡성호를 바라보며 / 그리움의 물수제비를 뜬다 / 저쯤이 우리 마을이고 / 저쯤이 우리 학교였지라고..... (정설연, 〈횡성호〉)” 횡성호와 횡성댐이 횡성군민들에게 주는 의미가 이런 것이 아닐까 한다. 언제든 쉴 수 있는 경치 좋은 안식처이자, 누군가에게는 전하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숨결과 맛따뜨릴 수 있는 마음의 고향, 나아가 밝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게 해주는 가능성의 공간이 바로 횡성댐인 것 같다.

마지막에 횡성문화원 원장님께서 “횡성은 애국의 고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루 동안 횡성 유적들에 묻어나는 치열함을 느껴보니 충분히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다. 또 유적 자체에서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의미 있었지만, 버스 와 길가에서, 그리고 공원에서 실제 횡성군민들의 일상을 만나볼 수 있었다는 것도 정말 의미 깊었다. 편의점에서 막걸리와 라면을 드시는 분들, 공원에 놀러 나온 아이들, 댐의 경치를 보며 생각에 잠긴 아주머니, 풍수원성당에 예배 오신 분들까지 만나보면서 횡성에 산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실감할 수 있었던 하루였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다는 점에서도 뿌듯하고 기분 좋은 경험이었다.

횡성문화원 향토문화유적지를 다녀와서

정수진(민사고)

5월 19일 토요일에 11학년 전체가 횡성문화원 향토문화유적지 답사를 가게 되었다. 버스를 타고 처음간 곳은 강림면이었다. 한국사책을 통해 문화유적지를 많이 접해보긴 했는데, 횡성에 있는 문화유적지는 다소 생소하였다. 처음엔 횡성에 과연 문화유적지가 많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지만, 하루 일정이 빠듯할 정도로, 횡성에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문화유적지가 다양하게 있었다.

우선 가장 처음 방문한 강림면에서는 강림의병총, 태종대, 노구소, 의병대장 민공호 전적비를 답사하였다. 다행히 날씨도 맑아서, 구석구석 둘러보기에 좋았다. 강림의병총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1908년 전후 순국한 의병들을 기리기 위한 묘역이다.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중학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4년 곳곳에 흩어져 있던 분묘 10여 개를 수습하여 의병총을 만들고 묘비석을 세웠다. 묘비의 모습은 오늘날 묘비와 별로 다른 점이 없었지만, 그 묘역에는 독립운동을 힘겹게 벌이다가 순국한 의병들의 영혼들이 담겨진 곳이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여, 민주주의를 이루고 이제는 세계 속에 경제적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초석을 마련해준 것이다.

태종대는 흔히 부산에 있는 태종대를 떠올릴 수 있는데, 횡성에도 태종대가 있었다. 태종대는 1984년 6월 2일 강원도문화재자료 제16호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 태종의 즉위 전 스승인 운곡 원천석과 태종의 설화가 남아있는 유적이다. 원천석은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아들끼리 왕권 다툼을 하자 관직을 거부하고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에 은거하였다.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후 1415년 옛 스승인 원천석에게 정사를 의논하고자 이곳을 찾았으나 원천석은 이방원과의 만남을 꺼려 피신하였다. 이방원이 원천석이 간 곳을 물어 바위에서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스승이 나타나지 않자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서원면으로 이동하여, 우리가 답사한 곳은 황성 풍수원 천주교회였다. 1982년 11월 3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된, 강원도 최초의 본당이며 고딕 양식의 천주교 성당이다. 1801년(순조 1) 신유박해, 1866년(고종 3) 병인양요, 1871년(고종 8) 신미양요 등으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해지면서부터 풍수원에 신자들이 모여들어 살기 시작하였다. 박해를 피해 이곳으로 이주한 그들은 화전을 일구거나 옹기를 구워 생계를 유지하면서 점차 신자촌을 이루어나갔고, 이로써 풍수원은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앙촌이 되었다.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가 강원도 황성과 같은 먼 곳까지 전파되었었다는 사실이 신기하였다. 지금이야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천주교를 믿는다는 것이 박해 받아 마땅한 일이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렇게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기에 숨어서 지내며, 그 종교를 지키고자 했는지, 그 애뜻한 마음이 본당을 바라보니, 더욱 느껴졌다.

바쁜 답사일정에, 친구들과 휴식도 취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점심도 먹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소인 갑천면에 가게 되었다. 강원도 황성군 갑천면 대관대에 있는 높이 48.5m, 길이 205m, 총저수량 8690만³의 다목적댐으로 1993년 12월 착공하여 2000년 11월 준공되었는데, 국내 최초로 선택취수방식을 택해 댐 수질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황성댐이 완공되면서 농업 용수와 주변 지역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주시를 비롯한 댐 하류의 중소 도시에 연간 1억 1160만³의 용수를 공급하며, 900만³의 홍수조절 용량을 갖추고 있어 섬강 하류지역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홍수피해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황성댐 주변은 확 트인 것이 아름다운 경관을 하고 있었다. 또한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었다. 물문화관이 무료로 개방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볼 수도 있었다. 주변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정말 경관이 멋진 곳 이었다. 댐을 돌아보니 주변에 자연스럽게 공원이 있

는 것도 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중금리 3층 석탑이었다. 중금리 3층 석탑은 높이 5m의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19호로 형태가 동일한 또 하나의 삼층석탑이 8m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서있는 쌍탑이다. 중금리 3층 석탑들의 원래 위치는 갑천면 중금리 탑둔지의 절터였지만 횡성댐 건설로 인해 탑지가 물에 잠기면서 현재의 곳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일부 부재들은 보충하여 세웠다고 한다. 석탑의 전체적인 느낌은 신라의 석탑과 유사하다고 느껴졌다.

민사고에 들어와서 오랜만에 다녀온 문화유적답사를 통해, 마음의 풍족함을 느낄 수 있었다. 민사고 교내가 아닌 밖으로 나와, 여러 곳의 유적지들을 돌아보니 새삼 옛 것의 소중함을 느꼈다. 옛 것이 있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문화가 없는 국민은 그래서 서글픈 것이다. 문화가 존재한 다는 것은 지금 사는 우리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된다. 항상 그 소중함을 알면서도 잊고 살 때가 많은데, 이렇게 문화 유적지 답사를 통해, 살아있는 문화를 생생히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의미있는 시간이였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한국사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곳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비롯해 민사고 22기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였길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남 해남군, 목포시



민정기

사월의 이른 아침 7시 30분, 설레는 마음을 달래면서 문화탐방을 위한 해남마을과 목포시를 향하여 버스는 힘차게 출발하였다. 버스 밖의 모습은 사월의 푸르름을 맘껏 자랑하고 있었고, 나는 처음 버스를 타고 단체여행으로 인해 들뜬 마음을 간신히 가라앉히고 있었다. 좋은 날씨 탓인지 아니면 단순히 여행한다는 것 때문인지, 거쳤던 휴게소에서 만났던 많은 여행객의 표정들도 나처럼 행복해 보였다.

남창휴게소에 도착해서 점심을 든든하게 먹은 탓인지 땅끝마을로 향하던 버스는 오전과는 다르게 조용해졌다. 조창현 회원님의 판소리창으로 다시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우리는 첫 번째 목적지인 해남 땅끝마을에 도착했다. 약 20분을 걸어서 만난 땅끝마을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내가 사는 대한민국의 끝자락에 도착했다는 것만으로도 묘한 기분이 들었고 약 40m에 달하는 높이를 자랑하는 거대한 땅끝전망대와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 절벽을 비롯한 주변 광경은 꼭 눈에 담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을 정도로 멋진 경치를 자랑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도착한 목포의 상징 중 하나인 유달산은 고도는 높지 않지만, 백두대간과 호남정맥으로 이어지는 영산기맥의 시작이자 종착지인 곳이었다. 예부



터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유달산 일등바위와 이등바위를 거친 다음, 학이나 용머리에 실려 극락세계로 가거나 거북이 등에 실려 용궁으로 떠난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신비한 전설을 알게 되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목포의

많은 곳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서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고 갈 수 있었다.

처음 보는 풍경이 너무 신기하고 멋져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다가 어느덧 해는 서산을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근처 횡집에서 맛있는 활어회를 먹고 1일차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다.

상쾌한 바닷바람과 함께 시작한 2일차 일정은 목포 근대역사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구 목포 일본영사관을 본관으로 쓰는 이 박물관에는 일제강점





기 당시 우리 민족의 상처를 보여주는 여러 사진과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둘러보면서 숙여해졌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등 목포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박물관을 들른 후, 근처에서 여러 기념품을 사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다.

짧은 이동 거리는 아니었지만, 황성에서는 볼 수 없던 많은 구경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해보고 올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운 답사였다. 특히 땅끝마을 전망대에서 봤던 그 장관은 아직도 잊히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진정한 땅끝을 체험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번 답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 작은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이끌어 주고 이런 좋은 체험을 해줄 수 있게 해준 문화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싶다.

신라문화권 (경주 · 부산 일원)



김정예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초등학교 때 소풍가기 전날 밤 잠을 설치던 일이나, 중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 들떠있던 기억들은 아직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아련하게 남아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답사를 떠나기 전 준비 과정의 설레임은 여행에 대해 무언지 모를 기대감을 갖게 한다.

태풍 ‘솔릭’으로 연기됐던 황성문화원 연중행사인 2018년도 관외 향토문화 비교답사가 1박 2일의 일정으로 8월 27일 진행됐다.

답사 대상지는 고대 삼국시대의 신라문화권인 경주와 부산 일원이었다. 새벽부터 내리는 비는 그칠 줄 몰랐지만 황성문화원 임직원들로 구성된 우리 답사팀은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답사 주안점을 숙지하고 협의된 일정에 따라 오전 9시 문화원을 출발했다.

신라문화권인 경주와 부산은 학창 시절 수학여행지로 추억이 있는 곳이고 성인이 되어서는 일상에서의 탈출 여행지로 손꼽히던 곳이다.

중부 내륙권의 교통 중심지인 황성을 출발해 중부고속도로를 경유하니 한낮이 되어 경주에 도착했다.

우리 일행은 고도 경주에서 맛있는 연잎밥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첫 답사지인 불국사의 말사인 골굴사(骨窟寺)로 향했다.



골굴사는 경주에서 감포 방향으로 약 20km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골굴사는 예전에 모 방송에서 소개하는 것을 보아 그런지 낯설지가 않았다. TV에서 방영하는 골굴사 스님들의 선무도 수련 수행을 보면서 중국 무술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소림사를 연상하던 기억이 난다.

골굴사는 불국사보다 200여 년 전에 창건되었는데 약 1500여 년 전 인도에서 건너온 광유 스님과 선인 일행이 경주 함월산에 정착하면서 골굴사와 기림사를 창건했다고 한다.

골굴사는 광유 스님 일행이 인도의 석굴 사원을 본떠 천연 암벽에 조성한 사찰로 국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석굴사원이다.

골굴사 주불인 마애여래좌상(보물 581호)이 신라 문무대왕 수증릉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주변에 관음굴, 지장굴, 약사굴, 나한굴, 신중당, 칠성당, 산신당 등의 굴 법당이 있었다.

이러한 석굴을 보고 있노라니 신라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것 같았다.

우리 답사팀 일행은 오후 3시경 골굴사를 떠나 두 번째 답사지인 부산 해동용궁사로 향했다. 해동용궁사는 부산시 기장군 기장을 용궁길에 소재한 사찰로 고려말에 선승인 나옹 해근선사께서 이곳에 와 지세를 살펴보니 뒤에는 산이고 앞은 푸른 바다가 보이고 있는 명당이기에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위해 절을 지었다고 한다. 그리고 뒷산 이름을 봉래산이라 하였고 절 이름을 보문사(普門寺)라 하였다.

조선 시대 임진왜란 때 사찰 건물이 전소된 것을 1930년대 초 통도사 운강 화상이 보문사를 중창하였고 1974년 승려 정암이 부임하여 절의 이름을 해동용궁사(海東龍宮寺)로 바꾸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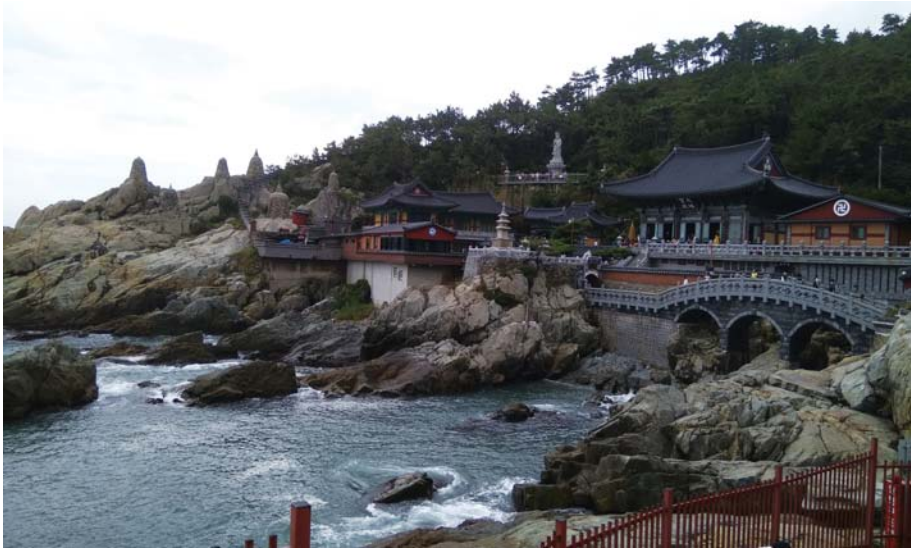
해동용궁사는 대개의 사찰이 산중에 있는 것과는 달리 발아래 바닷물이 보이는 수상법당(水上法堂)이다.

우리나라의 관음신앙이 주로 해안이나 섬에 형성되어 있는데, 강원도 양양의 낙산사와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에 있는 보리암과 함께 3대 관음성지로 해동용궁사는 바다와 용과 관음대불이 조화를 이루어 불심을 자아내게 하는 사찰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일행은 국제시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부산시 중구 신창동에 위치한 국제시장은 6.25 전쟁의 참화와 피난민들의 애환을 담고 있는 재래시장으로 중요한 관광명소가 되었다.

더욱이 2014년 12월에 개봉한 동명(同名)의 영화 “국제시장”은 우리들에게 암울했던 6.25 피난 시절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다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답사지인 자갈치 시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광복 후 시장이 형성되어 남포동 시장으로 각종 드라마의 소재가 되고 있는 자갈치 시장은 한국 전쟁 이후 자갈밭에 있었던 시장이기에 ‘자갈밭과 곳’, 장소를 나타내는 처(處)가 경상도 사투리로 발음하게 되어 “치”가 되어 자갈치가 됐다는 유래가 있다. 부산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 자갈치 시장을 찾아 풍성한



바다회를 즐겨 먹은 추억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도 자갈치 시장에서 모처럼 맛있는 꼼장어 구이로 저녁식사를 마치고 부산 야경을 한눈에 보기 위해 용두산에 있는 부산타워를 찾았다. 용두산은 해발 49m의 낮은 구릉성 산지로 부산의 역사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산으로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이다.

서울 남산에 서울타워가 있다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 용두산에는 부산타워가 있다. 부산타워로 가는 길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오르기 편했다. 부산타워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은 홍콩의 그것처럼 아름다웠다. 더욱이 광안대교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부산 광안리에서 매년 열리는 멀티불꽃축제가 올해에는 10월 27일 토요일에 열린다고 한다. 광안리에서 열릴 국내 최대의 불꽃축제를 연상하면서 숙소인 해운대 피카소호텔에 여장을 꾸니 하루의 피로가 엄습해오는 것 같았다.



8월 28일 아침이 밝았다. 아침 식사는 숙소 근처에 있는 “미포 대구탕”에서 해결했는데, 이곳이 해운대 본점이라 한다. 음식점 내부 벽이 유명 연예인들의 사인으로 가득한 것을 보니 꽤 소문이 난 음식점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중부지방의 호우예보 관계로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박순업 원장님 주재 하에 오늘의 짝 짜인 일정을 부득이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우선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해운대 근처 누리마루 공원 산책길을 따라 걸으며 APEC하우스를 답사했다. 누리마루 APEC하우스는 우리말인 누리(세상, 세계), 마루(정상, 꼭대기)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단체) 회의장을 상징하는 APEC(Asia Pacific Cooperation) 하우스를 조합한 명칭이다. 이곳은 울창한 동백나무와 송림으로 둘러싸인 동백섬에 위치해 있는데 APEC 정상회담(2005년 11월 18일~19일)이 개최된 장소로 유명하고 지금도 각종 국제회의가 열린다고 한다.

2005년 APEC 회의 당시 황성환우가 정상들의 식탁에 올려졌는데 미국 부시 대통령이 아주 맛있다고 원더풀을 연발했다고 한다. 이후 황성축협에서는 최고 등급의 황성환우를 “부시 원더풀”이라 명명해 최고가로 판매했는데 아직까지



고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는 누리마루 APEC하우스를 나와 해운대로에 위치한 부산 아쿠아리움으로 향했다. 부산 아쿠아리움에는 250여 종, 1만여 마리의 해양생물이 있다고 한다. 부산 아쿠아리움은 서울 코엑스 아쿠아리움의 약 1/2 규모이며 국내 최대 규모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1/3 규모이기는 하나 해양 관광 도시로서의 특색이 있어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수족관 내 인어쇼 등의 볼거리는 어린이들의 동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돌고래 상괘이 병원을 체험하는 곳도 있었는데 이곳을 둘러보는 나는 바다생물도 소중한 생명임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발걸음을 다음 행선지로 옮겼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답사지인 “재한유엔기념공원”은 부산시 남구 유엔 평화로에 위치해 있는데 규모는 40,500평이라고 한다.

1951년 1월 18일 유엔군 전사자 매장을 위해 유엔군 사령부가 조성했는데 1974년 관리업무가 유엔에서 11개국으로 구성된 재한유엔기념공원국제관리위원회(CUNMCK)로 위임되어 현재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2007년 10월 24일

근대문화재에 등록되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현재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남아공, 터키, 영국, 미국, 한국 등 11개국의 비전투요원, 무명용사 등 2,300여 구의 유해가 묻혀있다고 한다. 기념공원은 기념관을 비롯해 추모관, 유엔군 위령탑, 무명용사의 길 등의 부대시설로 조성됐는데 추모비 입구 벽면에 이해인 수녀님의 헌시가 새겨져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다시 한 번 뭉클하게 했다.

“우리의 가슴에 님들의 이름을 사랑으로 새깁니다.

우리의 조국에 님들의 이름을 감사로 새깁니다.“

부산을 답사할 때는 날씨도 잘 참아주더니 안동 톨게이트를 나오니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답사지인 병산서원은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에 있는데 가는 길이 비좁은 비포장도로라 맑은 날은 먼지끼나 날 것 같았다. 다행히 비가 많이 온데다 이슬비가 내려 먼지는 일지 않았으나, 덜컹거리는 것이 전신을 운동시켜 주는 것 같았다.

병산서원(屏山書院)의 전신은 고려말 풍산현의 풍악서당(豐岳書堂)으로 풍산 유씨(亦山柳氏)의 교육기관이었는데 이를 1572년(선조 5년)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이 현재의 장소로 옮겨 왔다고 한다.

이 병산서원은 1613년 정경세, 이준 등 지방의 유림들이 서애 유성룡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유성룡의 셋째 아들 유진(柳珍)과 함께 위패를 모신 곳이라고 전해진다.

1863년(철종 14년) 병산서원(屏山書院)으로 사액(賜額:왕이 현판과 특혜를 주어 지정한 서원)되었다. 병산서원은 1868년(고종5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존속한 47개 서원 중 하나로 1978년 3월 31일에 대한민국의 사적 제260



호로 지정되었다.

병산서원 밖에는 달팽이 뒷간이 있는데 진흙 돌담으로 시작 부분이 끝부분에 가리도록 둥글게 감아 세워 놓았는데 그 모양새가 달팽이 같다 하여 달팽이 뒷간이라고 한다. 우리는 달팽이 뒷간에서 조상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배려와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답사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나오면서 병산서원 진입로가 대한민국 사적 제 260호에 맞지 않게 덜컥거리고 비좁은 비포장도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쉬웠다.

흐리고 비 오는 날씨 속에서도 이번 행사에 참가했던 황성문화원 임직원님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2018 관외향토문화 비교답사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린다.

전주, 부여 문화유산을 찾아서



한 상 운
(횡성문화원 이사)

올해도 저물어 가는 10월 중순 횡성문화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백제문화권에 대한 현장학습 답사계획이 있다. 나도 이번 기회에 한번 동참하여 전주·부여지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기로 결심하였다.

오늘은 현장학습을 출발하는날 어제 일기예보에 의하면 일부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흐리고 바람도 있을것이라는 예고였다. 아침일찍 일어나 창밖을 보니 상상외로 하늘이 맑고 청명한 날씨다. 준비물을 갖추어 서둘러 문화원으로 향했다.

문화원에 도착하니 오늘 출발할 관광버스는 벌써 도착하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화원 직원들은 탑승 안내와 출발준비에 몹시 바쁘게 움직이며 준비가 마무리 되고 있었다. 오늘 전통문화 현장학습에 참가하는 인원은 58명으로 회원과 수강생으로 버스 2대에 나누어 탑승하고 운행할 계획이다.

출발과 함께 문화원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행사를 알리는 인사와 문화원장님의 취지설명과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인사로 문화탐방은 시작이다.

첫 순례지는 전주한옥마을이다.

도착까지는 3시간 30분, 모든 참가자는 설레임과 부푼마음으로 기다린다. 중간에 두 번(금양휴게소, 벽곡휴게소) 휴게소에 들러 잠깐 쉬면서 휴식을 취한후 전주로 직행한다.



전주에 도착해보니 시기는 수학여행기간이다. 전주역시 학생들로 만원을 이루고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학생들은 한복으로 단장을 하고 한껏 멋을 부리고 있다. 아름답다. 구경도 식후경이라 우선 전주시내에 있는 오찬장소 <종로회관>으로 직행하여 예약된 메뉴 비빔밥으로 맛있게 배불리 먹었다. 역시 전주는 비빔밥이 향토음식중 전통있는 으뜸 메뉴이고 자랑거리다.

이제는 답사 차례다. 식당에서 근접하고 있는 전주한옥마을이다. 안내자인 사무국장의 안내로 경기전에 도착하여 정문앞에서 단체사진을 우선 촬영하고 답사를 시작한다. 경기전 입구에서 준비한 현수막을 앞에 들고 단체사진을 촬영한다. 답사는 2시간 30분 동안 자유시간으로 경기전과 전주한옥마을을 본인이 선택하여 답사하고 성당앞으로 모이란다. 우리는 우선 경기전 정문앞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매입하고 순서대로 입장한다.

안내자가 없으니 안내 팜프렛을 이용하여 답사 장소를 선택하여 가려하나 막막하다.

우선 보이는 것이 하마비. 하마비는 궁궐,종묘, 향교,서원등의 입구에 세워 이곳이 신성하고 존귀한 곳임을 알리고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말에서 내려 걸어 가라는 표식이다. 경기전 하마비는 본래 홍살문 옆에 있었으나 현재는 정문앞 도로에 옮겨져 있다. 비 전면에는 두줄로 “지차개하마 잡인무득입(至此皆下馬 雜人毋得入)이라고 새겨져 있다. 이곳에 이르는자는 계급의 높고 낮음의 신분 귀천을 떠나 모두 말에서 내리고 잡인들은 출입을 금한다는 뜻이다.

이 경기전(慶基殿)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봉안한 곳이다. 조선은 건국 후 한양을 비롯한 전주,영흥,경주,평양,개경 등 여섯 곳에 태조 어진(御眞)을 봉안(奉安)했지만 현재 전주 경기전의 태조 어진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 경기전 또한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방의 진전(眞殿)이다, 어진은 왕의 초상, 진전(眞殿)은 어진을 봉안한 궁전을 일컫는다. 태조 어진을 봉안한 경기전은 사적 339호이다. 진전 서편은 수복청, 경덕헌, 동.서재 등은 태조 어진을 수호하고 제를 지내기 위한 부속 건물로 1919년 일제에 의해 철거된 것을 2004년 복원한 것이다. 일제는 태조 어진이 봉안된 진전 영역만을 남겨 두고 서편 부속 건물들은 모두 철거하고 여기에 소학교를 건립하였다. 경기전 동편 중앙 초등학교가 여기에 있다가 이전한 것이다.

진전 동편 담자락 너머에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 국가 중요 서적을 보관 하던 전주사고가 자리하고 있다. 조선 전기 4대 사고중에서 임란 때 전주사고본 실록만이 유일하게 보존되었다. 전주사고는 임란 후 철폐되고 여기에 1676년 (숙종2) 별전이 섰다가 1937년 철거되었다. 별전은 일이 있을 때 태조 어진을 임시로 이안하기 위한 곳이다. 현재의 전주사고는 1991년 복원한 것이다.

전주사고에서 동편 문을 나와 경기전 정문 쪽으로 내려오면 구이태실마을에



서 1970년에 옮겨 온 예종대왕 태실이 있다. 경기전 북편에는 1771년 (영조47) 건립된 전주 이씨 시조와 시조비 위패를 모신 조선왕실의 시조시당 조경묘가 있다. 본래 경기전과 조경묘는 별도의 공간이었다. 조경묘 옆에는 2010년 개관한 어전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태조 어진과 경기전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으로 전시실들이 주로 지하 1층에 있고 지상 1층에는 태조 어진실이 있다.

경기전 외신문, 대신문, 정전(正殿)은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홍살문 안쪽에 있는 외신문은 경기전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다. 외신문을 지나면 정전으로 들어가는 내신문이다. 내신문은 외신문과 달리 삼문 좌우에 첨각이 있고 여기에 작은 쪽문이 있다.

경기전 내신문을 들어서면 태조 어진이 봉안되어 있는 정전이다. 정전 앞으로 돌출된 정자각(丁字閣)이 있다. 정자각은 제례시 준소(樽所)가 설치되며 집례

자가 서 있는 곳이다. 정전의 한가운데 감실(龕室)을 두고 여기에 어진을 모셔 놓고 있다.

경기전 후원에 위치한 어진박물관은 태조 어진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경기전의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0년 11월 개관하였다. 지상에 태조 어진을 모신 어진실1, 어진실2, 역사실, 가마실, 기획전시실 등이 있다. 어진실2에는 세종, 영조, 정조, 철종, 고종, 순종 여섯 분의 어진이 모셔져 있고, 가마실에는 태조 어진 봉안 시 쓰였던 신연, 향정자, 가교 등 가마가 전시되어 있다. 또 어진박물관 앞 경기전 부속 건물 뒤 담자락 바로 안쪽으로 굉장히 큰 회화나무가 있다. 높이가 19미터이고 둘레가 328cm이다. 회화나무는 흔히 "선비나무 학자수(學者樹)"라고 부른다. 전주사고 남쪽에 자리한 매화나무는 빼어난 자태로 유명하다. 마치 용이 비상하는 것처럼 하늘로 오르다가 다시 땅을 치고 솟구치는 형상이다.

이렇게 경기전 답사를 마무리 했다.

경기전을 나와 한옥마을을 여기 저기 구경을 하는데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일반 관람객들도 많이 오고 한복을 입은 모습은 전통한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복을 입는 다는 것이 대견스러웠다. 정해진 시간에 성당앞에 모여 버스로 다음 행선지인 부여군 궁남지로 향한다.

한시간 삼십분을 달려 백제정원 궁남지에 도착하였다. 궁남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인공 정원으로 백제 왕궁의 남쪽 별궁에 딸린 인공 연못이다. 삼국사기에 “무왕 35년(634) 3월 궁궐 남쪽에 연못을 파고 물을 20여리에서 끌어들였으며, 사방 언덕에 버드나무를 심고 물 가운데에는 섬을 축조하여 방장선산(方丈仙山)에 비기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본래는 약 3만여 평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이었다고 하나 1965년부터 1967년까지 실시된 복원공사서 그 1/3 정도로 정비되었다고 한다.



경주 월지(압압지)보다 40년 먼저 만들어 졌으며, 당시 궁남지를 만들었던 백제의 건축 기술이 건너가 일본 정원 문화의 원류가 되었다는 기록이 (일본서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당시 백제의 조원 기술은 삼국 가운데 가장 앞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후 통일신라 조원에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걸어가는 수로변 주변에는 연꽃은 없고 피었던 흔적만이 남아 있어 아쉬움이 있다. 일행은 연꽃없는 수로를 경유하여 포룡정에 도착하여 주변경관을 관람하고 모형 국화꽃 조형물을 감상하였다.

해가 서산에 기울기 시작한다. 오늘 저녁 숙소인 부여관광유스텔로 달린다. 저녁식사는 이곳에서 해결하고 편안히 쉬어야 한다. 내일을 위해 충분히 숙면을 취해야지, 다른 회원은 2차도 하고 싶은 모양이군, 들락날락 하는군 하는 생각을 하다보니 피곤함에 어느새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둘째날, 서둘러 조식을 1층 식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맞추느라 바쁘게 움직인다. 모든 짐을 꾸러 1층 식당에서 조식을 간단히 해결하고 주차장으로 향한다. 오늘 첫 행선지인 정림사지 오층석탑 답사를 위하여 버스에 오르며 보니 날씨도 좋고 첫날에 비해 마음도 한결 가볍다.

출발하자마자 도착한다. 어제 묵었던 숙소에서 10분 거리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정림사지 오층석탑은 백제 사비도읍기(538 ~ 660년)에 건립된 사찰로서 나성으로 에워싸인 사비도성 내부의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다. 남북 일직선상에 중문,탑,금당,강당을 배치한 백제가람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고려시대(1028)에 제작된 기와 명문을 통하여 정림사지라 불리고 있다. 백제문화권정비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주변부지를 매입하고 발굴조사를 거쳐 가람터를 정비하여 오늘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정문을 들어 종종걸음으로 연못 중앙을 지나서면 오층석탑이 눈에 들어온다. 백제의 장인들은 기존의 목조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재를 택했다. 세부 구성형식이 정형화되지 못한 미륵사지석탑에 반하여 정림사지오층석탑은 정돈된 형식미와 세련되고 완숙한 미를 보여준다.

조금 앞으로 가면 강당건물이 있고 그 내부에는 정림사지에 남아 있는 석조 불상으로 정림사지 오층석탑과 남북축 선상에 놓여 있다. 지금의 머리와 보관은 제작 당시의 것이 아니라 후대에 다시 만들어 얹은 것이며 신체는 극심한 파괴와 마멸로 형체만 겨우 남아 있어 세부적인 양식과 수법을 알아보기 어렵고 어깨가 뒹뒹하게 내려와 왜소한 모습을 보여준다.

다시 발길을 돌려 정림사지박물관으로 들어서는데 정림사지박물관은 백제 사비시기 불교와 그 중심에 있었던 정림사를 주제로 백제 불교문화를 재조명하



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고취시키고자 건립되었다고 한다. 박물관의 건물형태는 불교의 상징인 “卍”자 모양으로 중앙홀을 중심으로 진입로, 전시실, 관리실등이 사방으로 뻗은 날개 모양으로 상호 연계하여 박물관을 구성하고 있으며, 백제시대 중 가장 화려했던 사비시기의 불교유적등 백제의 꿈과 땀이 담긴 정림사지박물관을 방문하여 직접 보고 감상하여 본다.

다음은 근접되어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걸어서 200여미터 전방에 위치 한다. 가깝지만 걸어서 가자니 날씨가 덥다. 그래도 우리일행은 질서를 잘 지키며 이동하여 정문을 지나 박물관앞에 섰다. 규모가 웅장하고 어마어마하게 크다. 감탄이 절로 나온다.

상설전시실 안내도를 보니 1전시실, 2전시실, 3전시실, 4전시실로 구성되어 있고 1전시실은 부여의 선사와 고대문화실로 부여전역을 중심으로 한 충청남

도의 선사와 고대문화를 살펴볼수 있는 유물들을 전시하였다. 2전시실은 사비 백제와 백제금동 대향로로 백제 사비시기의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사비천도와 왕경문화 능산리사찰과 백제금동대향로, 돌과 나무에 새겨진 백제문화의 세가지 주제로 전시하였다.

3전시실은 백제의 불교문화로 백제인의 우수한 공예 제작기술을 보여주는 불상과 세계적인 건축 감각을 자랑했던 사찰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금동불, 석불, 불상들을 전시하여 백제 장인의 예술혼을 보여준다. 4전시실은 기증으로 빛난 문화재사랑으로 박만식교구를 비롯한 50여 명의 뜻있는 기증자들의 아름다운 선택으로 백제토기 등 350여 점의 기증품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실과 전시품등이 워낙 방대하게 전시되고 있어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한 바퀴를 돌아 답사를 하니 깊이 들여다 보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많은 것을 한번에 들여다 보자니 피곤함이 몰려오기도 한다. 내부에 있는 벤취에서 모두들 잠시 달콤한 휴식을 취하여 본다.

다음 행선지는 백제문화단지내에 있는 백제역사문화관이다. 조금 차량으로 이동하여 제1주차장에 정차한후 오찬 전에 하는 마지막 답사다. 백제문화단지는 말 그대로 1,400년 전 찬란하고 우수한 문화를 꽃피웠던 고대왕국 백제 잊혀졌던 백제의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단지다. 우리는 시간 여건상 백제역사박물관만을 보기로 하고 바쁘게 움직인다.

국내 유일한 백제역사 전문 박물관으로 백제역사와 문화의 전반에 대한 자료 수집,보존.연구,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백제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보여주는 상설전시실, 백제문화단지 조성 과정을 종합 전시한 건립기념관, 백제 관련 영상물 상영하는 금동대향로 극장, 백제정보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전시실을 기웃대며 한 바퀴 돌아서 답사를 마치고 집결장소에 도착하여 휴식을 한다.

먼저 도착한 사람, 답사에 열중한 사람, 나름대로 열심인 것 같다.

관람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답사지인 부소산성이다. 차량을 이동하여 부소산성 가까운 시내에 있는 청목식당에 도착했다. 오전내내 걸어서 답사하느라 지치고 또한 배도 출출하여 허겁지겁 모두들 자리를 차지한다. 꿀맛같은 식사를 단숨에 하게된다.

오찬을 마치자마자 오늘을의 마지막 코스인 백마강, 낙화암, 고란사이다.

버스를 타고 잠깐 이동하여 백마강 선착장에 도착을 한다. 유람선관광을 통한 관람이다. 백제의 제일 큰 강이란 뜻으로 비단결 강물이 흐른다하여 지어진 금강은 규암면 호암리 천정대에 이르러 비로소 백마강으로 불린다. 강을 따라 낙화암, 왕홍사지, 구드래나루터, 부산각서석, 대재각, 수북정, 자온대등으로 이어져 세도면 반조원리까지 이어진다.

승선권을 구매하여 선착장에서 잠깐 기다리며 휴식을 취한다. 강물은 흐리고 바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선착장 입구 강물에는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모여 든다. 관람객들이 자주 먹이를 주나보다. 고기들이 인기척을 아는가 보네, 그러길래 수많은 고기떼가 동시에 모이지 싶어 한참을 들여다 본다.

우리는 배에 승선하여 유의사항 방송을 들으며 낙화암을 향해 달린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풍경을 구경하자니 뱃전에는 백마강 노래소리가 은은하게 들린다. 참으로 즐거운 감탄의 미명이 들린다. 노래소리와 함께 배는 어느덧 고란사 입구 선착장입구에 도착했다.

선착장에서 내려 우선 고란사를 향해 오른다. 가파른 절벽 계단으로 된 오르막길에 숨이 차다. 그래도 단숨에 고란사에 오르고 이곳 저곳을 살피며 사진을 찍고 절 뒤에 있는 샘물을 먹고 한참을 지나다니며 구경을 한다.



이왕이면 낙화암 까지 가야겠다. 낙화암까지는 조금 오르면 된다. 부소산 북쪽에서 백마강을 내려다 보듯 우뚝 서 있는 바위 절벽으로 절벽 아래에는 낙화암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낙화암 정상에는 백제 여인들이 님을 추모하기 위해 “백화정(百花亭)”이라는 육각 정자가 있다. 또 낙화암아래 백마강 절벽에 위치한 고란사는 작은 규모의 사찰로 낙화암에서 목숨을 바친 백제 여인들의 님을 달래기 위해 지어졌다. 고란사 뒤편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고란약수를 즐겨 마신 백제 임금의 원기가 왕성하고 위장병은 물론 감기도 안걸렸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곳이다.

우리 일행은 고란사를 마지막으로 다시 유람선을 타고 달려 구드래나루터에 도착하였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선하여 이제는 버스를 타고 횡성을 향하여 출발한다.

2시간 30분을 달려 횡성으로 가는 차안에서는 모두들 피로함 수면 상태이다.

중간(안성맞춤휴게소)에서 한번 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횡성에 도착한다. 일정을 마무리 하는 줄 았았으나 횡성문화원에서 만찬(명품한우식당)을 준비하여 저녁식사까지 든든하게 먹게 되었다.

그간 답사를 준비하신 횡성문화원 원장님, 사무국장님.과장님.주임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신 문화원 회원님, 수강생여러분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현장학습 답사 글을 올립니다.

천혜의 비경, 라오스를 다녀오다.



민준식

(횡성문화원 사무국장)

2018년 1월 19일 오전 6시 횡성문화원 임·직원 15명은 (횡성문화원 사무국장) 횡성을 출발하여 8시 인천공항 신도시에서 콩나물해장국으로 간단하게 아침식사를 하고 11시 50분 라오스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을 출발 5시간만에 라오스 비엔티엔 왓파이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라오스는 우리나라보다 2시간이 늦어 현지시간으로 3시 30분이었다. 라오스 국제공항은 활주로가 짧아 대형국적기 취항이 불가능하여 저가항공(진에어) 또는 기체가 작은(180명 정도 탑승) 라오스 국제항공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오스에 내리자 30°C 정도의 뜨겁고 자외선이 강한 직사광선이 내리쬐었지만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아서 그날만 가도 비교적 시원하였다. 라오스는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국토의 80%가 산악이며 메콩강 절반가량이 흐르는 열대 몬순기후로 5월부터 10월까지의 우기,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의 건기로 나뉘는 기후의 특성이 있어서 여행일정을 1월로 정하였다. 라오스는 128종족이 모여 나라를 건국했는데 산위쪽에 약 30%, 산중턱에 약 20%, 메콩강 주변에 50%정도가 거주한다. 쉽게 화내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국민성으로 사람도 자연도 순수해서 아름다운 라오스라 한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한곳이지만 선진국 수준보다도 행복지수는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현지 가이드 미팅을 하고 첫 번째 일정인 ‘부처님의 가슴뺨’이 있다고 전해지는 ‘탓투앙 사원’을 관람하였다.

이어서 비엔티엔 중심부에 있는 라오스의 개선문 ‘빠뚜사이’에 들렀다. 5층높이의 나선형계단을 따라 꼭대기 까지 올라가 사방을 보니 넓은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매층마다 기념품 매장이 관광객을 부르고 있었다. ‘빠뚜사이’는 일명 ‘승리의문’이라고도 불리우는데, 60년간 라오스를 강점하던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독립문으로 프랑스의 개선문을 본떴다고 한다. 미군이 비행장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시멘트로 지었다고 하여 ‘서있는 활주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이 건물 서쪽으로는 공산당사, 총리공관과 대통령공관을 밖에서 볼 수 있었다. 저녁으로 한국인이 경영하는 한국식당에서 제육쌈밥으로 식사를 하고 라오스에서 최고층 건물인 25층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라오스는 공산주의국가 이지만 호텔에서는 자본주의 냄새가 물씬 풍겼다. 아침 5시 30분

오랜만에 들어보는 수탉의 우렁찬 기상 나팔 소리에 잠을 깼다. 호텔 조식후 비엔티엔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인 ‘왓사시켓 사원’, 6,000여개의 불상을 모셔 놓은 ‘왓호과깨우 사원’을 관람하고 11시 50분 라오스항공을 이용하여 450km 떨어진 루앙프라방으로 이동하였다.

30분간의 짧은 비행이었지만 여행상품에 따라 11시간 동안 승합차를 타고 비포장 산악길을 넘는 상품도 있다고 한다. 라오스 국내선 여객터미널은 1970년대 후반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황성버스부(터미널) 대합실과 규모나, 시설이 비슷했다.



라오스에서 가장 많은 역사적, 예술적 유산을 가진 루앙프라방은 제2의 도시이다. 18세기까지 옛 수도였던 루앙프라방은 옛날의 왕궁과 수많은 불상으로 가득한 사원, 동굴등을 그대로 간직한 문화와 역사의 도시이다. 1353년 라오스의 수도가 된 이후에 왕조의 정신적 상징으로 1975년 파테트라오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왕궁이 있었다.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할만큼 문화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로 더 많은 여행자들이 방문을 하고 있다. 점심식사후 천혜의 비경 ‘꽝시폭포’, 메콩강 보트관람, 비록 간발의 차로 일몰을 못 보았지만, 푸시산에 올라 석양의 뒷모습을 보기도 했다. 몽족 야시장 관람후 메콩강변에서 돼지고기 스



테이크로 저녁식사를 했다. 내나이 비록 50밖에 안되었지만 태어나 처음으로 “아 돼지고기가 이렇게 질기기도 하구나!” 할 정도로 질졌다. 덕분에 아주 천천히 꼭꼭 씹어 먹었다. 셋째날 새벽 5시에 기상하여 6시부터 20여분간 탁발의식에 참가하였다. 도로 한쪽에 마련된 공양물 바구니에 과자와 찹쌀밥을 준비하



고 신발을 벗고 등근 의자에 앉아 스님이 오기를 기다렸다.

주황색 승복을 입은 스님들의 행렬이 시작되었다. 우리앞을 지나가는 스님들의 어깨에 맨 공양그릇인 발우대에 미리준비한 찰밥과 과자를 넣어드렸다. 건

장한 스님의 뒤에 동자승이 뒤를 따랐다. 모두 맨발이었다. 이의식은 스님들의 수양이자 시민들에게는 공양이며,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얻는 종교적인 행사이다. 이 행렬은 매일 새벽 행해지는 의식으로써 주변의 사원에 거주하는 스님 100여분이 참여한다. 스님들은 보시받은 것 가운데 약간의 밥과 과자를 커다란 빈 바구니에 넣고 가는데 이것을 모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니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행사이다. 라오스에는 2,800여개의 사원과 약 2만여명의 스님이 있는 나라로 모든 남자는 3개월 동안 사원에서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 불교를 더욱 깊이 알기 위해 스님이 되기도 하지만 가난해서 스님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아침식사를 하고 승합차를 이용하여 방비엥으로 이동을 하였다. 중간에 해발 2,300m에 위치한 휴게소에 들렀다. 태기왕의 전설이 있는 황성 태기산(해발 1,261m)의 2배 높이에 휴게소가 위치하고 있으니 놀라울 따름이다. 워낙 높은 위치에 있다보니 산사태로 인한 피해도 많다고 한다.



좁은 도로인데다 길이 구불구불해서 차가 제속도를 내지 못했다. 길가에서 파는 썬 옥수수를 인원수대로 사 지루함과 약간 허기진 배를 달래주었다. 4시간의 이동후 '탐쌍동굴'에 도착하였다. 튜브를 타고 밧줄을 이용하여 석회동굴속 수많은 종류석을 관람하였다. 전기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헤드랜턴을 착용하였다.



이어서 라오스 관광의 제일인 '블루라군' 에서 큰고목과 고목사이를 연결한 13개 구간을 타고 바나나 농장 주변을 버기카를 타고 관광을 하였다.

저녁식사 후 임원님 몇분과 방비엥 거리를 활보했다. 젊은 한국인 배낭여행객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넷째날 호텔 조식후 10m 정도의 넓고 긴 나무관에 우리나라 예초기 엔진(?)을 연결한 룡테일 보트를 타고 메콩강의 비경을 감상하



였다. 실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점심으로 20명 정도 탈 수 있는 배 위에서 식사를 하였다. 대나무 밥그릇에 담은 찰밥과 치킨, 돼지고기요리, 새우 튀김등 다양한 음식은 우리입맛에 딱 맞았다. 강위에서 주변 경관을 구경하면



서 먹는 점심, 더구나 노래방기계에서 들리는 우리 대중가요를 들으며 먹는 음식은 가히 훌륭했다. 우리 일행 말고도 10여척의 배가 오가는데 서로 손을 흔들며 반가움을 표했다. 점심식사후 내륙에서 지하수를 뽑아 올려 소금을 만드는 소금마을을 답사하였다.

현지 아이들 10여명이 우리일행을 반기었다. 초롱초롱한 선한 눈에서 눈웃음과 “안녕하세요”라는 간단한 인사말을 하였다. 저녁식사후 태국이 바다 보이는 메콩강의 야시장 관광을 마치고 3박 5일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문화원 임원 14명이 지난 1년여간 매월 적금을 적립하면서 해외문화탐방을 계획·행사를 추진하시고, 직원대표로 참여의 기회를 주신 횡성문화원 임원님들께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다.

횡성문화원 향토문화유적지 답사기



이윤성

깊어가는 만추의 끝자락에 어릴 적 소풍 가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횡성문화원으로 향하였다.

일년 전에 이곳 횡성으로 귀촌하여 문화유적과 역사에 대하여 알고 싶었던 터라 기대감으로 잔뜩 부푼 발걸음이었다.

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낯선 분들과의 인사가 오고 가고(대부분 귀촌하신분들) 그렇게 출발하였다. 처음으로 간 곳이 강림의병총이었다.

강림리 의병총은 일제 강점기인 1907년 구(舊)한국군대를 강제 해산하자 이에 격분한 병사들과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일어난 의병들로 치악산을 중심으로 민공호 의병장의 지휘 아래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1908년 2월 29일 원성군(지금의 원주시) 소초면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교전 중 피하여 치악산을 넘어서 월현리 허씨의 집에서 머물던 중 이 지역 사람의 밀고로 영월 지역의 관헌과 일본군의 습격을 받고 주천강을 배수진으로 쳐서 싸우다가 5명이 전사하고 나머지 의병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 후 1984년 10월 1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산재해 있던 5명의 분묘를 발굴 수습하여 한 곳에 모아 묘를 만들고 묘역을 정비하였다. “선열들의 희생에 다시 한번 고개숙여진다.”

두 번째 방문한 곳이 조선사극에서 늘 보아왔던 태종 이방원의 어린시절(13세) 학문을 배운 곳으로 알려진 사찰 각림사(覺林寺)가 있던 절터이다. 지금은 표지석을 통해 그 자취를 찾을 수 있다.

세 번째 방문한 곳이 태종대(太宗臺)이다. 태종 이방원과 스승 운곡 원천석이 관계되는 유적이다. 원천 석은 고려 왕정 복고를 위하여 반기를 든 두문동 72인의 한 사람이며 이양소, 남을진, 서견과 더불어 고려 사처사 중 한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는 고려 멸망과 조선조 왕권 쟁탈을 위하여 형제 간의 살육을 통탄하며 분노를 느낀 나머지 관직을 거부하고 개성을 떠나 강림리에 은거하였다. 이방원이 조선조 3대 태종으로 등극하여 왕위에 오르기 전에 스승으로 섬겼던 운곡 원천석을 찾아 다시 관직에 앉히고 정사를 의논하고자 이곳을 찾았으나 원천석은 이곳에 오는 것을 미리 알고 태종과의 만남을 꺼려 피신하여 치악산으로 들어가면서 개울에서 빨래하는 노파에게 자신의 행선지를 거짓으로 알리고 골짜기로 들어갔다. 태종이 이곳에 도착하여 빨래하는 노파에게 운곡이 간 곳을 물었으나 노파는 원천석이 일러 준 대로 거짓으로 가르쳐 주었다. 태종은 그곳으로 가서 스승을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이 바위에서 기다리다 스승이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태종이 운곡을 기다리며 머물렀다 하여 주필대(駐蹕臺)라고 불러 오다가 이방원이 등극하여 태종이 된 후부터 태종대라 하였으며 태종이 운곡 선생을 찾아 부곡리 횡지암에 이르렀다가 운곡이 피하여 만나지 못하고 하행하는 길에 빨래하는 노파를 만나서 가지고 간 예물과 그 뜻을 전하여 달라 부탁하고 돌아갔다고 붙여진 이름이 노구소(老軀沼)이다.

태종 일행이 길을 떠난 후 임금인 것을 알고 임금을 속인 죄책감에 노파가 이소(沼) 빠져 죽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노고소(老姑沼) 혹은 구연(媼淵)이라고도 한다. 노구소를 뒤로하고 찾아간 곳이 강원도 유형 문화제 제69호(1982년 11월3일 지정) 풍수원성당이다.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097번지에 있는 풍수원 성당은 1907년에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건축된 성당이며 전국에서 4번째로 건립된 건축으로 한국인 신부가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성당이다. 강원도 천주교의 발상지이며 한국 천주교의 전기를 마련한 성지로 1세기 가까운 풍상 속에서 의연히 복음을 전파한 도내 고딕식 벽돌 양식 건물의 효시이기도 한 유서 깊은 곳이다.

1801년의 신유박해(辛酉迫害) 이후 1802년 혹은 1803년경에 경기도 용인에서 신태보(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 40여명의 신자들이 8일 동안 피난처를 찾아 헤매다가 정착한 곳이 풍수원으로 이곳은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앙촌이었다. 이곳에서 80여 년 동안 신자들은 성직자없이 신앙생활을 하여 오다가 1888년 서울교구장이 풍수원 성당을 본당으로 승격시켜 초대 신부로 프랑스인 르메르(le merre) 신부가 부임하여 정식으로 교회가 성립케 되었고 춘천, 화천, 양구, 홍천, 원주, 양평 등 12개 군을 관할하여 당시 신자수는 약 2,000명 이었다.

풍수원성당은 초가집 20여칸에 불과했으나 현재의 성당 건물은 2대 정규하 신부가 1896년에 부임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정신부는 손수 설계하고 부지 1,500평을 마련하여 중국인 기술자 진 베드로와 함께 현재의 성당을 착공하였다. 신자들이 옹기 가마를 만들어 진흙 벽돌을 굽고 목재를 준비하는 등 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하여 건축면적 120평의 성당을 1907년에 준공한 후 1909년에 낙성식을 가졌다. 건축양식은 고딕식으로 지붕은 직접 프랑스에서 들여온 두꺼운 동판을 깔았고, 벽돌쌓기에는 백회를 써서 줄눈의 이음새를 처리하였으며, 이러한 대역사는 1년만인 1907년에 완성되었으며 준공기념으로 정규하 신부가 심었다는 느티나무는 거목이 되어있다.

정신부는 45년간 이 성당을 지키면서 광동초등학교의 전신인 성심학원(강원

도 최초의 사립학교)을 세워 교인 자녀들에게 한글·한문·수학을 가르쳐 문맹자를 퇴치하였고, 우수한 학생은 서울 등으로 성직 유학을 보내 국내 어느 본당 보다도 많은 신부(30여명의 한국인 사제)를 배출하였다.

나도 천주교 신자로서 천주교 탄압 시기에 탄압과 억압을 이겨내고 이러한 역사적인 곳으로 길이 남겨주신 것에 고개 숙여 감사와 기도를 드린다.

이어서 간 곳이 망향의 동산인데 2000년초 횡성댐이 완공되어 담수를 시작하면서 갑천면 구방리, 중금리, 화전리, 부동리, 포동리 등 5개 리 258세대는 영원히 물속에 잠기게 된 수몰민들은 고향을 떠나면서 고향에 대한 정을 잊지 않기 위해 구방리 옛 화성초등학교 옆 야산에 망향의 동산을 만들었다. 수몰민들의 애환이 깃든 가구와 수몰되기 전의 흔적들을 전시해 놓은 공간이다. 망향의 동산에는 기념비와 더불어 중금리 탑둔지에 있던 중금리 3층 석탑 2기와 화성정이 건립되어 있다. 횡성 호수 주변에는 횡성호와 주변의 산을 테마로 하여 갑천면 일원에 총30km 6코스의 둘레길을 조성하였다.

횡성 지역의 역사 깊은 문화유적과 횡성호 주변에 경관이 수려하고 걷기 좋은 황토의 둘레길이 여러 곳에 조성되어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힐링(healing)할 수 있는 곳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이 귀촌을 잘 했던 생각을 하게 만든 하루였던 것 같다.

끝으로 오늘 수고하신 박순엽 원장님을 비롯하여 문화원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귀농귀촌인 향토문화유적지 답사

횡성문화원 향토문화유적지 답사기



이현희

횡성군 횡성문화원(원장 박순업) 주관 “2018년 횡성군 귀농 귀촌인 향토문화유적지 답사”가 가을의 끝자락 10월29일에 있었다.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 횡성문화원을 출발하였다.



첫답사지는 강림면 ‘강림의병총’

일제강점기 한국군대 강제 해산에 격분한 민공호 의병장이 이끄는 60명의 의병들이 자원봉기하여 치악산을 주심으로 조국독립을 위하여 일본군과 교전 중 전사한 의병 5명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곳이다.



IV · 문화유산을 찾아서



차량으로 이동하여 치악산 입구에 태종 이방원이 13세의 어린 시절 운곡 원천 석에게 학문을 배운 곳으로 알려진 지금은 표지석을 통해 그 자취를 찾을 수 있는 각립사(임진왜란때 소실) 옛 터를 거쳐 태종이 스승 운곡 원천석을 기다리며



머물렀다는 태종대와 운곡 원천석의 부탁으로 임금을 속인 죄책감에 노파가 빠져 죽었다는 “노구소”도 답사하였다.

서원면으로 이동하여 오전 마지막 코스 “풍수원 성당”

주차장 한켠에 교우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 무인판매대”가 눈길을 끈다.

답사기념 단체사진 촬영 후 “십자기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은 잊은 채 황금길 주변 풍광에 마음을 빼앗겼다. 유물전시관에 들러 초보농군 어린시절 우리 어른들이 사용했던 갖가지 유물들을 관람하며 과거와 현재를 오간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불과 몇십년 사이 지금은 골동품이 되어버린 유물들을 관람하며 우리 어른들의 인고의 세월 앞에 고개가 숙여진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점심식사는 신토불이 두부전골로 맛있게 잘 먹었다.
 식사 후 차량으로 다시 이동하여 갑천면 구방리 망향의 동산을 답사하고 고향





을 잃은 횡성호 수몰지구 주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되새기며 횡성호수길 제5 구간 산책을 하였다.

조형물까지 차오른 횡성호의 수위가 만수위를 짐작케 한다. 푸른하늘 맑은 물 호수길을 따라 거닐며 각종 조형물과 쉼터, 포토존이 탐방객을 반가이 맞이한다.

귀농 4년차 초보농군 부부 횡성문화원의 향토문화유적지 답사를 통하여 횡성의 문화와 지역정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미있는 하루였다. 오늘 답사 일정 내내 답사지 해설로 도움을 주신 횡성문화원 박순업 원장님과 민준식 사무국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횡성 향토문화유적지 답사기



송혜영

10월의 마지막 날, 횡성문화원 주관으로 횡성군 관내 문화유적지와 홍천군 공작산에 있는 수타사 답사가 있어서 문화원 수강생들과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울긋불긋 단풍도 막바지에 이르러 쾌청한 가을 하늘과 잘 어우러진 날이었다.

오전 9시 문화원을 출발하여 처음 도착한 곳은 강림면 강림리에 있는 의병총이었다. 일제가 1907년 구(舊) 한국군대를 강제해산하자 이에 격분한 병사들과 백성들이 민공호 의병장 지휘 하에 강원도 일대에서 일본군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일본군의 기습으로 주천강 근처에서 5명이 전사하고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자 몰래 장례를 치루고 산에 묻었다. 그 뒤 1984년에 흩어져 묻혀있던 의병 5명의 분묘를 발굴하여 한곳에 모아 묘를 만들고 묘역을 정비하여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민공호 의병장의 이름이 왠지 낯익었는데 얼마 전 뉴스에서 안타까운 기사를 접한 때문이었다. 문화원 원장님께서도 그 사건을 언급하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카자흐스탄 스케이트선수 데니스 텐이 피한의 칼에 찔려 겨우 25세의 나이로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그가 바로 민공호 의병장의 외고손자라는 사실이었다. 민공호 의병장이 일본군에 의해 피살되고 나서 그의 가족들은 일제의 눈을 피해 연해주로 떠났다가 그 후손들이 고려인이 되어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백여 년을 거슬러 의병들의 살신성인에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게 되는 시간이었다.

다음은 태종 이방원이 어린 시절 (13세) 운곡 원천석에게 학문을 배운 곳으로 알려진 사찰인 각림사로 향했다. 태종과 세종의 후원과 지원으로 웅장한 사찰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현재는 강림우체국 옆에 표지석으로만 남아 있어 아쉬움이 컸다.

다음으로 태종과 그의 스승 운곡 원천석의 일화가 있는 유적지인 태종대에 들었다. 이방원은 조선조 3대 태종으로 왕위에 오르기 전 강림리에 은거하고 있던 스승을 찾아오게 되는데, 고려멸망과 조선조의 왕권쟁탈에 분노하였던 운곡은 태종을 피하여 치악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태종은 운곡을 기다리다 끝내 찾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태종이 운곡을 기다렸던 바위를 '주필대(駐蹕臺)'라고 불러오다가 태종이 된 후부터 '태종대(太宗臺)'라 하였고 비석에 비각을 세워 보호하고 있었다. 주변 경관은 암벽과 맑은 계곡이 어우러져 비경을 자아내고 있었는데, 첩첩산골까지 스승을 찾아온 태종의 마음, 그리고 만나지 못하고 애석해 하며 떠났을 태종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잠시나마 태종이 상심하고 떠났을 그 때를 헤아려 보았다.

운곡이 태종을 피하기 위해 개울에서 빨래하던 노파에게 자신이 가는 방향을 반대로 알려주라고 부탁하게 되는데, 이후 임금에게 거짓을 아뢴 것을 알게 된 노파가 그 죄책감으로 소(沼)에 빠져 죽었다는 유래가 있다는 노구소(老軀沼)도 둘러보았는데 그 슬픈 이야기가 벽화로 그려져 있어 더욱 애잔하였다. 강림이라는 한 지역에 이렇듯 많은 역사가 담겨있을 줄 몰랐던 터라 오늘의 탐방을 계기로 가족, 지인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둘러보리라 결심하고 풍수원 성당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69호인 풍수원성당은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건축된 성당이며 전국에서는 4번째로 건축되었다고 한다. 풍수원성당은 그 문화재적 가

치가 높고 주변 풍광이 아름다워 신자가 아닌 이들도 자주 찾게 되는 황성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이다. 1801년 신유박해를 피해 40여명의 신자들이 정착한 곳이 풍수원으로 80여 년 동안 성직자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프랑스인 르메르 신부가 최초로 부임하게 되고 그 후 2대 정규하신부가 부임하면서 신자들의 웅기가마를 만들어 진흙벽돌을 구워가며 고딕양식으로 현재의 성당을 짓기 시작하여 1907년에 완공되었다고 한다. 10여 년 전 처음 황성에 와서 살면서 거의 매년 한두 번은 풍수원 성당을 찾곤 했는데, 그동안 성당건물 주변 환경이 더욱 잘 가꾸어지고 민속박물관까지 생겨서 황성의 대표적인 문화유적관광지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가을엔 추어탕이 보양식으로 최고라는 문화원장님의 설명과 함께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나서 우리가 탄 버스는 흥천 수타사로 달려갔다. 도착하자마자 입구에서부터 숲 해설사의 위트 넘치는 설명을 들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절 안으로 들어섰다. 수타사는 공작산 기슭에 있는 절로서 신라성덕왕 7년(708년)에 창건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고 이후 숙종 9년(1683년)에 재건하였다고 한다.

이곳에 소장된 중요 문화재로는 <월인석보>가 있다. 이 책은 원본으로 보물 74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합하여 편찬한 불교대장경을 말한다. 석보는 석가모니의 연보 즉 일대기를 뜻하는데 1446년 소현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아들인 수양대군(세조)이 불교서적을 참고하여 한글로 번역하여 편찬한 것이 석보상절이다. 1447년 세종은 석보상절을 읽고 각각 2구 절에 따라 찬가를 지었는데 이것이 월인천강지곡이다. 수타사 인왕문에 있는 사천왕 상의 복장에서 발견되었다. 6백여 년 전, 세종이 한글을 처음 창제할 당시의 초간본을 이곳에서 직접 원본으로 볼 수 있다니 참으로 감격스럽지 않은가! 귀하다 귀한 책이라 큰 경외감이 느껴졌다. 수타사는 이외에도 많은 문화재

를 소장하고 있어 영서내륙 최고 고찰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또한 홍천군은 수타사 주변 계곡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산소길을 조성해 놓았는데, 우리의 일정에는 산소길 탐방도 들어있었기에,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아쉽지만 수타사 문화재 해설사의 열정적인 해설을 뒤로 한 채 서둘러 산소길 탐방에 나섰다. 맑은 물소리와 함께 계곡 길을 걷다보니 마음 또한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깡소’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생경한 단어인 ‘깡’이 무언가 헛더니 통나무를 파서 만든 소여물통이라고 한다. 암석으로 이루어진 협곡이 깡처럼 보인다고해서 깡소라고... 그리고 깡소 출렁다리를 지나 계곡 반대편으로 돌아오는 코스였다. 수타사 산소길은 완만한 경사여서 걷는데 무리가 없고 계곡이 아름다워 많은 이들이 찾는다고 한다. 횡성에도 최근 갑천면 ‘망향의 동산’ 주변에 호수길이 깔끔하게 정비되어 호수를 바라보며 산책을 즐기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 싶었는데, 홍천 산소길 또한 희고 너른 바위와 계곡물을 끼고 한 바퀴 돌아보는 느낌이 일품이었다.

수타사를 마지막으로 답사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횡성이 충절의 고장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의병총 앞에서 새삼 조상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감사와 슬픔이 교차하는 감정이 일었고, 태종이 다녀간 태종대 그리고 풍수원 성당과 수타사를 둘러보면서 현재의 나는, 백년 아니 천년의 먼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숙연하고 경건해 지는 하루였다. 오고 가는 길 내내,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도 문화유적지의 안내를 위해 해박한 지식으로 소상하게 설명해주신 문화원 원장님,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 여러모로 애쓰신 문화원 관계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평화지대를 꿈꾸는 물 문화 탐방

코끝에 느껴지는 평화, 화천 파로호와 평화의 댐



채 명 지

햇살 따뜻한 날이었다. 야의 견학이라 펍 두툼한 패딩을 챙겨입고 횡성 문화원으로 향했다. 도착해보니 큰 버스 앞에서 문화원장님과 직원 분들이 맞아주신다. 한국수자원공사 횡성·원주권 지사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공해준 버스라고 한다. 버스 안은 이미 설렘이 가득하다. 단체 견학은 나 또한 꽤 오랜만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나선 오늘의 견학이 괜히 기대가 된다.

오늘의 목적지는 화천에 위치한 파로호와 평화의 댐이다. 파로호는 북한강에 위치한 인공호로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인 화천 파로호 전투가 있었던 곳이며 평화의 댐은 북한에서 흘러오는 물을 맞이하는 첫번째 댐이다. 치열했던 전쟁과 한반도 평화와 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먼저 파로호로 향한다. 한참을 달려가는데 옆 차길이 요란하다. 햇빛을 가리려 내려둔 커튼을 젖혀 밖을 보니 한무리의 탱크가 지나간다. 오늘 방문할 곳들과 겹쳐지며 추운 겨울 탱크 밖으로 상반신을 내놓고 정면만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어린 장병들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묘해진다. 걸으면 평화롭지만 저 속은 전쟁이리라.

도착한 파로호는 화천댐 직원분들이 우리를 맞이해주셨다. 파로호의 원래 이름은 대봉호라고 한다. 하늘에서 보면 호수 모양이 마치 큰 새와 같다고 해서

전설 속의 새 대붕을 본 따 지어졌다는 설이 있다. 대붕은 한 번 날갯짓을 하면 구만리를 간다고 하는데 마침 옆 마을의 이름이 구만리라고 한다. 파로호란 이름은 이승만 대통령이 깨뜨릴 파, 오랑캐 오, 호수 호, 오랑캐를 무찌른 호수라는 뜻의 ‘파로호’로 명명하였는데 발전소가 있던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 당시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중공군 2만 4천여 명이 수장된 곳이 이 파로호라고 한다. 파로호가 위치한 화천댐은 일본이 대륙 침략을 위해 지은 수력발전소로 1939년 착공하여 1944년 완공된 낙차 최대규모이다. 꽤나 난공사라 많은 사람들이 준공당시 희생되었다고 한다. 대부분이 강제 징용자였다니 마음이 아팠다. 발전소는 우리가 방문한 곳에서 6킬로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국전쟁이후 남한 전력의 30퍼센트를 담당하였다고 하니 여러모로 중요한 격전지였다는 것이 느껴졌다.

파로호 입구에 놓여진 미군 부대의 전승비와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 ‘파로호’ 비석 옆으로 마치 산속의 바다 같은 파로호가 펼쳐진다. 이렇게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호수에 그렇게나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니 쉽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다.



댐은 출입이 제한된 곳이지만 화천댐 관계자의 배려로 댐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다. 그곳에는 대붕제라고 쓰여진 초석이 있었는데 일본식 연호(소화 昭和)가 쓰여진 년도 부분이 파여있었다. 누군가가 판것이라고 하는데 일제시대의 분노가 그대로 느껴진다.

대봉제라고 쓰여진 한자어 중 ‘봉’의 한자에 날 일자가 더해져있다. 한자어를 바꾸면서까지 정기를 약화시키려 했더니 일제의 집요한 악랄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댐에서 나오는 길에 저절로 모노레일이 보인다. 예전에 호수에 물고기를 방류할 때 이동수단으로 쓰였던 어로인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파로호의 어업권은 화천군에서 모두 구매하여 수질관리 중이고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니다. 따라서 어업은 불가한가끔 낚시를 하는 이들이 있다고.



다양한 민물고기가 살고 있는 파로호에 왔으니 매운탕을 먹어볼 차례. 파로호와 작별인사를 하고 강을 따라 내려온 곳에 위치한 정갈한 매운탕집으로 향한다. 나는 사실 민물고기를 많이 접해보지 못한터라 살짝 걱정이 되었지만 뜨끈한 국물 한 숟갈을 먹자마자 그것이 기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종류의 깔끔한 밑반찬이 입맛을 북돋아주고 보글보글 끓는 신선한 매운탕이 속을 데워준다. 커다란 창 밖으로 파로호를 바라보며 먹으니 눈도 입도 호사를 누린다. 이제 배도 든든해졌으니 다음 목적지인 평화의 댐으로 출발한다.

굽이 굽이 높은 산으로 한참을 오르는 버스 안에서 바라보는 창 밖 풍경은 고요하고 평화롭다. 견학 초반부터 계속해서 많은 생각이 스쳐지나 간다.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은, 나와 함께 이 버스를 타고 가는 많은 분들이 겪은 전쟁의 시간.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 그 세월을 저 산들도 함께 이겨낸 것이겠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높은 산고에 위치한 평화의 댐에 드디어 도착했다. 지은 지 얼마 안된듯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세계평화의 종. 흡사 에밀레종을 닮은 이 큰 종은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총알과 탄피로 만든 무게 1만관(37.5ton)의 종이라고 한다. 종의 머리부분에는 4마리의 비둘기가 앉아있는데 그 중 북쪽을 바라보는 비둘기의 날개 한 쪽이 없다. 무게 1관(3.75kg)의 날개 한 쪽은 앞쪽에 전시되어 있는데 후에 통일을 하면 날개를 붙여 완벽한 1만관의 평화의 종이 완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칠 수 있는 종중 세계에서 가장 큰 종이라고 한다. 열 명씩 짝지어 기념사진을 찍은 후 종을 쳐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뼘으로 잡히지 않는 두께의 커다란 종의 맑고 깊은 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졌다. 가만히 그 울림을 손을 대어 만져보기도 했다.

평화의 종을 지나면 전반적인 평화의 댐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이 있다. 1차 평화의 댐은 북한의 수공과 홍수를 대비하여 1987년 2월에 착공하여 1989년에 완공하였다. 이후 2004년, 2012년 2번의 증축을 거쳐 현재 국내 최대 높이의 댐이 되었다. 평화의 댐은 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따로 수문이 없고 댐 옆으로 물을 흘러 내보내는 여러개의 여수로가 있다. 화천 토박이 해설사 분의 말씀으



로는 어릴 적 아주 큰 비가 내렸을 당시 평화의 댐 덕분에 동네 마을에 집이 한 채정도만 유실되고 집집마다 물이 조금 넘칠뿐 아주 극심한 피해는 면했다고 한다. 간간히 북한이 예고없이 물을 방류 했을 당시에도 선방 하였다고 하니 그 호된 비판을 받았던 댐도 간간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것이 어딘지 모를 위안이 되었다. 전시관 입구에 예쁜 평화의 댐 풍경의 엽서를 쓸 수 있으니 관심있다면 오랜만에 휴대폰 메시지가 아닌 손으로 꼭꼭 눌러쓴 엽서의 낭만을 즐겨보는 것도 좋을듯 하다.

전시관을 나와 댐을 바라보고 옆 내리막길을 걸어내려가면 언덕에 비목이 서 있다. 어느날, 군 복무 중이던 초급장교가 화천 백암산 부근에서 십자나무에 철모만 놓여진 이름 없는 무명 용사의 돌무덤을 발견한다.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표식은 보이지 않고 무덤 옆에 흰 산목련만 피어있다. 전쟁이 끝난지 10년

이 지났어도 코 끝에 화약 냄새가 스쳐가는 비목을 보고 조국을 위해 죽어간 선열들을 기리기 위해 시를 쓴다. 이 시는 훗날 가곡 〈비목〉의 가사가 된다. 해설사님의 제안으로 다같이 한 구절을 불러보았다.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지녘에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친구 두고 온 하늘가그리워 마디마디 이끼 되어 맺혔네”

인적드문 산 속에 고요히 울려퍼지는 구슬픈 노래 가사는 다시금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해설사님과 작별인사 후 댐 아래로 내려가 보았다. 평화의 댐 벽에는 최대 크기 벽화로 기네스 북에 오른 93.5m x 60m의 트리아트가 있다. 큼지막한 문 너머에는 화창한 하늘과 평화의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댐 앞 쪽으로는 세계에서 보내온 평화의 종들이 전시되어 있고, 이제는 그 역할을 다한 전투기, 탱크가 예술 작품으로 탄생된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기다란 탱크 주둥이에는 노란색 나팔이, 전투기 끝에는 무지개가 피어나고 있다. 다시 횡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타러가는 길. 저 멀리 형형색색의 탱크 앞으로 천천히 어르신이 지나간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버텨낸 산과 물과 탱크와 사람들. 이제 우리의 코 끝엔 화약 냄새가 아닌 평화의 향기가 퍼지길 바라본다.

이번 파로호, 평화의댐 탐방 대상은 횡성문화원 임원, 문화원 문화학교 강사 등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의 역할과 물 관리 및 치수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게 해 준 유익한 탐방이었다.

끝으로 평화의댐문화권 답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한국수자원공사 횡성·원주 관리권 지사와 횡성문화원 관계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V. 문예마당

*몽환의 사유 길을 걷다, 하늘아래 첫 학교 '태기분교' 를 다녀오다. | 정재영 2편

*소리의공덕 (시) | 최보정

*故)이연승작가 동시비건립 21주년기념 글짓기대회 동시, 산문 입상작 각 1편



정재영

1982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이 당선되고
1988년 '문예사조' 신인상에 중편소설이 당선 돼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문단정화위원회 위원)

한국소설가협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황성지부 회장

장편소설 '아름다운 것들'

중편소설집 '물속에 뜬 달'

소설집 '바우'

포토에세이집 '섬강에서 그리움을 만나다' 외

Photo Essay

몽환^{夢幻}의 '사유^{思惟}길'을 걷다.

글/ 사진 : 정재영



밤새
호수 찾아오신
반달님과 농염한 사랑에 빠졌던 '횡성호'는
지독한 안개 이불삼아
깊은 그루짐속에 잠들어 있었다.

오늘 아침.



세벽 미명^{未明}.
베란다 블라인드 걸히니
사위^{四圍}는
온통 안개다.

대충 마른세수 마치고
애마 '계타' 양 부리나케 깨워
'한치고개'를 넘었다.

순전히 아침 안개에 미혹 돼.



이승 떠도는
'영혼의 미림자'라고 했던 가?
안개를..

진즉에 찾아 온 가을이
살포시 가리한 황성호는
무 영혼들의 미림자들이
스멀거리며
강물 흐르듯
그렇게 피어오르고 있었
다.





몽환적인 그 사유의 호수길
 '가분~가분'
 거닐어 본다.

내 마음자리 사유의 안테나 한
 께 울리고.



행여
그루짐 속에 폭 빠진
안개 속 호수
잠 깨어날 까 조심스러
워
카메라 셔터 소리 내기
도 두렵다.

그 고요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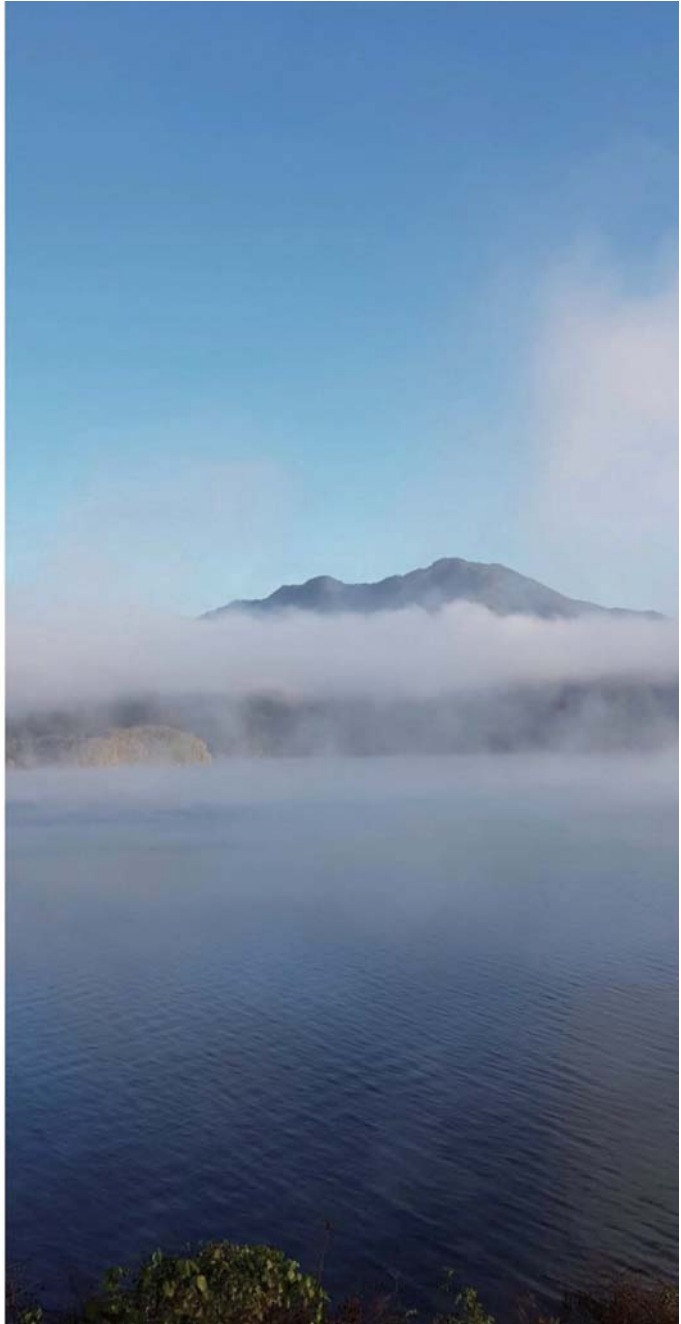
서터 소리에
놀란
물오리 떼
'후드두~둑'
호수를 차며 비상을 한다.

그 비상하는 날개질 소리에
호수도 감을 깨고.

이십여 년 전
수하리^{水下里}.
도타운 고향 차가운 물
속에 잠기기 전.

부엌 부지깥이도 쓸모가
있다는 대가운 농번기였
을테지
지금쯤.

품앗이로
잡질마다 돌아가며 벼
타작 하던 때.





동이 뜨기 전

이미

관순불 환하게 밝혀놓고

'외풍~외풍'

탈곡기 발로 밟으며

새벽 견누리 때 마신 막걸리로

얼굴 불쾌해져

신나는 '횡성 어러리' 한 자락 땀아 운렸을 테고.

탈곡기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황금 나락에

주인 입은 벌써 귀에 걸렸을 테지..



그런
도타운 마을들은 이제는
없다.
'아슴아슴'
수물민들 뇌리에만 남아
있는데..
침묵처럼 차가운 물속에
서
깊은 잠 갈테지

고향마을
수하리는..



허정~허정
호수길 걷는
내 뇌리에
'외풍~외풍'
벼 탈곡기 소리 들려오는 듯 해

나는
연설
안개 속에 침잠 돼 있는
빈호수를 뒤돌아 봤다.



정녕
꿈길 같기만 했던
그
몽환^{夢幻}의 '사유^{思惟}길' 위에서..



Photo Essay

하늘 아래 첫 학교, '태기분교' 를 다녀오다.

글/ 사진 : 정재영 (小說家, 횡성문인협회 회장)



둔내면 사무소에서

‘둔내면지(屯內面誌)’ 중간보고회가 있었다.

올 봄 첫 보고회를 가진지 7 개월.

비쁜 농사일 하며

그야말로 ‘주경야독(晝耕夜讀)’ 하며 원고를 썼다.

가 제본(製本)된 650 쪽 ‘면지’ 를 보니

감회 남다르다.

屯內面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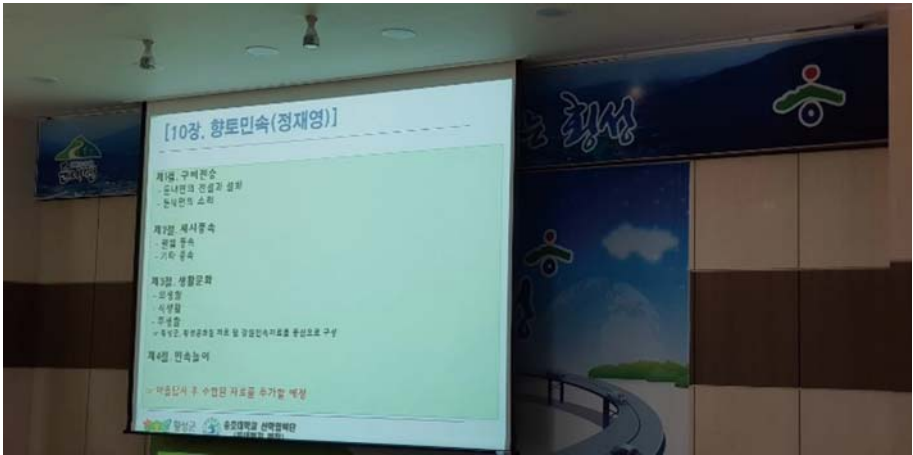
2018

둔내면
[Dunnae-myeon]

屯內面誌

2018

屯內面誌編纂委員會



면사무소 앞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뜬금없이

‘양구두미재’ 를 넘어 **‘태기산’** 을 올랐다.

평창 동계올림픽 즈음 해 개통한 터널로

양구두미재는 통행차량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고개를 오르내리며 단 한 대의 차량도 못 만날 정도로.



하늘아래 첫 학교

'태기분교' 는 해발 1261m '태기산' 정상아래 있었다.

올 봄

조성 된

'태기산 국가생태 탐방로' 개설로

태기분교 까지는

비교적 수월하게 차량을 이용 해 갈 수 있다.



진한의 마지막 왕 '태기왕' 이 신라 '박혁거세' 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천리 길
패잔병 이끌고 이곳 태기산 자락에 터를 잡았었다지.

잃었던 나라 되찾기 위해
산성을 쌓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며..

허나 이 소식 듣고
이곳까지 쫓아 온 박혁거세는 평창 쪽에서 불의의 기습을 감행 해
태기왕은 마침내 통한의 마침표를 이곳에서 찍었다고 하고.



그 회한의 땅에
마을이 들어선 건 1968년.
강원도 전역에 있던 화전민 74가구를 이곳에 불러 모아
대대적인 개간사업을 벌였다.

그야말로
내 땅 한 꼬레이 없이 화전 불 지르며 부초처럼 떠돌던 화전민들은
내 땅이 생긴다는 부푼 꿈을 안고
이곳을 찾아 들었다.

원시림을 베어내고, 나무뿌리를 캐고 돌맹이를 골라내며
그네들은 지난한 개척의 삽질을 했다.

미국 원조 밀가루와 옥시기 가루로 연명하며.



그 때 부모를 따라 이곳에 들어 온 아이들 104명.
 그들은 부모 따라 이 산 저산 떠돌아다닌 탓에
 언감생심 학교 근처는 생각도 못하고 문맹자로 살았었다.

다른 친구들 학교 다닐 나이
 화전민 아이들은
 동생을 등에 업고 엄마 따라 집안일을 돕고,
 남자 아이들은 제 키 보다 큰 지게를 짊어지고
 아버지 따라 가파른 화전밭 오르내렸다.



배움이 한이 된 그 아이들 앞에
현대판 상록수 같은 이명순 교사가 나타나
까막눈이 아이들에게 연필을 들려주고,
'가가거겨' 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한 여름 띄약벌 피해 나무그늘아래서,
소나기 **'후두둑'** 거리면 남의 집 헛간을 교실로.

눈물겨운 수업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케어' 원조를 바탕으로
마침내 백 평 짜리 교실이 지어졌고
104명의 아이들은 '봉덕국민학교 태기분교' 간판아래서
정규 교육을 받게됐다.

1968년.



1976년

‘화전 정리법’ 이 발표되고 이 땅의 화전민들은 모두 산에서 내려와야만 했다.

태기산 자락에 부푼 꿈 안고 살았던 74가구 화전민들도

다시 이삿짐 싸야했고.

‘태기분교’ 도 개교한지 9년 만에 문을 닫았다.



세월은 흘러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조림한 잣나무들이 무성한 원시림을 이루었다.
104명의 아이들 재잘거리던 학교는 사라지고
주춧돌만 잣나무 숲속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

지난 해
‘태기산 국가생태 탐방로’ 가 개설 되면서
태기분교가 있던 자리에

자그마한 건물이 들어서고
태기분교의 자취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았다.



그때 화전민들이 사용했던 생활용품들,
그리고 아이들 모습 사진,
그 아이들이 사용했던 교과서 까지.





태기왕이 그 당시 쌓았다는 산성을 찾아 사진이라도 찍어놓으려

혼자서

태기산 자락 한 시간 반 헤매봤지만

끝내 산성 가는 길 못 찾고

'허정허정'

산을 내려왔다.

다음은 기약하며..

소리의 공덕



최보정

내 귀는 얇아서 촛불처럼 예민해서
좋을 게 없지 내 귀뿌리 커서 싫구나

지나는 바람결에도 흔들리면
훗날, 속절없이
머언 먼, 하늘 보며 울수도 있겠지

친구야, 흔들지마
내 귀는 얇어
부지불 가난을 산다는 것은
고독의 소리를 즐겨야해

귀뿌리 누르며 아픈 머리 달래며
큰 수술마친 동생을 퇴원시키러 가는 오후

달디단
가을공기 마시며
강이 보이는 휴게소에서
우동 한 그릇
호로록 호로록 소리에
시름도 잠시 쉽다

(故) 이연승작가 동시비건립기념 입상작품집(2018)
동시부 (최우수)



우리 집



최수연 (정금초등학교 4학년)

우리집은 햇살처럼 따뜻해요
엄마의 사랑스러운 가슴과
아빠의 넓은 마음과
동생의 애교가 넘쳐요

우리집은 사랑이 넘쳐요
길고양이도 가족이 되고
강아지도 가족이 되고
지나가는 바람도 가족이 되지요

우리집은 행복해요
엄마는 호호호
아빠는 허허허
동생은 깔깔깔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요



(故)이연승작가 동시비건립기념 입상작품집(2018)
산문부 (최우수)

가을 바람 친구

이 예 원 (유현초등학교 6학년)

가을 바람. 쌀쌀하게 불어온다.

가을은 혼자 쓸쓸하게 바람과 날아간다.

사실은 오늘 친구랑 다투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어 가만히 서 있었다. 그때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오늘따라 유독 차갑게 불어오는 것 같더니 얼굴 위로 찬 물방울이 흘렀다.

“넌 어떻게 너 생각만 하니?”

“너 같은 애는 친구도 아니야!”

라는 친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악몽을 꾸듯 기분이 착잡했고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지만 아무도 내 이야기를 안들어 줄 것 같아 마음에 무거운 무언가가 천천히 쌓여가는 기분이었다.

그때 ‘괜찮아 괜찮아’ 라며 말을 하는 것 같아 고개를 들어 보았더니 가을 바람이 나뭇잎과 함께 불어오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바람과 친구가 되었다.

바람이 ‘나는 이제 가봐야 돼’ 라고 말을 하였다.

나는 ‘친구야 잘가’ 라며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내일은 웃는 얼굴로 그 친구를 만나봐야지!



황토문화 지킴이 황성문화원

NATURE AND THE CULTURE LIVES

THE DISTRICT VILLAGE BOARDING 2ND DISTRICT CULTURAL CENTER

AN EVENT	MORE
제76회 황성년일축제	2017/08/14
제6회 동네고행자 토마토 축제	2017/08/08
제19회 황성군민의 날	2017/06/16
우리소리 전통시구	2017/06/16

공지사항	다보지
• 2017년 제10회 황성광삼민속축제 위...	2017/09/25
• 2017 제18회 황성당삼막삼속재 위호...	2017/09/04
• 2017 황성문화원 하반기 문화학교 개...	2017/08/14
• 2017 여름방학 전통문화 체험학습교...	2017/07/14
• 2017 황성문화원 하반기 문화학교 개...	2017/07/14

황성의 역사
차별과 문화의 융합 - 황성 100년...
황성의 역사

자료검색 60

황성문화원

문화인식

정문 일 단편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갤러리

VI. 문화원 소식

*2018년 문화원 사업실적

2018 문화사업실적

♣ 횡성문화원 준공식 개최

▶ 횡성문화원은 향토문화발전과 군민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새원사를 신축하여 3월22일 횡성문화원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표지석 제막, 테이프커팅으로 시작된 준공식은 횡성문화원회원, 기관단체장, 횡성주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김영아전통예술단의 '버꾸춤' 으로 식전공연을 하고, 식후 공연으로는 전통줄타기 보존회의 줄타기 공연을 진행해 기쁨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지역사회문화사업

♣ 전시회

▶ 2018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 전시회 (12.11)

횡성문화원은 횡성문화원 2층 갤러리에서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배운 과정을 작품으로 보여주는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가졌다.

서예(한글, 한문, 문인화)를 1년 동안 배우고 익혀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문화원을 찾는 사람들의 관심과 큰 호응을 받았다.



♣ 문화예술공연

▶ 2018 횡성문화원 창립 54주년 기념 문화예술공연(11.8)/ 횡성문화원 발표회장
 횡성문화의 역사인 횡성문화원의 창립 54주년을 기념하며 횡성문화의 역사를 기리고자 문화예술공연행사를 가졌다. 1부에서는 김성수 시인의 시낭송 -“3.1공원 느티나무는 그날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을 시작으로 박순엽 문화원장님의 “4.1 횡성군민만세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2부에는 예술단 농음의 창작뮤지컬 “황소이즘마, 순이” 공연이 이루어져 김순이 애국지사 여사와 함께 했던 군민들의 독립운동 역사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향토문화교육사업

♣ 문화유적지순례

▶ 황성문화원은 향토문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선조들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5차례에 걸쳐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 문화원 회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 황성군 귀농귀촌인들과 함께 관내·외 문화유적지답사를 다녀와 우리의 전통문화와 우수한 문화유산을 폭넓게 접하고 익힐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관내 문화유적지 답사 〉

- ▶ 1차 : 2018. 5. 19. (토) 민족사관고등학교 155명
- ▶ 2차 : 2018. 6. 4. (월) 문화학교수강생 28명
- ▶ 3차 : 2018. 10. 29. (월) 황성군 귀농귀촌인 41명
- ▶ 4차 : 2018. 10. 31. (수) 회원 · 문화학교수강생 35명



〈1차 민족사관고등학교〉



〈1차 민족사관고등학교〉



〈2차 문화학교수강생〉



〈2차 문화학교수강생〉



〈3차 황성군 귀농귀촌인〉



〈3차 황성군 귀농귀촌인〉



〈4차 회원 · 문화학교수강생〉



〈4차 회원 · 문화학교수강생〉

〈 관외 문화유적지 답사 〉

- ▶ 일 시 : 2018. 4. 26(목) ~ 27(금) / 1박2일
- ▶ 답 사 지 : 전남 해남군 · 목포시 문화유적지 일원
- ▶ 참가대상 및 참여인원 : 문화원 회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 60명



〈목포근대역사관〉



〈해양유물전시관〉

향토문화보존전승사업

▶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3.2/교항리 전천 둔치)

황성문화원은 우리민족의 세시풍속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황성군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전통민속놀이 재현과 체험을 통하여 고유의 민속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바지하고자 정월대보름 달맞이 및 민속놀이 행사를 가졌다. 3월 2일 교항리 전천둔치에서 사물놀이, 풍물놀이, 한국무용 등 황성문화원 문화학교의 공연으로 시작된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전통떡메치기, 용줄다리기, 지신밟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강강수월래 등 대보름행사를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행사에 방문한 황성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제23회 강원도 사물놀이경연대회 (9.6.)

강원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동해문화원이 주관하여 동해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강원도 시·군별 13개 문화원 팀의 경연이 있었으며 2016년도 대상을 수여한 삼척문화원이사부 무용단의 소고춤 식전공연과 2017년도 대상을 수여한 동해문화원 빛오름팀의 장구놀이 축하공연이 있었다. 횡성문화원 <어서 매풍물패>는 영남사물놀이로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 향토문화기록촬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유·무형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향토문화유적등과 각종 문화행사 자료들을 촬영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록, 보관하고 있다.

애향활동전개사업

♣ 애향지 발간

▶ 횡성문화 발간

횡성문화원 애향지 통권 제33호로 발간되는 『2018 횡성문화』는 애향활동전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문화 창달과 군민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향토 문화 진흥을 위해 발간되었다.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향토문화의 연구, 향토문화숨결, 횡성사람 횡성이야기, 학습문화의 고찰, 문화유산을 찾아서, 문예미당, 문화원 소식> 등을 수록해 전국문화원과 문화원 회원 및 관내기관 및 단체, 공공도서관, 자료실 등에 배포하여 횡성을 알리는 애향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향토인물선양

▶ 故(고) 이연승작가 추모 동시비건립 21주년기념 어린이 글짓기 대회 (10.24.)

황성문화원은 아동문학가로서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던 故(고)이연승작가의 업적을 기리고 어린이들에게 시심과 동심을 심어주며 새로운 창작 문화 활동을 창달 시켜나기는데 이바지하고자 어린이글짓기대회를 개최하였다. 10월 24일 황성문화원 발표회장에서 개최된 어린이글짓기 대회는 황성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약 100여명의 초등학교생이 참가해 동시부문 87편중 65명, 산문부문 11편중 9명을 입상자로 선정해 시상하였다. 동시부문 최우수상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정겹게 표현한 정금초등학교 4학년 최수연 어린이가 수상하였으며, 산문부문 최우수상은 친구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바람이 새로운 친구가 되어 위로해 준다는 내용을 담은 유현초등학교 6학년 이예원 어린이가 수상하였다.



시설관리유지사업

문화원 소식을 빠르게 전하고 다양한 문화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문화원 홈페이지를 운영, 유지관리하고 있다. 또한 사무실 환경개선을 통해 방문객이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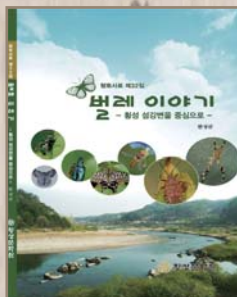
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업무 능률 또한 향상시켜나가고 있다.



향토사료조사사업

♣ 향토사료 수집 및 자료집 발간

황성문화원에서 발간된 향토사료집은 대부분 향토사에 관련된 것들이었으나 올해 발간된 제32집 「벌레이야기 - 황성 섬강변을 중심으로」는 황성 섬강변에서 발견된 거미류 47종, 파리류 44종, 딱정벌레류 74종, 나비류 97종, 노린재 46종, 총 308개의 벌레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다. 「벌레이야기」는 '황성 문화'에 열 번에 걸쳐 연재하여 왔는데 이 모두를 모아 단행본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향토사료 제33집 「아! 1919 황성 3.1운동」과 향토사료 제34집 「황성지역에서의 의병 전투와 황성인의 독립운동」은 '의병과 독립운동' 하면 빼고서 말할 수 없는 '애국의 고장' 황성의 만세운동과 의병활동 및 독립운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조국을 구하기 위해 일어났던 만세운동과 황성지역의 병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의 발자취를 자세히 남겨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삼고자 발간하게 되었다. 이들의 희생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기술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선열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조국과 자기 고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껏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깨닫기 바라며 올해 발간된 향토사료집은 향토사 발굴 선양을 위해 전국문화원, 유관기관·단체, 공공도서관, 사료연구기관 및 자료실에 배포하여 고장과 나라사랑의 향토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 향토사 연구

▶ 제28회 강원도 향토문화 연구논문 발표회 (6.21.)

지역의 향토사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방법의 일환으로 매년 “강원도 향토문화 연구 논문 발표회”가 개최된다. 도내 각 지역에 산재해 있으면서도 관리소홀로 점차 잊혀져가는 향토문화 자료를 발굴, 재조명하며 전통문화의 정립과 선양을 통하여 향토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강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금년에는 흥천문화원이 주관하여 흥천문화원 공연장에서 열렸다. 횡성문화원에서는 진연호님이 “횡성의 금산봉산과 시장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로 참가하여 노력상을 수상하였다.



▶ 관외 향토문화 비교답사 (8.27 ~ 8.28)



횡성문화원에서는 타 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폭넓게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를 보전·계승·발전 시켜나가는데 이바지하고자 관외 향토문화 비교답사를 해오고 있다. 금년은 횡성문화원 임직원 24명이 신리문화권(부산·경주)을 답사하여 골굴사, 해동용궁사, 용두산공원, 부산UN공원,



안동병산서원등을 방문하여 향토문화유적들을 비교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 향토사료발굴자료조사 「서원면 문화유적지 일원」 (4.13.)



횡성문화원에서는 향토사료조사사업의 일환으로 횡성관내 향토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자료를 수집 및 연구하여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보존 및 계

발시켜 나가고자 한다. 금년에는 향토문화유적지인 횡성풍수원성당, 매봉서원, 취석정, 금대리 의병총 등 서원면 일원을 답사하여 횡성지역의 애국지사를 찾아보고 과거의 아픈 경험 속에서 교훈을 얻어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노력하고자 하였다.

문화학교운영사업

▶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3.12.~12.14.)

횡성문화원은 매년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해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제19기 횡성문화원 문화학교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감성 계발 및 지식기반을 창출하고 건전한 여기문화 활동으로 사회적 역량을 높여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각 대회에 출연하여 많은 상을 수상하는 등 어느 해보다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2018년도 운영현황)

강좌명	강좌내용	강사명	교육기간	수강인원	수료인원
서예교실(한 글)	한글필법	김해동	3.12. ~ 12.14.	22	12
서예교실(한 문)	한문필법	천금용	3.12. ~ 12.14.	24	13
서예교실(문인화)	문인화필법	천금용	3.12. ~ 12.14.	16	8
동양고전교양	명심보감 논어 맹자해설	김인규	3.12. ~ 12.14.	14	9
어르신풍물교실	장구,북,징,꽝과리 사물 및 기능	김해숙	3.12. ~ 12.14.	20	14
국악(판소리)	국악가락 및 창법	박양순	3.12. ~ 12.14.	21	13
한국무용(기본무)	한국무용(기본무)춤사위 실기	김영아	3.12. ~ 12.14.	14	11
실버에어로빅	건강체조 실기	조미경	3.12. ~ 12.14.	31	22
가야금 교실	가야금 기초기법 및 가락	이영	3.12. ~ 12.14.	16	9
우쿨렐레 교실	우쿨렐레 연주기법	신은경	3.12. ~ 12.14.	15	10
사물놀이(야간)	장구,북,징,꽝과리 사물 및 기능	송세영	3.12. ~ 12.14.	12	9
색소폰(야간)	색소폰 연주기법	김정수	3.12. ~ 12.14.	16	3
합창교실(야간)	합창의 기초호흡 및 발성법	신은경	10.15 ~ 12.14	29	-
난타교실(야간)	난타연주 기초 및 퍼포먼스	최영아	10.15 ~ 12.14	15	-
합계	14개 과목		8개월	265	133



서예(한글) 교실



서예(한문) 교실



서예(문인화) 교실



동양고전교양 교실



어르신풍물 교실



국악(판소리) 교실



한국무용 교실



가야금 교실



실버에어로빅 교실



우쿨렐레 교실



사물놀이(야간) 교실



색소폰(야간) 교실



합창(야간) 교실



난타(야간) 교실



문화학교 개강식



문화학교 수료식

〈 제19기 문화학교 운영성과 〉

- 제8회 의암 류인석 전국휘호대회 한글부문 - 차상1명, 특선3명, 입선6명
- 제20회 퇴계이황선생 추념 전국서예대회 - 우수상1명, 특선4명, 입선4명
- 제6회 회헌(안향)선생 휘호대회 - 특선4명, 입선4명
- 제8회 세종대왕 전국한글휘호대회 - 입선4명
- 제41회 여초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 - 특선2명, 입선2명
- 제21회 김삿갓문화제 전국휘호대회 - 차상1명, 특선1명, 입선6명
- 제14회 탄허대종사 선서 함양 전국휘호대회 - 특선4명, 입선4명
- 제4회 행주대첩 전국휘호대회 - 특선1명
- 제4회 오산 독산성 전국휘호대회 - 특선2명
- 제28회 강원서예대전 - 특선 4명, 입선2명
- 제13회 운곡서예문인화대전 - 특선6명
- 제42회 김생서예대전 - 입선3명
- 제14회 대한민국 소치미술대전 - 입선1명
- 제13회 대한민국 남동미술대전 - 특선1명
- 제16회 님의침묵 서예대전 - 특선1명, 입선1명
- 제11회 흥성평생학습축제 휘호대회 - 최우수1명, 우수1명, 특선4명, 입선4명
- 제3회 세계민속예술경연대회 민요부문 - 최우수상
- 2018 윈터댄싱카니발대회 금상
- 2018 댄싱카니발대회 은상
- 2018 대만 타이중 국제댄싱카니발 초청 공연
- 제3회 세계민속예술경연대회 민요부문 최우수상
- 제26회 강원국악경연대회 일반부 - 은상, 장려상
- 2018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단체 어르신부 1위, 개인 최고령상
- 2018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에어로빅대회 - 대상
- 제23회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 - 장려상

문화사랑방운영사업

▶ 전통문화체험학습교실 (7.30.~8.3. / 문화사랑방)

횡성문화원에서는 문화사랑방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체험학습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고장의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향토문화를 계승·발전 시켜 나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올해에는 부채 만들기 체험, 국악 배우기(판소리·남도민요), 부채춤 배우기, 가야금 배우기, 사물놀이 배우기, 전통 떡 만들어 먹기 등의 수업이 있었으며 관내 초등학생 30여명이 1주간 참여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관외 전통문화 현장학습 (10.18~10.19.)

횡성문화원에서는 문화사랑방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향토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원회원과 문화학교 수강생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와 우수한 문화유산 등을 폭넓게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관외 전통문화 현장학습을 다녀오고 있다. 금년에는 전주, 부여(백제문화권) 일원을 1박2일 답사하여 전주한옥마을, 백제문화단지, 고란사, 낙화암 등을 둘러보며 우수한 백제문화권의 문화유산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일 시 : 2018. 10. 18.(목)~10. 19.(금) / 1박2일
- 답사지 : 전주, 부여(백제문화권) 일원
- 참가대상 및 참여인원 : 문화원 회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 60여명

기타지원문화사업

▶ 2018년 제11회 황성평생학습축제 전통혼례

(09.15. / 문화체육공원 원형공연장)

황성문화원에서는 제11회 황성평생학습축제를 맞이하여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해 나가고자 「제11회 황성평생학습축제 전통혼례」를 개최하였다. 황성문화원 문화학교 가야금반, 한국무용교실의 식전 경축공연으로 시작되고 황성문화원 풍물패의 앞놀이 마당과 함께 진행된 이번 전통혼례는 예식장 혼례식이 풍속화 되어 보기가 어려워진 전통혼례 예식을 진행함으로써 평생학습축제를 찾은 많은 주민들이 전통혼례의 의미와 절차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2018년 제11회 황성평생학습축제 휘호대회

(09.16. / 문화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황성문화원에서는 평생학습 참여에 따른 자아실현과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서예예술의 저변확대와 신진예술인을 발굴·육성하고자 「제11회 황성평생

「학습축제 휘호대회」를 개최하였다. 서예인의 문화적 소양과 삶의 질을 향상 시켜나가고자 9월 16일 문화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휘호대회는 일반부 43명(한글 12명, 한문 23명, 문인화 8명)과 초대작가 19명(한글 4명, 한문 15명) 포함 총 62명이 신청·참가하였으며 이중 일반부 <대상 1점, 한글부문 6점, 한문부문 16점, 문인화부문 5점>의 입상작품을 선정하여 27명의 입상자들에게 시상금과 시상품을 수여하였다.



▶ 2018년 횡성 어르신 노래자랑 (5.11./ 횡성문화예술회관)



횡성문화원에서는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숨겨진 끼와 장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8년 황성 어르신 노래자랑」을 개최하였다. 황성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5월 11일 황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황성 어르신 노래자랑은 총 24팀이 참가하였으며 이 중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인기상 3명, 참가자상 5명>의 15팀의 입상자들에게 시상금과 부상을 수여하였다.



▶ 전통국악예술대공연 (12.6./ 황성문화예술회관)

지역문화발전과 향토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통국악예술단을 초청 · 공연함으로써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보급을 전개하여 아름다운 우리문화 복지사회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2018 황성군민을 위한 전통국악예술대공연”이 황성문화원의 주관 아래 12월 6일 황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인기국악인 부부 김준호 · 손심심의 맛깔난



진행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전통국악예술대공연은 허튼가락을 시작으로 판소리(황성가), 부채춤, 경기민요, 가야금병창, 각설이타령, 한국무용(진도 북춤), 남도민요, 김준호·손심심의 성주풀이, 정선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 아리랑 등 여러 장르의 예술 공연으로 진행되어 황성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횡성문화 통권 제33호 편 · 집 · 후 · 기



‘횡성문화 2018’ 를 마무리 하며,,

2018년 의 횡성!!

^^긴 호흡을 하며

대망의 2018년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날, 한 날, 하루의 일과를 봄에 씨앗을 심듯, 꼭 꼭 심었습니다.

때로는 길가에, 때로는 가시덤불에, 때로는 돌짜밭에, 때로는 기름진 옥토에 심고 가슴 설레었던 한해였습니다.

똑! 똑!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순간 이 자리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또 한 페이지를 만들어 내며 한 권의 책을 탄생시켰습니다.

「횡성문화」33호

한해를 거듭하며 일궈냈던 발자취들을 감동으로 풀어내는 횡성사람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남기려합니다.

역사속에 숨어있고, 마음속에 묻어둔 그리움들을 꺼내 놓으며 자연과 함께
호흡했던 세상에 지난 시간들의 파노라마를 그려봅니다.

이를 위해 옥고를 주신 모든분들, 바쁘신중에도 큰 도움을 주신
편집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따뜻한 사랑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현재도 미래도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22

횡성문화 통권 제33호 편집위원회

위원장 박 현 속

* 문화원 회원 입회안내 *

횡성군 관내 성인 남·여 거주자로 학력 및 직업 등의
자격 제한없이 수시로 누구나 입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입회비 : 10,000원

연회비 : 30,000원

횡성문화원 ☎ 343-2271

- 편집위원장 : 박현숙
- 편집위원 : 박현숙, 이병근, 김정예, 정재영, 한상균, 현원명

2018 **횡성문화** (통권 제33호)

발행일 _ 2018.12. 27

발행처 _ 횡성문화원 ☎ (033) 343-2271

발행인 _ 박순업

기 획 _ 민준식

디자인 · 제작 _ 서원기획 ☎ (033) 343-2404

※ 본 책자는 비매품입니다.

※ 본 책자의 일부 내용은 횡성문화원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